



# 기독일보



2024년 5월 8일 수요일

www.christiandaily.co.kr

구독신청 02-6085-8166 제 2538호

## “국회의원 당선자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 하길”

### 인천광역시 제22대 국회의원 초청 감사예배 및 축하회 열려

인천광역시기독교조찬기도회(대표회장 이건영 목사)가 지난 7일 오전 인천 허버파크호텔에서 제42회 인천광역시 조찬기도회를 ‘제22대 국회의원 초청 감사예배 및 축하회’로 드렸다. 이날 기도회는 1부 예배와 2부 축하 순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 예배에선 황규호 목사(공동회장)의 인도로 참석자들은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부른 후 김중훈 장로(인천광역시 총연합회장로 총회장)가 대표기도를, 장은와 장로(인천광역시 어미니기도회 회장)가 성경봉독을 했다. 이어 이건영 목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잠언 16:9)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목사는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당선자님들께서도 내가 당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선시켜 주셨구나 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역을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당선 이

후 모든 일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지금보다 좋은 길로 인도해주시실 것”이라고 했다.

이어진 특별기도순서에서 정일량 목사(인기총 상임회장)가 “자유민주주의 대한 민족으로 번영과 안보와 출산강국이 되게 하소서, 김진욱 목사(인기총 공동회장)가 “제22대 인천 여야 국회의원들이 시민들에게 자랑스럽고 생명존중하는 파수꾼이 되게 하소서, 신용대 목사(인기총 공동회장)가 “인천시의 모든 악법을 과감하게 철폐하고 이슬람사원의 건축도 막아 주소서, 신윤진 목사(인기총 공동회장)가 “인천시민에게 행복과 가정보호 및 거룩한 도시로 복음화 시켜주소서라는 제목으로 각각 기도했다. 이어 임형재 목사(인기총 증경회장)가 축도했다.

이어진 2부 축하 순서에선 하귀호 목사(직전회장)의 사회로 김길수 목사(상임부회장)가 당선자 소개를 했다. 이어 축하패



“하나님 뜻을 따라” 제42회 인천광역시 조찬기도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초청 감사예배 및 축하회’로 드려졌다. 참석자들이 다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승연 기자

증정을 했으며 유정복 인천광역시시장,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이 축하인사를 전했다. 또 이종복 목사(여연기념관대표), 정연수 목사(전 중부연회 감독)가 격려사

를 전했다. 윤상현 국회의원(국민의힘), 김교홍 시장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답사를 했다. 윤 의원은 “이 자리까지 오게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번 총선을 통해 권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권력에 대한 겸

손은 자기의 내공이나 수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믿음으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믿음이 큰 지도자일수록 큰 정치를 하며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17대 국회부터 21대까지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앞으로도 계속 입법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인천에 있는 인력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김교홍 위원장은 “이번 총선을 통해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 당선되었지만 한 편으로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이런 생각을 하면 민심을 잘 받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걸맞은 정치로 인천 발전을 이끌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행사는 이어 전명구 목사(공동회장)의 당선자를 위한 축복의 기도, 임재성 목사(사무총장)의 광고, 김덕구 장로(본회 위원)의 조찬감사 및 마침기도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최승연 기자

## 순교자의소리, ‘조선어 성경 최초 번역’ 존 로스 선교사 책 출간

### 7일 최성일 교수 ‘최초의 한국어 성서와 한국 개신교의 기원’ 출간 기념 기자회견

한국 순교자의소리(한국VOM, CEO 에릭 폴리, 대표 현숙 폴리)는 7일 서울 정릉 사무실에서 최성일 한신대 명예교수가 저술한 책 ‘최초의 한국어 성서와 한국 개신교의 기원’ 출간 기념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책은 한국VOM이 구한말부터 조선 기독교 선교사로 활동한 스코틀랜드연합장로교회 소속 존 로스의 선교 역사를 연구한 최 교수의 박사학위 영어논문은 한국어로 번역해 출간한 것이다.

한국VOM에 따르면, 존 로스 선교사는 북한 지하교인의 뿌리가 될 수 있다. CEO 에릭 폴리 목사는 “한국교회와 성장하려면 한국 기독교의 초기 역사를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 개신교의 기원은 두 그룹으로 분류된다. 아펜젤러, 언더우드, 알렌 등 서양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에서 출발한 기독교다. 이들이 당시 조선 사람들을 전도 방법이 병원, 학교 등 문화나 생활방식의 유행을 제공하면서 기독교의 매력을 호소하는 것으로 기독교를 전하

는 것”이라며 “조선 사람들이 외국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이나 학교, 또는 이들의 사택을 방문하면서 기독교에 매력을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그룹은 앞선 서양 선교사들보다 먼저 온 스코틀랜드 출신 존 로스 선교사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전파 방법이다. 이들은 병원이나 학교 등을 세우는 것보다, 성경 번역본을 조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전도했다”며 “이 성경 번역을 했던 조선인들은 처음엔 기독교인이 아니었으나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인이 됐다”고 했다. 그는 “번역된 성경 1만 5천 권이 아펜젤러 등 앞서 소개한 선교사들이 조선에 도착했을 때보다 이미 조선 땅에 배포된 상태였다”며 “그의 선교 방법론은 선교사가 선교지에 먼저 파견되기보다, 성경을 먼저 그 선교지에 배포하는 것”이라고 했다.

에릭 폴리 목사는 “조선에 선교한 두 부류의 선교사들은 서로의 다름을 존중

하고 이해했다. 존 로스가 성경오만만 전도하는 선교 전략은 1930년대까지 효과적으로 이뤄졌고, 오늘날 북한 지하교인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며 “1989년부터 남한 기독교는 매년 교세 감소세를 직면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교세는 이전 대비 전체 교회의 30%가 사라졌다”고 했다.

에릭 폴리 목사는 “일각에선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가령 기독교를 선호하는 정치가를 선출하면 된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다른 전략이 있다. 존 로스에서 시작된 선교 방법론”이라고 했다.

그는 “이는 아펜젤러 등 서양 선교사들이 병원, 학교 등 생활의 유행을 제공하면서 전파하는 기독교 방식과 달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하는 방식”이라며 “존 로스의 선교 방법론으로 인해 북한 지하교회와 성장했다. 이 방법론은 북한 지하교회의 태동 이래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남한과 북한 교회의 성장세를 비교하면, 강한 정치적 박해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교회의 성장세가 남한보다 앞서고 있다”고 했다.

다. 에릭 폴리 목사는 “이러한 북한 교회의 강력한 성장세를 견인한 존 로스의 선교 방법론은 교회가 존재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강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존 로스의 선교 방법론을 광범한 기독교인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어, 존 로스 선교사 전문가인 최성일 한신대 명예교수에게 그가 저술한 존 로스 관련 논문의 출간을 제안했고, 그의 승낙에 따라 순교자의 소리에서 책을 출간하게 됐다”고 했다.

에릭 폴리 목사는 “이는 존 로스 선교 방법론에 대해 설명하는 최고의 책”이라며 “이 책을 읽는 것은 한국 기독교의 전통인 ‘성경 사랑’을 회복하는 지름길을 제시한다. 한국 기독교를 부흥시킬 유일한 방법은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책의 저자 최성일 한신대 명예교수는 “존 로스가 조선인을 만난 건 하나님의 섭리였다. 제가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대학으로 유학할 당시 지도 교수는 내게 존 로스가 한국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며 박사학위 논문 저술을 제안했다”며 “안수받은 선교사로서 중국 만

주에 파견됐던 존 로스가 어떻게 조선 선교를 결심했을까. 그는 조선인 몇 명을 고용해 한글 성경 번역 작업에 돌입했고, 1882년 누가복음을 시작으로 1887년 신약성경 완역을 완수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최 교수는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는 미국 선교사로부터 시작했다고 주로 저술포되지만, 실질적인 시작은 존 로스 선교사에게서 시작됐다”고 했다.

그는 “3000년 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한국어로 번역되지 않았다면 한국 교회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번역은 화심의 역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에 이어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받아들여 삶이 바뀌는 역사가 두 번째 사건이라면, 성서는 선교의 도구가 아니라 본질”이라며 “말씀이 없다면 선교가 이뤄질 수 없다. 어떤 형태로든 말씀이 번역되고 선포돼야 선교가 완수된다”고 했다.

최 교수는 “존 로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열정밖에 없었다. 그는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을 권사인을 통해 조선에 전파했고, 결국 한국기독교가 발전된 것”이라며 “그러나 한국교회의 쇠퇴는 1980년대부터 하나님의 말씀보다 외적인 부분에 집중된 탓이라고 본다”고 했다.

최 교수는 “1882년 존 로스가 누가복



(왼쪽부터) 현숙 폴리 대표, 최성일 교수, 에릭 폴리 CEO ©노형구 기자

음을 번역할 당시엔 구전 문화로서, 일반 백성들은 읽을거리가 없던 시절에 성경을 암송하는데 탁월했다. 그러나 지금은 외우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위와야 살아 움직여 우리에게 역사한다”고 했다.

그는 “당시 상인 김철승이 만주에서 한약 장사를 마치고 존 로스의 성경 번역 작업을 위해 채용됐고 이 작업 과정에서 누가복음 세용모두를 외워버렸다. 그리고 그는 암묵간 근저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 1년 반 동안 가정 75곳에 누가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줬다”며 “존 로스의 성경 번역본은 한국 새문안교회 창립에 영향을 줬다. 이처럼 존 로스는 한국 개신교의 기틀을 잡은 인물”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일각에서 알려진 존 로스 일화에 관해 오해가 있다며 “존 로스가 한국어 성경 번역 작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고, 다만 자금 조달 등 출판 책임 역할을 했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8·9호선 석촌역 10초**  
석촌호수 · 한강을 품은 최고의 입지!

**리버레이크 송파**  
RIVER LAKE SONGPA

933

**석촌**  
(한솔명원)

8 9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 2021. 11. 23.  
대지 전체 면적비율 63.7% 사용권원 확보  
(사유지면적 4,259.90㎡ 대비 확보면적 2,717.76㎡ 비율 63.7%)

※조합원 자격기준 ■ 서울·경기·인천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 ■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이하 1세대 소유자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세대주(투기과열지구)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전 날로 한다. ※조합주택의 공급방식 ■ 주택의 규모는 조합의 사업계획 및 사업계획승인의 내용에 따라 평형별로 확정한다. ■ 조합에 제출한 기업신청서에 신청한 평형 또는 납부한 부담금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 조합원의 동·호수 결정은 사업계획승인 후 조합 총회 결의에 따라 결정한다. ■ 조합원 모집 차수 또는 동·호수에 따른 분양가격(조합원 부담금)에 차등을 둘 수 있으며,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분양가격(조합원 부담금) 상정의 방법으로 정한다. ■ 건축관련 법규에 따라 인·허가 진행과정에서 관련법규와 허가신청의 조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 부분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기존 기입한 조합원의 동·층·호수·양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배정되는 세대배치 업무일체의 권한을 업무대행사에 위임한다. ※상기 조건에는 각종 개발 계획(지구단위계획수립 등) 및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부담금은 추후 관련 법규 개정, 사업 인허가, 설계변경, 시공사 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4천만원대!**  
**분양가 5억원대!**

**시공예정사 대우건설**

석촌역10초역세권 · 35층 한강조망권 · 잠실중심생활권  
중도금 무이자 · 송파 랜드마크 · 청약통장 무 · 35층 상향확정

**상담문의 02) 588-1800**



# 대형교회 분립개척의 의미와 목표는?... 어떤 사례 있었나

분당우리교회가 '일반성도 파송운동'을 통해 29개 교회를 분립시킨 지 2년이 지났다. 이 교회 담임 이찬수 목사는 지난 2022년 4월 25일 주일예배에서 "현재 남은 교인들은 5천 여명이 됐다"고 했다.

'일반성도 파송운동'은 분당우리교회 전 성도의 최소 절반인 1만 명에서 최대 4분의 3인 1만5천 명까지를 분립개척교회로 파송하는 프로젝트다. 분립된 교회들은 서울 4곳을 비롯해 일산, 구리, 인천, 안양, 성남 9곳, 하남, 경기도 광주 2곳, 용인 6곳, 수원 2곳, 그리고 화성에 위치해 있다.

### ◆분립개척교회의 정의와 사례는?

구병욱 개신대학원대학교 전도학 교수가 쓴 '건강한 교회개척을 위한 분립개척 연구'라는 논문에 따르면, 분립개척은 "첫째, 재정지원뿐 아니라 성도들을 파송해 교회개척에 참여하도록 한다. 둘째, 분립개척교회는 모교회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자율성을 가진 교회다. 셋째, 모교회가 개척 목회자를 선발해 분립개척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한다"고 정의했다.

분립개척의 사례는 분당우리교회 이전부터 있었다. 순수 실용적 목적으로 분립교회가 세워지는 경우다. 광림교회(담임 김정석 목사)는 교회에서 거리가 먼 지역의 성도들 요청에 따라 분립교회를 세우고 있다. 2017년 설립된 인천 소재 광림교회 등이 그 예다. 광림교회의 분립교회들은 정착 초기 지교회로 등록됐다 일정

기간이 지나 재정, 담임 목회자의 목회적 역량 등이 안정화될 경우 모(母)교회로부터 독립한다.

다만 분당우리교회는 특정 정신을 추구하고자 분립개척이 이뤄진 경우로 위 사례와 다르다. 구병욱 교수는 앞서 논문에서 분립개척의 의의와 목표에 대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대형교회의 위상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세상에 보냄 받은 유기체로서 성육신적 정신을 갖고 희생을 감수하며 교회를 낳는 교회"라고 했다. 이어 "맘모니즘에 물들기 쉬운 한국교회에 분립개척은 한 지역교회가 독립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교회 재정과 사람을 가까이 나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행동"이라고 했다.

### ◆분립개척의 주된 목표 "교회성장주의 탈피"

이 같은 정신을 좇은 본보기는 거룩한 빛강성교회가 있다. 1997년 개척된 몇 해 뒤부터 교회 분립을 시작한 거룩한빛광성교회는 지난해 1월까지 29번째 분립개척교회를 세웠다. 이 교회 원로 정성진 목사는 교인 숫자가 1만 명을 넘어서자 '교회의 대형화를 우려해 분립개척을 시작했다고 한다. 거룩한빛광성교회로부터 분립된 개척교회들 각 정관엔 '교인 1천 명이 넘으면 분립한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또 김동호 목사가 시무했던 '높은뜻송



분당우리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송림중고등학교 내 강당 ©분당우리교회

의교회' 사례도 있다. 이 교회는 예배 장소로 사용했던 송의여대 대강당이 수용 인원 포화 문제에 직면하자, 분립을 결정했다. 2009년 이 교회는 '높은뜻' 이름을 앞에 붙인 높은뜻정의교회, 높은뜻광성교회, 높은뜻푸른교회, 높은뜻하늘교회 등 4개 교회로 분립됐다. 여기에 교회성장주의를 경계해온 김동호 목사의 평소 철학이 반영되기도 했다.

이후 높은뜻연합선교회를 중심으로 높은뜻씨앗이되어교회, 높은뜻씨앗기독교회, 일본 높은뜻오차노미즈교회 등이 개척됐고, 이후 높은뜻덕소교회, 높은뜻과주교회 등 10곳 이상으로 분립개척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앞선 두 가지 사례들이 모(母)교

회의 명칭 일부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본점-지점' 형태의 소위 '프랜차이즈 교회'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즉, 대형교회에서 갈라져 나왔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지역교회 교인들의 분립교회로의 수평이동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구병욱 교수는 앞서 논문에서 선한목자교회의 3번째 분립교회인 '함께하는교회를 예시로 들며 이 같은 문제점을 말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함께하는교회' 담임 정기연 목사는 유기성 선한목자교회 원로목사가 이 교회를 담임했을 당시 부목사로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유 목사의 목회 철학인 '예수동행정신'을 체득했다. 그러나 그는 분립 개척한 교회에 '선한목자'라는 명칭을 쓰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12차 분립개척 교회들은 교회 이름에 '선한목자교회'라는 이름이 포함돼 있어, 개척하는 지역에서 거부감이나 반대 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기존 지역교회 교인들의 수평이동을 염려한 것이다. 그래서 스승 목사의 목회철학인 '동행'을 담되 '선한목자'를 쓰는 대신 '함께하는교회'로 탄생된 것이다.

분당우리교회의 분립교회 29곳 모두 '우리'라는 명칭은 쓰지 않았다. 분당우리교회의 '일반성도 파송운동' 추진 이유도 성장주의를 지양하고, 지역교회들과의 상생을 추구하기 위함이라고 알려졌다. 이찬수 목사는 지난 2022년 4월 25일 주일예배에서 일반성도 파송운동의 달성을 선언하면서 "지금 침체를 겪고 있는 한국교회에 29개 교회와 분당우리교회가 존재하는 그것 때문에 인권의 작은 교회들이 같이 기뻐하고 상생하고 같이 꿈을 꾸고 싶다"고 했다.

### ◆바람직한 분립개척 되려면

구병욱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교회의 건강성 지표는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교회"라며 "분립개척의 목표달성 여부는 성경 말씀을 애곡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선포하면서, 그 말씀이 삶에서 드러나도록 성도들을 양육하는지에 따라 달렸다"고 했다.

대형교회는 분립교회가 들어설 지역 교회의 생태계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도 했다. 구병욱 교수는 "바

람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교회를 세워 선교하기로 결단한 것처럼, 분립개척이 복음화율이 약한 지역에서 진행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관점에서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30대 개척 목회자인 김요환 성령교회 담임목사는 "어떤 형태로든 복음이 전파될 수만 있다면 기뻐했던 바울의 정신을 생각한다면 대형교회의 분립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어 전체 지역교회에 덕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분립교회의 위치 선정 변수는 인근 교회 숫자의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분립교회가 지역교회가 하지 못했던 전문사역을 감당하고, 나아가 사역의 다각화를 이뤄내는데 일조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일산시 소재 어린양교회 담임 이춘근 목사는 "주님의 머리 아래 있는 지역교회들은 서로 지체로서 연결돼 있어야 한다"며 "작은교회처럼 한 손가락의 아픔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교회만 잘 된다고 생각한다면 성경적 원리에 어긋난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형교회의 분립교회 등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 지역사회의 교회 이미지를 선도해 가는 사역을 하면 좋을 것"이라며 "그러면 지역사회의 기독교 신뢰도를 높이면서 작은 교회들이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노형구 기자

## 한경직·마삼락·한철하... ACTS 초기 인물들의 신학적 유산은?

### 아신대 개교 50주년 기념, 제16차 신학포럼 열려

아신대학교 부설 ACTS 신학연구소(소장 허주 박사)가 최근 2일에 걸쳐 경기도 양평에 있는 교내 강당에서 제16차 ACTS 신학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아신대 개교 50주년을 기념하면서 'ACTS의 초기 인물과 신학적 유산'이라는 주제로 초대 이사장 한경직 목사, 초대 원장 마삼락 박사, 초대 부원장 한철하 박사의 생애와 사상을 조명했다. 이들이 어떻게 ACTS를 설립하고 이후 그 발전에 공헌했는지 살펴보기 위한 이었다.

◆故 한경직 목사  
첫날 발제자로 나선 임희국 박사(장신대 명예교수)는故 한경직 목사

(1902~2000)의 삶과 신앙을 추적하면서 영락교회 목회(1945~60), 동아시아 중심 교회연합적 국제활동(1950년대), '민족복음화운동'(1960년대 중반~1980년대), 그리고 국내 및 해외 기독교 지도자들과의 지속적인 연대 속에서 그가 어떻게 ACTS 설립에 공헌할 수 있었는지(1966~74) 그 시대의 환경을 다층적으로 조명했다.

더불어 임 박사는 "아시아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 설립된 ACTS는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위기와 도전 앞에서도 설립 비전에 따른 선교적 교육 가치가 분명하기에 21세기에도 계승되고 더욱 발전되기를" 당부했다.

### ◆故 마삼락 박사

둘째 날 발표한 김승곤 박사(안양초대교회)는故 마삼락 박사(Samuel H. Maffett, 1916~2015)의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주요 역사적 자료(사진, 증

명서, 신문보도, 편지 등)를 강연 내내 참석자들에게 보여주었다. '아메리칸-코리안'으로 평양에서 태어난 마삼락 박사는 아버지 마포삼열(Samuel A. Moffett, 1864~1939)을 따라 대를 이어 한국교회 및 신학교 교육에 공헌했다고 김 박사는 전했다.

김 박사는 "이런 국제적이면서도 한국-아시아적 태생 배경을 가진 마삼락 박사는 '복음의 능력, 교회의 연합, 사회 참여'에 대한 균형 감각이 돋보였고, 이런 그의 신앙-신학적 이해가 ACTS 설립과 초기 성장에 있어 선교에 초점을 맞춘 복음주의적, 초교파적, 국제적인 신학교로 세워지는 데 중요한 기틀을 제공했다"고 보았다.

### ◆故 한철하 박사

마지막 날은 손봉호 박사(서울대 명예교수,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의 강

연이 있었다. 손 박사는故 한철하 박사(1924~2018)를 "신앙과 선교, 목회를 위한 신학자"로 명명했다. "서양철학과 신학에 대한 지식이 박식했음에도 서양의 '학문으로서의 신학'(Theologie als Wissenschaft) 운동을 비판적으로 성찰함으로써 '단순하고 순수한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학문과 신학에 늘 천착했다"는 것이다.

손 박사는 또한 한철하 박사를 "ACTS의 유모"였다고 하면서 "그의 헌신과 열정이 없었다면 ACTS는 오늘날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회고했다. 손 박사는 당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는데 1975년부터 ACTS의 '기독교 철학 교수'로도 '자원봉사하면서 강의뿐 아니라 행정, 통역 그리고 때론 한 박사의 비서 역할까지 담당했다고 한다.

### ◆"세 분의 헌신으로 심겨진 ACTS의



제16차 ACTS 신학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신대

### 씨앗"

신학연구소장 허주 교수는 "목회자 한경직, 선교사 마삼락, 신학자 한철하, 이 세 분이 각자의 생애와 사역의 후반기 함께 만나, 한국교회 분열의 아픔이 가지지 않은 그 때, 서로 연합하고 헌신해 50년 전 서울 서대문에서 '신학-선교적 나무 ACTS'의 씨앗이 심겨진 것이 아름답고 놀랄 뿐"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신학교육기관이야말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의 손길이 아닐 수

없어 포럼 기간 내내 감탄하고 감사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신대는 "은혜로 곁어온 50년, 세계로 나아가 100년이란 표어 아래 올 한 해 희년을 맞이한 아신대가 기독교 글로벌 다문화 대지주 양성에 계속 기여하는 교육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17차 신학포럼은 오는 10월 경기도 양평 아신대 강당에서 '다문화 복지의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

행복한농촌, 함께가는KRC

**함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6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KRC 한국농어촌공사



# “날 살게 한 생명의 복음... 우리의 유일한 소망”

## [힘내라! 한국교회 시즌3] 은계나눔교회 이용호 목사

기독일보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연중 기획 인터뷰 ‘힘내라! 한국교회 시즌3’를 진행한다. 첫 번째 주인공은 경기도 시흥시 소재 은계나눔교회 이용호 목사(41)다. 불신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러한 배경에 한 기업체 사원으로 10년 동안 일하면서 그곳에서 일하는 불신자 직원들의 고충을 듣고 불신자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 2017년 회사 내 신자들과, 사목으로 일하면서 동시에 주말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 청년부원들과 의기투합해 개척목회를 시작했다. 현재 이 교회의 신자는 150여 명으로 늘었다.

그는 개척목회에서 방점을 찍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제자를 세우는 것”이라며 “개척목회의 장점은 목사가 직접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쏟고 양육하며 훈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건물보다 사람에게 투자하고 싶다”고 했다. 특히 다음세대 신앙양육에 집중할 결과 유초·중·고등학교 주일학교의 올해 인원은 지난해 대비 2배 늘어난 50명 정도라고 한다. 다음은 이용호 목사와의 일문일답.

### -목회자가 된 계기는?

“대학 때 회화를 처음 가게 됐다. 학부 1학년 때는 친구들과 술을 많이 마셨다. 친구들을 선동하며 술집에 자주 갔다. 그러다가 학부 2학년 때인 2004년 대학 친구가 내게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 한국대학생선교회(CCO) 수련회에 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신앙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정말

귀하면 내 삶을 투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 -개척목회를 하게 된 계기는?

“충신대 신학대학원 졸업 이후 한 기업체의 사목으로 입사했다. 지난해 3월까지 약 10년 동안 사역했다. 회사 사목은 주중 사역이나 주말엔 교회 청년부 전도사·강도사·목사 사역을 겸했다. 당시 회사엔 신자와 불신자가 동시에 재직했었다. 불신자 회사원들과 지내면서 그들의 마음을 알게 됐다. 이들에게 전도보다 고충을 듣고 공감하며 마지막으로 기도를 해드렸다. 불신 직원들은 ‘우리의 얘기를 들어준다’는 취지로 나를 많이 좋아했다. 이를 계기로 회사를 개척해서 불신자에게 전도를 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회사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마음에 맞는 사람들 6명과 함께 2017년부터 경기도 시흥시에 지금의 회사를 개척을 시작했다. 그러다 이중직 개념으로 회사 사목과 개척목회를 동시에 하다가, 분당우리교회의 ‘꿈너머꿈 프로젝트’에 선정되면서 재정적 지원을 받게 돼, 지난해 3월부터 퇴사하고 개척사역에 전념하기로 했다. 현재 교회엔 150여 명이 출석하고 있다.”

### -개척목회의 장점은?

“담당목사가 소신껏 자기가 꿈꾸고 그러는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개척 목회자로서의 고충은?

“사람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리더나 직분자로 세우는데 고충이 있다. 적절한 시점에 준비된 일꾼으로 세우야 한다는 점이다.”

### -개척목회를 하면서 성도들과의 관계에



이용호 목사 ©노형구 기자

### 서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다면?

“‘꿈너머꿈프로젝트’ 선정 이후 지난해 부활절 주일날 청소년 중 한 가정의 우리 교회로 찾아왔다. 이 가정은 오랫동안 섬기던 교회에서 다소 거리가 있는 시흥시로 이사를 왔다. 그 시점부터 1년 동안 기존 교회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우리교회 출석을 고민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이들은 우리 교회로 출석할지를 두고 하나님께 사인(sign)을 구했고, 우리 교회가 ‘꿈너머꿈프로젝트’에 선정되자 교회 출석에 대한 응답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 가정은 기존 다니던 교회에서 성실한 사역을 감당했다가 때마침 우리 교회에서 일꾼이 절실히 필요하던 시점에 출석을 결심한 것이다. 가장 좋은 타이밍에 그 가족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 부둥켜안고 울기도 했다.”

### -작은 교회의 장점은?

“이 시대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혼자 살 수 없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이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교회는 청년이나 젊은 가정, 노인 등 외로움을 많이 타는 이들이 모여 공감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다. 작은 교회의 장점은 공동체적 소속감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가는 수준이 아니라, 나의 얘기를 언제든 털어놓고 공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주일예배를 드리고 이후 순모임 참여를 반드시 독려한다. 서로의 존재를 깊이 알고 소통하는 데 적합한 공동체가 작은 교회라고 볼 수 있다. 우리 교회의 소모임은 심지어 3시간이 넘어서도 진



성도들이 현장예배를 드리는 모습. ©은계나눔교회

직접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하고 양육하며 훈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건물보다 사람에게 투자하고 싶다. ‘꿈너머꿈프로젝트’의 도움을 받아 좋은 사역자들을 청빙하고 다음세대 신앙양육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 결과 다음세대 주일학교 재적 인원 수는 지난해 말 20명 정도 수 증가했는데 현재 50명 정도로 늘었다.”

“이 시대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혼자 살 수 없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이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교회는 청년이나 젊은 가정, 노인 등 외로움을 많이 타는 이들이 모여 공감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다. 작은 교회의 장점은 공동체적 소속감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가는 수준이 아니라, 나의 얘기를 언제든 털어놓고 공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주일예배를 드리고 이후 순모임 참여를 반드시 독려한다. 서로의 존재를 깊이 알고 소통하는 데 적합한 공동체가 작은 교회라고 볼 수 있다. 우리 교회의 소모임은 심지어 3시간이 넘어서도 진

행되기도 한다. 그만큼 소통이 깊다는 의미다.”

### -지난 주일 설교 내용은?

“사무엘상 6장 말씀을 갖고 ‘기록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설교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의 자세와 태도를 두고 설교했다. 자기를 구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태도로 예배에 나오라는 것이다. 이 본문에서 블레셋 이방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나타났지만,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며 수단으로 이용하는 모습이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소리가 임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어려워할 줄 알거든 하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반드시 자신을 성별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설교했다. 이처럼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태도로 예배에 임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자신을 성별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태도를 성도들에게 강조했다. 덧붙여 예배 시간에 일찍 나올 것을 당부했다.”

### -온라인 예배를 따로 송출하는가?

“아니다.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예배는 송출하지 않는다. 온라인 예배를 명분으로 현장예배 불출석의 빌미를 줄 수 있다. 다만 임신부 등 몸이 아픈 성도들과 가족들을 위해 주일예배 한 번만 온라인으로 송출한다. 모든 예배의 원칙은 현장예배다. 현장에서 예배드릴 것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다. 모든 예배에 전심의 애너지를 쏟는다. 그 예배를 통해 성도들이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한다. 새신자들 가운데 회복과 감동을 경험해 보면서 우리 교회의 출석을 결심하는 분들도 봤다.”

### -목사님에게 복음이란?

“생명이야. 나를 살게 한 것이며 나를 살아가게 한 이유이다. 죽어있던 내가 복음으로 살게 됐고 지금 사는 이유도 복음 때문이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자’가 과거 우리 교회의 표어였다.”

### -불신자에게 말하고 싶은 복음이란?

“소망이다. 요새 세상 사람들은 절망감을 많이 말한다. 비교의식 가운데 자기 효능감을 잃어버린 시대다. 젊은 세대들에게 이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복음만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소망이다. 힐링, 자존감, 치유 등 많은 강연에 사람들이 몰려 감동을 받고 일시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겠다. 하지만 궁극적 해결책은 아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의 근거는 복음에 있다. 복음의 소망은 자신에게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복된 소식을 듣기 위해 교회로 와 보라.”

### -기도제목이 있다면?

“아직까지 신앙이 없으신 부모님과 친누나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노형구 기자

# “다가올 초고령화 사회... 교회 시니어 사역, 선택 아닌 필수”

## 예장 합동 서울노회, ‘시니어 사역 동역교회 모임’ 개최

예장 합동 서울노회 미래로함께위원회(위원장 김봉수 목사)가 최근 서울 서현교회(담임 이상화 목사)에서 ‘서울노회 시니어 사역 동역교회 모임을 개최했다. 서울노회에 속한 교회의 목회자, 장로, 시니어 사역 전문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미래로함께위원회 위원장인 김봉수 목사(상암교회)는 “한국사회가 초고령화로 접어들었고, 한국교회도 시니어 성도들의 비율이 눈에 띄게 늘어감에 따라 2023년

미래로함께위원회를 통해 시작한 서울노회 시니어 사역들을 함께 나누고, 힘을 모아 더욱 풍성한 시니어 사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1부 순서로 서울노회에서 시니어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일곱 교회의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동성교회, 서울홍성교회, 서현교회, 은평교회에서 시니어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각 교회 시니어 사역의 현황과 사역 목표 및 프로그램, 앞

으로의 과제와 기도제목에 대해서 나누었다.

2부 순서로는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의 김석선 교수가 ‘한국교회 시니어 사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김 교수는 “2025년이면 65세 이상의 노년인구가 전체의 20%에 이르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따라 교회의 시니어 사역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교회가 시니어 사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교수는 최근 교회 기반 시니어

사역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교회의 시니어 사역 목표는 교회 안에서 시니어 성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이들어가는 “웰-에이징과 천국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웰-다잉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 참석자들은 시니어 사역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었으며 교회의 사역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시니어 사역을 더욱 잘 세워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고 주최 측은 전했다.



‘서울노회 시니어 사역 동역교회 모임’이 진행되고 있다. ©미래로함께위원회

끝으로 서대문교회 장봉생 목사는 마무리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노년의 삶에 교회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며, 서울노회를 넘어 교단의 모든 교회들에서 효과적인 시니어 사역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래로함께위원회는 “서울노회의 많은 교회들이 시니어 사역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사역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UPPERHOUSE
 롯데건설

## “자연이 결국 최고의 럭셔리다”

강남권에서 만나는 5만 6천여평의 대규모 블록형 타운하우스 단지

대규모 호텔급 커뮤니티 특화시설 제공 (스파, 사우나, 레스토랑 등)

1층 단독 정원 사용, 3층 단독 루프탑 사용

국내 최고의 조경, 건축, 설계회사 참여

상생발전회 유튜브에서 “생생발전회”를 검색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분양 문의 1666-1691

\*상기 사용된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샤머니즘 신앙과 크리스마스에 대한 고찰

류건희·방원일 박사,  
한국기독교역사학회 제424회 학술발표회서 발제

한국기독교역사학회(이재근 회장)가 4일 오후 제424회 학술발표회를 온라인 줌을 통해 진행했다. 발표회는 김성은 교수(한국기독교역사학회 지역이사, 전남대 교수)의 사회로, ▲류건희 박사(감신대 석사, 만리현교회 전도사)가 '한국의 개신교와 샤머니즘의 관계 연구: 초기 선교사를 중심으로 한 개신교의 샤머니즘 수용' ▲방원일 박사(숭실대 HK연구 교수)가 '1950년대 크리스마스를 통해 본 한국 사회의 물질적 변화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샤머니즘 신앙, 한국인의 개신교 복음 수용 수월하게 도와

먼저, 류건희 박사는 "오래 전부터 실천 신학 분야에서 샤머니즘화 된 개신교 신앙은 타파되어야 할 대상으로 손꼽히는

요소 중 하나였다"며 "그러나 한국 개신교회 내에서 타파의 대상이 되어버린 샤머니즘을 예나 지금이나 부정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오히려 부적절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한국의 샤머니즘은 19세기 말의 한국인이 수월하게 개신교 복음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사실은 선교 초기 다수의 내한 선교사의 기록과 증언에서 발견된다"고 했다.

류 박사는 "샤머니즘(shamanism)은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원주민과 유라시아 북부와 같은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발견되는 신앙 체계"라며 "무마니아의 종교학자인 엘리아데(Mircea Eliade)의 정의에 따르면 샤머니즘은 '고대의 점신술(Archaic Techniques of Ecstasy)로써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에서 두드러진 종교현상"이라고 했다.

이어 "대부분의 선교사는 한국의 샤머니즘을 한국인이 지닌 고유한 토착적 신앙으로 보았다"며 "또한 샤머니즘은 막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어 다양한 종교 형태를 혼합시키며, 다소 종교적인 한국인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들은 이러한 점을 부정적으로 이해했다. 이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나, 선교적 접근 방식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고 했다.

더불어 "언더우드, 게이, 마펫 등의 장로회 선교사들은 기독교 신앙을 통해 한국인의 샤머니즘을 신앙을 몰리치거나 타파하고자 했던 반면, 존스, 할버트 등의 감리회 선교사들은 한국인에게 익숙한 샤머니즘 신앙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고 했다.

그는 "한국인이 지니던 샤머니즘의 신앙과 그와 관련한 종교적 개념이 한국인

의 개신교 복음 수용을 수월하게 도왔다"며 "그 영향을 네 가지로 구분하면 한국인의 최고신 개념이었던 '하느님'과 화해의 성격을 지녔던 '무당', 범신론적 존재인 '신령' 그리고 지극정성을 다했던 '굿'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개념은 한국인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이었고, 그 성격은 개신교의 것과 상당 부분 유사한 것이었다"며 "초기 선교사의 기록과 증언을 통해, 이러한 샤머니즘의 개념이 한국인의 개신교 수용을 수월하게 도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측하건대, 오늘날 대다수의 개신교인과 당시 초기 선교사의 샤머니즘 인식은 아마도 유사할 것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샤머니즘은 원시적이며 부정적인 요소로 남아있을 것"이라며 "부정하여 기던 샤머니즘 신앙이 당시 개신교를 수용하던 한국인에게 있어 도움을 주었으며, 다른 차원에서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한국 크리스마스의 특징, 교회와 사회의 이원적 문화의 공존

두 번째로 발제한 방원일 박사는 "한국 크리스마스의 특징은 교회와 사회의 이원적 문화의 공존"이라며 "교회의 크리스마스 실천은 선교 초기에 시작해 일제강점기에 확립되었고, 해방 이후에는 이전과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새로운 환경 속에서 발전하였다. 통금에서 해방된 환경의 영향으로 교회에서도 연극, 성가대, 교회 철야의 실천이 확대되었다"고 했다.

이어 "한국에는 교회 밖의 크리스마스 실천이 존재한다. 기독교인보다 더 많은 수의 비기독교인에게 크리스마스는 중요한 명절이 되었다"며 "미 군정기를 계기로 주어진 공휴일과 통금 예외라는 조건에 힘입어, 억눌린 욕망이 분출되는 해방구로서의 속성은 20세기 한국 크리스마스를 강력하게 지배하게 된다. 선물 문화의 강화로 백화점과 제과점에서 중요한 날이 되었다"고 했다.

특히 "댄스홀로 대표되는 유흥가는 이 특별한 날의 주역이 되었다. 유흥으로서의 특징은 1960, 70년대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며 "그러나 그러한 발전의 바탕이 1950년대 후반에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50년대는 일제강점기와 60, 70년대를 연결하는 기간으로, 현대 크리스마스의 모습이 완성된 시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1950년대라는 시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이 시기 크리스마스는 상당히 활성화 되었다. 사회적 에너지가 분출되는 시기였다"며 "한국전쟁 이후 가장 많은 아이가 출산한 베이비 붐 세대를 일컫는 '58년 개띠'라는 표현이 있다. 1950년대 말은 전쟁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에너지가 응축되고 욕망이 분출하는 시대였다. 60, 70년대 고도성장의 발판이 마련된 시기였다. 크리스마스는 새로운 에너지가 펼쳐진 중요한 무대였다"고 했다.

장요한 기자

## 통합 측 인성교육 프로그램 '올라인', 최우수 사례 선정

예장 통합총회 교육자원부(부장 김권수)의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인 '올라인(All-Line)'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의 청소년 인성교육 사업평가에서

2022-2023년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총회 측이 2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2013년부터 종교계와 함께 청소년들이 인성을 함양할 수 있

도록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7대 종단은 2022-2023년 20여 개 사업을 추진했고 '올라인'도 그 중 하나였다.

총회 교육자원부는 2013년부터 문체부

의 지원을 받아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문체부는 종교의 사회통합가능 강화와 청소년의 사회적 문제 해소를 위해 종교계 청소년 인성교육 정책을 수립했다.

'올라인'은 온라인(On-Line)과 오프라인(Off-Line)의 합성어로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대면과 비대면을 포괄하는 용어로 고유명사화 됐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교육 환경을 반영하고, 각기 다른 성향과 재능, 인성을 가진 청소년이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올라인'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교육자원부는 "바르고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올라잇'(All-Right), 타인을 배려하고 포용하는 '올마인드'(All-Mind)의 교육 방향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의 육체적, 정서적 성장과 정에서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며 "청소년이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타인을 향한 배려, 나눔, 소통의 자세로 더불어 살

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젝트는 본 교단이 다음세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건강한 인성함양과 가치관 형성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가 오는 10일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신앙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하는 '종교계 청소년 인성교육 실무자 워크숍'에서 이번 사업 평가의 우수 사례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



**레티놀 4X로, 단 7일만에  
속부터 짝 차오르는 밀도탄력**

아이오페 레티놀 슈퍼 바운스 세럼

7일 만에 속부터 차올라  
4주 후 어려운 피부 나이

- 10.6% 볼 탄력 개선
- 12.5% 모공부위 피부탄력
- 12.2% 피부 탄력증 개선

RETINOL SUPER BOUNCE SERUM  
RETINOL 4X  
IOPE

오늘부터 7일 후, 달라지는 피부 변화를 경험하세요!

구매 문의 | 080-023-5454, 카카오톡 '아이오페 채널' 검색 | 전국 약국/대형 화장품점 및 올리브영 매장

※ 사용 7일 후, 1년 사용 경과 시(총 12회) 2023.01.25~2023.03.31 (사은품) 5만 원 상당 [사은품] 19 (신규) 올리브영 연구센터

## 서울신대, 2024 기성 총회 실행위원회 초청행사

서울신학대학교(황덕형 총장)가 주최한 '2024년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실행위원회 초청행사'이(이하 초청행사)가 최근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총회임원, 실행위원회, 법인이사회 및 대학 관계자 등 약 80여 명이 참석했다.

1부 경건회는 교목처장 김성원 교수의 인도로 부총회장 김정호 장로의 기도, 서기 한용규 목사의 성경봉독 후, 총회장 임석웅 목사가 설교했다.

이후 부총회장 류승동 목사가 서울신학대학교를 위한 기도회를 진행했으며, 마지막으로 총회장 임석웅 목사의 축도로 진행되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임석웅 목사는 "서울신학대학교의 미래가 우리 교단의 미래며, 교단의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서울신학대학교를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



2024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 실행위원회 초청행사 기념 사진. ©서울신대

고 전했다. 2부 학교 보고는 교무처장 이용호 교수의 사회로 이사장 백운주 목사의 환영사, 황덕형 총장의 감사 인사, 윤철원 부총장의 학교 보고로 진행했다.

환영사를 전한 백운주 목사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총회와 각 지방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기도해주셔서 서울신학

대학교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학교가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감사 인사를 전한 황덕형 총장은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주신 총회 실행 위원회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서울신학대학교를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장요한 기자

## 한국교부학회, 2024 춘계학술대회 개최

남성현·배정훈·김근호 박사 발제

한국교부학회(회장 황훈식 교수)가 얼마 전 대한예수교장로회 한영총회 사무실에서 2024년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1부 개회예배에서 회장 황훈식 박사(명태대 교수)는 '아드 폰테스(Ad fontes)'(창 26:18, 사12:3)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황 박사는 우물이 삶과 기쁨의 원천이 되듯이 교부신학 연구가 한국교회에 생명력과 기쁨의 원천이 될 것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2부 논문발표에서 남성현 박사(서울한영대 교수)가 '국가'는 강도 때문이 필요하다'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에 나타난 세속국가론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남 박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세속국가론을 살폈는데, 아우구스티누스의 세속국가론은 로마를 강도때로 보는 관점(신국론) 1-3권에서 출발하여 로마의



2024 한국교부학회 춘계학술대회 기념 사진. ©한국교부학회

덕성의 모범적 측면을 긍정하는 단계(신국론 4-5권)를 거쳐, 세속국가를 필요악으로 규정하는 최종 단계(신국론 19권)로 발전한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배정훈 박사(고신대 교수)가 '떠남과 분라: 사막 수도주의의 근본정신'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배 박사는 성공회 신학자 로만 윌리엄스가 사막수도생활을 도피가 아닌 함께 더불어 사는 삶으로 설명한 것을 바탕으로 사막 교부들의 떠남과 분라의 영성을 재조명했다.

가 '썩지 않는 몸(carō incorruptibilis): 리옹의 이레나이우스의 저작에서 나타나는 불멸(ἄθροσις)의 의미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박사는 이레나이우스의 저작을 통해 '불멸' 개념이 하나님의 모상과 닮음의 회복, 몸의 부활, 그리고 신화와 관련되어 사용된 것을 밝혔다. 한편, 한국교부학회는 종교개혁의 원천이자 보편교회의 기동인 교부들을 연구하는 학술단체로서, 정기학술대회와 논문 발표를 통해 교부들의 역사와 의미를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장요한 기자



# 이영한 고신 사무총장, 한국교회총무회 신임 회장 선출돼

한국교회 주요 교단 현직 총무 및 사무총장들의 연합체인 한국교회총무회가 지난 3일 서울 반포동 예장 고신 총회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신임 회장 이영한 목사(예장 고신 사무총장) 등 신임원들을 선출했다. 정기총회에는 회원교단 72곳 가운데 47개 교단이 참석했다.

신임원들은 △회장 이영한 목사 △부회장 김종명 목사(예장 백석 사무총장), 이용윤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행정기획실장), 김순규 목사(예장 개혁 총무), 김보현 목사(예장 통합 사무총장), 정성엽 목사(예장 합신 총무), 김일업 목사(기침 총무), 박용국 목사(예장 합동 총무), 조세영

목사(예장 개혁개신 총무) △총무 정성엽 목사(예장 합신 총무) △서기 문창국 목사(기침 총무) △회계 장인호 목사(예장 대신 총무) △감사 강동규 목사(예장 개혁개신 총무), 이승진 목사(예장 합동중앙 총무) △고문 엄진용 목사(기침 총무)다.

전임 회장 이강춘 목사(예성 총무)의 사회로 열린 이날 총회는 김순규 목사(예장 개혁개신 총무)의 회원 정명, 사회자의 개회 선언, 전 회의록 낭독, 김명찬 목사(예장 한영 사무총장)의 감사 보고, 김일업 목사(기침 총무)의 회계 보고, 안건 토의, 합



한국교회총무회 신임 회장인 이영한 목사(예장 고신 사무총장) ©한국교회총무회



한국교회총무회 신임원들. ©한국교회총무회

심기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앞서 이영한 목사(예장 고신 사무총장)

의 인도로 드린 예배에선 김종명 목사(예장 백석 사무총장)가 기도했고, 인도자

의 성경봉독 후 이강춘 목사(예성 총무)

가 '위로자(고린도후서 1:3-4)라는 제목을 설교했다. 축도는 엄진용 목사(기침 총무)가 했다. 김진영 기자

## 한기총, 회원권 상실 교단 복귀 특별기간 갖기로

2일 임원회서 결정... 5월 2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기총)가 2일 서울 한국기독교연합회관 한기총 회의실에서 제35-2차 임원회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회의는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로부터의 장 권한을 위임받은 공동회장 김정환 목사가 주재했고, 참석 22명, 위임 33명으로 성원됐다. 회의는 개회선언, 전회의록 채택, 경과 및 사업보고와 안건토의로 이어

졌다. 실사위원회 상정 안건으로 실사위원장 안이영 목사가 "신정인 목사 측이 합법적인 총회를 치른 자료를 근거로 최능력 목사 측에서 제기한 고발은 기각하기로 하고, 신정인 목사 측에 회원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한 보고를 그대로 반기기로 했다. 동성애·동성혼 관련 입법 반대 기도회의 건으로 반기독교 악법과 학생인권조

례 등에 대해서 입법저지 또는 폐지 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야 함을 의장이 설명한 후 대표회장장과 사무총장에게 맡겨 6월경에 기도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원로 자문회의 신설 추진의 건은 지난 4월 기도회에 이미 원로 자문회의 고문으로 소개된 조용목 목사에 대해서 고문으로 인정하되, 정관에 맞게 우선 기구를 만들어서 조직구성을 하기로 했다.

회원권 상실 교단(단체) 복귀 특별기간의 건으로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해 회원권이 상실되면, 회원으로서 가진 모든 권리가 박탈되고 회비의 의무만 쌓이는 유명무실한 회원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5월 2일부터 17일까지 특별기간을 열어 3년이 초과된 미납회비는 면제해주고, 3년치 회비를 완납해 정상회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과 가입비 500만 원에 1년치 회비를 완납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을 대표회장, 사무총장, 비서실장이 결정해 추진하도록 했다.

변경된 정관 수정의 건(문체부 요청 사

향)으로 정관 제19조 1항 '가. 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단, 각 위원회로부터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조사가 진행 중인 회원은 대표회장에 출마할 수 없다.에서 각 위원회에는 조사와 관계없는 위원회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를 한정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각 위원회를 질서위원회, 윤리위원회, 이단사범대책위원회로 변경하기로 하고, 정관 수정을 위해 2024년 6월 4일에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추가 정기간 이첩의 건에선 의장이 상정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질서위원회에서 조사하여 보고하고, 2022년 12월 6일 '2022년 5차 임원회에서 징계 결

의를 한 것에 반발하여 사회 범정 혹은 경찰 고발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기총과 질서위원회가 잘 대응하여 법원에서 승소하고 경찰은 무혐의 불기소로 이겼습니다. 만일 징계 결의에 이의가 있다면 내부 절차를 통한 이의제기를 하면 되는데, 사회 범정에 고소, 고발하여 위원회 위원들을 압박하고, 한기총을 흔드는 행위는 결국 한기총의 권위를 무시하고, 공격하려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에 위원들과 한기총을 보호하고, 위원들이 고소, 고발의 위협에서부터 벗어나 안정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징계에 대해 내부절차를 통한 이의제기 없이 사회법정 혹은 경찰, 검찰에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행위에 대하여 기존 징계에 추가 징계를 하고자 합니다."

이후 기존 징계에 10배의 징계를 추가 하자는 안에 7명 찬성, 기존 징계에 3배의 징계를 추가하자는 안에 14명 찬성으로 기존 징계에 3배의 징계를 추가하는 안이 통과됐다.

한편, 회의에 앞서 드려진 예배에선 공동회장 윤광모 목사의 사회로, 공동회장 김상진 목사가 기도했고, 공동회장 조윤희 목사의 성경봉독 후 증경대표회장 엄기호 목사가 '주여, 금년만 참으소서'의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회의는 명예회장 김용도 목사의 기도로 폐회했다.

김진영 기자



한기총 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한기총

## 데이비드 차 선교사 의혹... 차 선교사 "연출당해"

캠(KAM)선교회 데이비드 차 선교사(사진)가 부인이 아닌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차 선교사는 입장문을 내고 해명했다.

최근 온라인에는 차 선교사가 한 여성과 함께 찍힌 사진이 공개됐다. 제기된 의혹에 따르면 이 여성은 차 선교사의 부인이 아니어서 부적절한 관계가 의심된다.

또 차 선교사는 하와이에 대해태를 구입했는데, 지난해 11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그가 위기를 느껴 하와이 대해태로 도피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생겼다.

그러나 차 선교사는 여성과 찍힌 사진에 대해 "연출당했다"라고 주장했다.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탈북민 A씨에게 자신이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것이다.

차 선교사는 입장문에서 "모든 사진을 A씨가 직접 촬영하며 원하는 그림이 나

오지 않자 '팀워크가 왜 이러냐?'며 격하게 화를 내었고 직접 포즈 자세를 취해주어서 당황스러운 와중 눈치를 보며 시키는 대로 했다"며 "그러나 실제 입맞춤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 저의 실수로 한 자매와 좋은 감정을 가진 적이 있다"면서 "저는 저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모든 잘못된 관계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하고 있으며, 원치 않은 상황을 겪고 있는 자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고도 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가 주식투자를 한 사실은 인정했다.

또한 그는 "캠선교회는 초기 설립부터 상당 기간 동안 대부분의 운영자금 이 저의 강의 사례비와 도서 판매금을 포함한 제 개인적인 돈으로 충당됐다"라며 "그 후 험 없이 달리다 건강 악화로 인해 2022년 캠선교회에 사표를 제출했다"고 했다.

이어 "총 14년 동안 개인적인 사비를 충당해 사용되었던 재정 등을 돌려받게 되

었고, 이 돈으로 저는 주식투자를 했다"며 "그러나 이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어, 모든 주식을 팔아 선교회로부터 받은 동일한 금액을 다시 선교회로 반납함으로써 선교회의 재정적 손실은 없었다"고 했다.

그는 "주식투자로 선교회에 수십 억의 손해를 끼쳤다는 말은 허위사실"이라며 "그리고 해당 내용에 대하여서는 수사결과 무혐의로 사건 종결되었다"고 했다.

하와이 대해태에 대해서는 그것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A씨 제안에 따라 캠선교회 명의로 지난해 10월 매입한 국제사역센터라는 입장이다. 그는 이 센터 매입이 "캠선교회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이루어진 일이었다"고 밝혔다.

차 선교사는 입장문에서 "이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과 한국교회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한결같이 지지해 주셨던 목회자님들과 성도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앞으로 사역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과 한국교회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 살롬나비, 어려운 이웃들 위해 '사랑의 쌀' 나누고 배식 봉사

살롬나비(상임대표 김영환 박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최근 서울 영등포역 광야교회를 방문해 사랑의 쌀을 전달하고, 영등포역 주변 어르신들과 함께 천막막사에서 예배를 드린 후 이들에게 점심을 나누어 주는 배식 봉사에 참여했다.

살롬나비는 이날 200여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하고 이들에게 제공된 점심 식사의 배식봉사에 참여했으며, 길거리의 노숙인들을 위로하는 시간도 가졌다.

예배는 살롬나비 자문위원장 최철희 선교사(시니어선교한국 교단)의 사회로

영락교회 이은희 집사(살롬나비 구제기도 이사, 당기엔트리 대표)가 기도했으며 살롬나비 총무인 최선 목사(세계로부천교회)가 '자유(요 8:3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후 살롬나비 사무총장인 김윤태 목사(백석대 기독교문헌대학원장)의 선장으로 살롬나비 행동강령을 제정한 후 최성대 목사(살롬나비 중보기도이사, 라이프영성원 교수)의 축도로 마쳤다.

살롬나비는 "학문을 연구하고 묵회하며,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자들이 중



살롬나비 회원들이 배식봉사를 하고 있다. ©살롬나비

심한 기독교 시민단체나 학문적 이론을 실천하고 사회의 변화를 일깨우는 일에도 참여하며 섬김과 나눔의 좋은 본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KB 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 파트너 | 세상을 바꾸는 금융

결제에서 라이프까지  
**됩니다**  
다 되는 페이 KB Pay

준법감사인심의결 제240402-01381-ADP (2024.4.2~2025.4.1)

KB 국민카드



# '3040 세대'가 몰리는 교회, 한글학교로 세계적인 한국인으로

[인터뷰] 휴스턴 순복음 한글학교 박경아 교감

선교적 교육기관으로서,  
세계적인 한국인으로 성장하는 발판 마련  
살아있는 예배와 예배자로 양성  
열린 교육기관으로 지역을 아우르는 비전

기자: 휴스턴 순복음 한글학교는 휴스턴에서 교회가 운영하는 한글학교의 시작점이라고 들었습니다.

박경아 교감: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당시 휴스턴 한인교회가 이미 자리잡고 있었고 몇몇 교회가 주일 봉사 차원에서 한글학교를 시작하는 미미한 상태에서 교회가 정식으로 한글학교를 세워보자고 한 것은 휴스턴 순복음교회가 아닌 제가 생각합니다. 제가 휴스턴 순복음교회로 출석하지 얼마되지 않아 담임 목사님께서 한글학교의 필요성과 비전에 대한 이야기한 것에 저도 모르게 (웃음) 해 보겠다고 답변했었죠.

당시에는 거의 주일 오후에만 시행되었던 교회 프로그램 중의 하나였지만 저희가 토요일에 정식 교육기관으로 시도를 했던 것이었죠. 제가 초창기 6년 정도 했을 때 이미 100여명이 등록할 정도로 한글에 대한 배움의 열정은 대단했었습니다. 그때 담임목사님과 함께 교회 한글학교의 기계적인 사역의 범주가 아니라 우리 교회만의 뚜렷한 비전을 다시 설정했었습니다. 그것은 다음세대가 한글과 한국의 문화를 배워 나가는 과정에서 선교와 복음의 은혜가 동시에 역사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자: 한글학교가 이민 사회에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박경아 교감: 저희 한글학교는 현재 정부로부터 교재와 일단의 교육에 관한 동향과 자료 등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민 사회에 민족의 문화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히 한글학교를 통해서 다음세대가 부모 세대를 이해하고 좋은 전통적 문화를 계승받을 수 있는 순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 한글학교는 아이들한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 즉,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지금 적잖은 교회가 한글학교 또는 그 비슷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들을 전개해야 할까요?

박경아 교감: 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에도 인근 교회서 주일 오후에 한글학교가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지만 어떤 차별성을 두어야 할까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첫째는 한글학교에서 한글과 한국 문화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물론 그것은 기본이고) 성경 말씀을 통한 개인을 복음화하는 선교적 토대를 형성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는 한국어



박경아 교감은 한글학교를 통해 뿌리교육과 문화적인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기관이 될 수 있다고 전한다. ©이창한 기자

를 배워서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실용적인 질문에서 고민을 해 본다면 세계적인 마인드를 갖춘 한국인이 되는 것입니다.

뭔가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세계의 역사와 흐름을 배울 때 한국과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어렸을 때부터 함양되어 있다면 어느 분야에서든지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명확하고 뚜렷한 비전을 갖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글을 배우기 위해서만 오는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교회에 안 다니는 아이들도 한글학교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기자: 한글학교를 시행하는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담감은 좋은 교사들을 임용하는 것인데요.

박경아 교감: 저희 교회도 (교사임용)이



박경아 교감은 수업 전에 기계적으로 참석하는 행사적인 예배가 아니라 한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선교적인 예배로의 비전을 실행하고 있다. ©단체 측 제공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담임목사님이 한국이나 미국에서 교사의 경험을 하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유는 교사들의 역량이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선생님들이 자신의 달란트를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 학교는 더욱 개선되고 수업의 콘텐츠는 업그레이드 되기 마련입니다.

저희는 이 일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는 선생님들이 수업을 끝나고도 바로 집에 가지 않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들을 보고 하고 또 나누어 될 부분들은 충분히 나누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모두 끝나야 집에 가는 박사(웃음) 일들을 잘 해오고 있습니다. 다들 잘 따라 주셔서 감사한 일이에요.

기자: 수업 시작 전에 예배가 시작되는데 상당히 인상적이고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라고 많은 부모님들의 호응도가 높은데요.

박경아 교감: 복음과 함께 하는 한글학교의 비전을 실행하는 측면에서 예배

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업 전에 기계적으로 참석하는 딱딱하고 멍 때리는 (웃음) 예배가 아니라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살아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교사들에게도 예배가 바로 세워지도록 기도요청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바른 예배가 되게 해 달라고 매달렸죠.

교회가 한글학교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자: 매주 점심과 간식을 준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텐데요. 특별한 지원을 받고 있나요?

박경아 교감: 학교측에서 식사를 준비하시고 섬기시는 분에게 최선을 다해 사례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학부모님들과 일부 교사들이 자원봉사로 함께 열심히 섬겨 주셔서 토요일은 언제나 주방이 북적북적 하답니다 (웃음).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마운 일입니다. 간식 부분은 부모님들께서 자발적으로 준비해서 챙겨 오시기도 하지만 저희가 따로 준비해서 지원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많으니 신경이 많이 쓰여집니다.

기자: 지난 가을에 (2023년도) 개최했던 운동회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박경아 교감: 저희가 고민하고 적극 추진했던 일이기도 한데요. 한글학교 운동회는 미국 학교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추억의 운동회 버전으로 해 본 것인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다들 만족해 하셨습니다. 부모님들은 어렸을 때 그들이 경험했던 것들이 추억이 되었지만 이제 자녀들과 함께 해 볼 수 있는 경험은 아주 인상적이었을까라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미국에서 하는 야외 운동회(Field Day) 보다 우리 한글학교의 운동회가 더 재밌다고들 피드백 하기도 해서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암송대회'와 '나의 꿈 말하기 대회' 등을 통해서 대내외적인 경쟁력을 위해 객관적인 실력을 향상 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자: 한 동안 다른 봉사활동을 하다가 지난해 한글학교로 다시 복귀했는데요. 교감으로 부임하시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박경아 교감: 무엇보다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수업하기에 맞춤형 환경으로 전환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과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는 수업이 필수인 세대입니다. 각 교실에 스크린과 컴퓨터를 사용하여 좀 더 역동적이고 다음세대에 맞는 교실환경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 교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해서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성 있는 교육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아울러, 시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학급편성을 조정 및 조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현재는 유치반과 초급반 중심으로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는데, 향후 킨더반 (Kinder)에서 중급반 신설을 계획하고 시행하려고 합니다. 지속 가능한 교육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담임목사님과 교회가 회생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함께 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희 한글학교가 매 학기마다 변화되고 개선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창한 기자

## 기독교교육의 중심축을 교회에서 가정으로

월드미션대학교 부설 PCCE 사역

다음 세대 신앙전수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시대, 성경적 신앙교육과 신앙전수에 대해서 고찰해 보아야 한다.

부모와 자녀 간에 예배가 분리되었다는 것은 세대 간에 신앙적 화해거리가 분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공통된 신앙적인 주제가 가정의 삶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결국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야 할 신앙의 전통까지 단절되었다.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실패는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의 실패가 원인이다. 특히



왼쪽부터 최윤정 교수(디렉터), 유창식 목사(교육/관리), 김지용 전도사(행정/연구). ©Pacific Center for Culture and Education

세대 간 언어의 장벽과 문화의 장벽이 있는 이민 사회, 이민 교회에서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대두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PCCE (Pacific Center for Culture and Education)에서는 릴리재단 (Lilly Endowment)의 지원을 받아 이민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Nurturing Children through Worship and Prayer Project'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모들을 대상으로 'Christian Parenting and Caregiving Project'를 실행하고 있다. 월드미션대학교의 최윤정 교수를 디렉터로 유창식 목사, 김지용 전도사가 학술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기독교교육 경험과 IT 기술을 바탕으로 이 프로젝트를 실행해 나가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

'Nurturing Children through Worship and Prayer Project'의 핵심 사역은 '가정 예배와 세대간 통합 예배'인데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콘텐츠들을 연구개발하여 PCCE 플랫폼(pcce.wmu.edu)에 공유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가정예배를 위해 돕기 위해 반응형 예배 슬라이드, 인도자를 위한 가정예배 가이드북, 가정 신앙교육 콘텐츠, OHANA(기독교 자녀교육 매거진), 메타버스 교육 활동 프로그램 등을 매주 제공하고 있으며 세대 간 통합 예배에 대한 자료들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두란노와 협력하여 두란노가 제작한 가정예배 순서를 한글과 영어로 제공한다.

또한 'Christian Parenting and

Caregiving Project'를 위해 2024년에는 '부모코칭', '사이좋은 부모 생활', '장애인 부모 인파워링' 등의 강좌를 개설하였다. 현장에서의 성공적인 전문 사역 경험을 가진 월드미션대학교의 교수진들이 실시간과 온라인 동영상 강의 등을 통해 유익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역에 현재 LA 동부사랑의교회(우영하 목사), 토렌스 조은교회(강우준 목사)가 협력하고 있으며 미국내 많은 한인 이민교회들이 앞으로 이 프로젝트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동부사랑의교회와 토렌스 조은교회에서만 150여 가정의 가정예배에 참여 중이며 80여명의 부모들이 부모코칭 클래스를 수강했거나 수강중이다. 각 과정을 모두 완료하면 PCCE와 WMU(월드미

션대학교)에서 수여하는 수료증을 받게 된다. 이 사역에 교회가 협력할 수 있으며 개인과 가정이 참여할 수도 있다. 프로젝트 관련 문서는 pcce@wmu.edu로 하면 된다.

가정은 자녀의 신앙 인격이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교육 공동체이다.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께 교육의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했으며 칼빈은 가정에서의 기독교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라고 명령하셨다. 이제는 기독교교육의 근원으로 돌아갈 때이다. PCCE에서 지피기 시작한 작은 불씨가 각 가정들과 교회들에서 들불처럼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김민선 기자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쓰세요!

홍보대사 남보라

홍보대사 정준호

## 사장님 지원 플랫폼

# 노란우산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 복리효과로 폐업 시 퇴직금 역할
- 지자체 가입장려금 지원
-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 KBIZ 중소기업중앙회**

\*취급은행: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농협·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 중소기업중앙회 준법지원실 심의번호 제24-082(2024.3.11.~2025.2.28)  
 위 광고는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된 사항입니다. (예금저축보험 연차) 노란우산은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지 않으나, 중소기업중앙회 가입자가 감당하고, 중소기업중앙회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로서, 중소기업중앙회법 제120조에 따라 정해 지급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매 결산시 잔여금에 상당한 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합니다. 노란우산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 또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로잔운동, '대위임령 현황 보고서' 발표

2050년 내다보며 교회와 선교에 영향 미칠 10가지 질문 다뤄  
약 150명 선교 전문가가 집필에 참여, 총 500페이지 이상 분량  
영문판 전문 게재, 추후 6개 국어 번역하고 한국어본은 7월 배포  
"세계선교 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통찰력을 제공할 것"



역량 예정이다. 한국어 번역본은 7월에 배포될 것으로 알려졌다.

로잔대회 소식지는 '대위임령 현황 보고서'의 요약된 내용도 소개했다. 첫째는 '디지털 시대의 대위임령'이다.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 온라인 플랫폼이 정체성과 공동체를 형성함에 따라 교회의 복음 전도는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단순한 콘텐츠 제공 이상으로 복잡한 임무를 위한 노력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디지털 경계를 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둘째는 '인간 됨에 관한 질문'이다. 전례 없는 기술 발전의 시대와 급변하는 일상생활의 역동성 속에서 인간 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문화 운동은 희망, 구원, 구속을 위한 새로운 대안적 방식과 효과적인 복음의 타당성을 제시한다고 말한다.

오는 9월 한국에서 열리는 제4차 로잔대회를 4개월여 앞두고, 로잔운동이 2050년을 내다보며 세계선교에 대한 현황과 통찰력을 제공하는 '대위임령 현황 보고서(State of the Great Commission Report, SoGo)'를 발표했다.

로잔운동은 이 보고서에 대해 "대위임령 성취의 가장 중요한 과업과 기회를 분석하기 위해 약 150명의 선교 전략가가 최고 수준의 글로벌 데이터를 기반으로 준비한 획기적인 연구 결과물"이라며 "세계선교의 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보고서 책임자인 매튜 니어만(Matthew Niermann)은 "대위임령 현황은 지상대위임령의 성취를 위한 가장 지대한 도전과 기회를 이해하려고 최상의 글로벌 데이터와 핵심 전략 사상가들을 규합한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총 500페이지가 넘으며, 3부로 구성됐다. 제4차 로잔대회 소식지 15호에 따르면, 제1부 '대위임령 현황'은 광

범위한 전통적 선교학의 척도를 사용해 대위임령 성취를 위해 펼쳐진 다양한 활동을 면밀하게 추적하며, 제2부 '오늘부터 2050년까지'는 다중심적인 기독교의 특성, 인류의 본질, 디지털 시대가 삶에 미치는 영향 등 전 세계적인 변화에 관한 10가지 중요한 질문과 40개의 주요 트렌드를 소개했다. 제3부 '지역적 고려 사항'은 세계 12개 지역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통해 전 세계를 관찰하며 40개 주요 글로벌 트렌드 중 어떤 것이 특정 지역 또는 로컬에 영향을 미치는지, 글로벌 규모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에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뤘다.

보고서 집필에 참여한 150명 중 35%는 북반구, 40%는 남반구, 25%는 동아시아 출신이며, 여성은 40%, 남성은 60%로 구성됐다. 현재 영문판은 로잔운동 공식 홈페이지에 전문 게재돼 있으며, 5월과 7월 중에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한국어 등 6개 언어로 번

셋째는 '새로운 중산층'이다. 2020년경 세계 인구의 대다수가 중산층이 되었고, 2050년에는 그 수가 20억 명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인구 통계적 변화로 인해 세계적인 흐름이 크게 바뀌는 가운데 대위임령의 성취를 위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넷째는 '세계 고령화 인구'이다. 60세 이상의 인구는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세계 인구를 대표하며, 2050년까지 10억에서 21억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고령화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기독교 선교의 주요 관심 대상이 되지 않았으며, 이는 급속히 증가하는 60세 이상의 연령층에 접근하고 그들을 제자화 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한다.

소식지는 "보고서는 로잔 4(Lausanne 4, L4)라고 불리는 다년간의 글로벌 다중심적 과정의 기초를 세우는 기동"이라며 "로잔 4는 열방을 제자 삼고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세계교회의 협력 촉진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로잔 4의 핵심은 2024년 서울-인천 대회로 알려진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제4차 로잔대회이며, 2024년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한국에서 열리는 이 대회에는 온오프라인으로 1만 명 이상의 세계 교회의 대표자가 모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지희 기자

# GCR, 박해받는 인도 목회자 위한 기도 요청

전도 여행 후 폭도들이 어린이 포함 가족들 폭행



인도의 한 신자 ©GCR

인도의 한 목회자가 마을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폭도들로부터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고 글로벌 크리스천 릴리프(Global Christian Relief, GCR)가 최근 전했다. 사일레쉬(가명) 목사는 신앙 때문에 분노와 반대에 직면해 왔으며, 인도의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올 초에는 폭도들에 의한 폭력 피해를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일레쉬 목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는 인도의 중동부의 독실한 힌두교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가족은 다양한 질병에 시달렸는데, 어머니는 뱀에게 여러 차례 물렸고, 그의 형제 중 한 명은 정신건강이 좋지 않았다. 절망에 빠진 가족은 마법사와 신비주의자에게 손을 내밀어 선물과 기부를 하며 도움을 얻으려 했다.

사일레쉬는 "마법사와 신비주의자가 이야기한 필요한 종교적 의무와 의식을 모두 이행했음에도 평화는 없었다"라며 "이 모든 일 속에서도 내 마음은 불안하여 참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 나는 사제들과 마술사들에게 궁극한 점을 묻곤 했고, 어느 신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물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지 못했다. 대신 힌두교 의식을 계속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어떤 신을 숭배해야 하는지도 지시받았다. 사일레쉬는 "내가 우상 앞에 앉을 때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추구하다. 나는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사일레쉬는 십 대 때 설교자를 만났고, 그 설교자는 예수님의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를 읽었다. 사일레쉬는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그는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내가 주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예언했다"고 회상했다.

사일레쉬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교회를 세웠다. 올해 초 그와 그의 가족, 또 다른 기독교인 가족은 먼지 없는 친구들을 방문하는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화난 폭도들을 만났다. 분노한 폭도들은 어린이를 포함해 가족들을 구타하고 발로 차기 시작했다.

사일레쉬는 막대에 맞아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발로 맞았다. 그는 병원에서 급히 이송돼 10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머리 부상이 심각해 그의 가족과 교회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다. 아무도 그가 살아남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지만, 의사가 놀랄 정도로 그는 빨리 회복됐다. 그 후 교회로 돌아와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사일레쉬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와 같다"며 "내가 받은 생명은 주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나는 사역을 위해 더 잘 준비되고, 주님을 위해 구원받을 수천 명의 영혼이 남아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GCR은 "박해도 불구하고 사일레쉬는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입은 상처를 이미 선한 일로 사용하셨다"라며 "공격 이후 사일레쉬가 방문했던 친구들은 그들의 옛 종교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말했다.

사일레쉬도 자신이 박해받는 마을이 두렵지 않다고 했다. 그는 "마을의 긴박한 상황 때문에 아직 그곳으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꼭 그 마을로 다시 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의 예수님의 대명령을 따르는 데서 그의 삶의 목적을 찾았다. 사일레쉬는 "내 생애 마지막 숨이 다할 때까지 이 일을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GCR은 "하나님께서 많은 거짓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도록 사일레쉬를 부르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또 심각한 박해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고수한 그의 용기에 감동을 받았다"라며 "그와 그의 가족, 교회 위에 울타리를 쳐 주시고, 수천 명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날마다 그 수가 늘어나기를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 안보칼럼⑩

### 국가보훈과 국립묘지(5)

1951년 7월부터 휴전회담이 시작되었다. 휴전회담이 지속되고 휴전으로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양측이 모두 확전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과 소련은 추가 병력을 투입하지 않았고, 트루먼 미 대통령은 만주 폭격과 압록강 다리 폭파를 주장하는 맥아더 총사령관을 해임함으로써 확전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주월 한국군 사령관 채명신 장군

이승만 정부는 계속 북침을 주장하면서 지금이 남북통일의 기회라고 호소하였다. 미국이 이 상태에서 휴전을 하고 빠지면, 차후 공산세력의 재침을 막아낸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승만은 미국을 압박하면서 강수로 일방적으로 반공포로를 석방했다. 공산당 치하에 살기 싫은 한국의 아들들에게 자유를 주고, 북한의 재침에 대비할 안전관을 마련하기

위한 이승만의 탁월한 전술이었다. 미국은 대한방위조약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1953년 2월 27일 휴전협정이 서명되었다. 그해 10월 1일 한미방위조약이 정식으로 조인되어 1954년 11월 18일 발효되었다.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 경비대 수준의 9만여 명에 불과한 국군은 전쟁을 치르면서 미국의 도움으로 20개 사단 70만 명 규모로 성장해 있었다. 제2, 제3 묘역에 잠든 분들은 대부분 베트남 전쟁 장병들이다. 한국군의 파병은 4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한국군의 작전 개념은 주민이 거주하는 외곽지역에 전술 기지를 설치하여 베트남(민족해방전선 군사조직)과 주민을 차단, 격리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군사 심리작전이 매우 중요했다. 그에 따라 대부대 작전(1.175호)보다 대부분 소부대 작전(57만여 회)을 단행하였다. 대표적인 전투는 득곡전투, 짜빈동전투, 오작교작전, 안개페션전투 등이다. 한국군은 1964년 9월부터 1973년 3월까지 총 32만 5,517명이 참전하여 1만

6,063명의 사상자(전사자 5,099명, 실종자 4명, 부상자 10,962명)를 냈다. 이들 전사자는 제2, 3, 21, 24, 26, 5묘역에 안장되어 있다.

제2묘역 맨 앞자리에는 주월 한국군 사령관 채명신 장군의 묘가 있다. 묘비명이 "그대를 여기 있기에 조국이 있다"이다. 채명신 장군은 자신이 장군이 된 것은 전쟁터에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병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나의 가장 가까운 전우들이 사병묘역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다. 제15묘역에는 채명신 장군의 동생 채명세 중위가 묻혀있다. 6.25 전쟁에서 소대장으로서 전투를 하다가 1952년 7월 고성에서 전사했다. 형제가 지휘관으로 참전하고 동생은 전사한 것이다.

또한 장군에게는 전선의 비화가 있다. 백골 병단이라는 육군본부 직할 유격부대를 지휘하던 당시 채명신 중령은 정보를 입수하여 김일성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김원팔(북한군 중장) 북한유격 총사령관을 생포하였다. 인간성과 그가 가진 수많은 정보가 아까워서 전향을 적극 권고했지만 끝까지 거부하자, 스스로 죽을 수 있는 명예를 지켜 주었다. 그리고 그가 데리고 다니던 고야가 돌이 있었는데 여자

아이는 전쟁터에서 죽고, 남자아이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보호하다가 자신의 동생으로 입적시키고 정성껏 양육했다. 그 소년이 잘 성장해서 서울의 유명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다.

병사들이 있었기에 지휘관이 있었고,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다. 6.25 전쟁은 수많은 장병의 무덤이 되었다. 장병들은 농민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농민의 자제들이 많았고, 소모품 소위라는 말이 생겨났을 정도로 초급장교들의 희생이 컸다. 그러나 국가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1960년대 말까지도 거리에 나섰던 전상 용사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미망인들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었다. 미망인이라는 말은 아직 따라 죽지 못한 사람이란 뜻으로, 본인이 스스로 낮춰 부르는 말로서 타인이 지칭할 경우 실례가 될 수 있다고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설명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대한민국전몰군경 미망인회라고 호칭한다. 우리에게 자유와 양지를 선물한 현충원에 잠든 호국용사의 유족들에게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있어야겠다<계속> 이범희 목사 (6.25역사기념재단 부대표, 6.25역사위원장)



#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지켜요!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손 씻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기



**구분 사용하기**

날음식과 조리음식 구분  
칼·도마 구분 사용



**익혀먹기**

육류 중심온도 75℃  
(어패류 85℃)  
1분 이상 익히기



**끓여먹기**

물은 끓여서 먹기



**세척·소독하기**

식재료·조리기구는  
깨끗이 세척·소독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냉장식품 5℃ 이하  
냉동식품 -18℃ 이하



# 英가톨릭 주교들 “어린이 성별전환 반대” 지침 발표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로마가톨릭 주교들이 최근 트랜스젠더로 식별된 어린이들의 의학적, 사회적 성별 전환을 반대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주교들은 지난 4월 24일(이하 현지시간) '성별에 대한 사회적 지침'이라는 문서를 통해 "어린이들을 위한 의료개입이 지원되는 안된다"며 "사회적 전환은 어린이의 발달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어린이들을 이를 피해야 한다"고 했다.

주교들은 성별위화감을 겪고 있는 성인과 어린이에 대해 긍휼을 표하면서도,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바라보는 인간 타락의 증상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우리는 신체에 해를 끼치는 재건 또는 약물 기반 의료 개입을 장려하거나 지지할 수 없다. 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남성과 여성 각각의 진리와 소명을 존중하지 않는 생활 방식을 합법화하거나 옹호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오해여 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이나 개인이 그리스도와와의 여정에 동행하려고 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몸과 영혼, 인간성을 재발견하고 소중히 여기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했다.

문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인간은 육체적·영적 존재이며, 성별 재지정을 위한 개입을 추구하지 않음으로써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도록 부름을 받았음을 밝히고 있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Unsplash

해당 지침서는 성소수자들이 존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을 신으로 만들고자 하는 낮은 유혹에 대한 양보에 해당하는 '개인적 자기 결정'의 사례로서 '젠더이론'을 비판했다.

또 그러한 세계관은 "인간의 생명은 육체적·정신적 모든 차원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즉 "이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한 일에 봉사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거부한다고 덧붙였다.

양교리성은 지난 4월 22일 인간 존엄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입장을 밝힌 '무한한 존엄성(Dignitas Infinita)'이라는 제목의 목회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지침서는 성소수자들이 존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을 신으로 만들고자 하는 낮은 유혹에 대한 양보에 해당하는 '개인적 자기 결정'의 사례로서 '젠더이론'을 비판했다.

또 그러한 세계관은 "인간의 생명은 육체적·정신적 모든 차원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즉 "이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한 일에 봉사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거부한다고 덧붙였다.

웨스트민스터 대주교인 빈센트 니콜스 추기경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0쪽 분량의 목회 지침은 2년에 걸쳐 준비된 것으로, 바티칸 지침과 너무 흡사해 그 책의 공개는 계획되지 않았다"면서도 "두 문서는 절대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영국 당국도 미성년자를 위한 트랜스젠더 개입의 유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왔다.

영국 국민보건원(NHS)은 최근 발표한 카스 리포트(Cass Report)에서 '남성화/여성화 호르몬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미성년자에게 이성호르몬을 처방할 때 '극도로 주의할 것'을 권고했다. 이미경 기자

## 美목상성경 ‘그녀는 진리를 읽는다’, 1백만부 이상 판매돼

미국에서 출판된 목상성경이 1백만부 이상 판매되고 기독교출판협회로부터 플래티넘 상을 받았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라이프웨이(Lifeway), B&H 퍼블리싱(B&H Publishing), 홀먼 바이블 퍼블리셔스(Holman Bible Publishers)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출간된 '그녀는 진리를 읽는다'(She Reads Truth)라는 제목의 목상성경의 판매이정표를 공유했다.

이 목상성경은 정기적인 성경 읽기를 중심으로 하는 'She Reads Truth' 소셜 미디어 커뮤니티 창립자인 '아만다' 바이블 윌리엄스(Amanda Bible Williams)와 레이첼 마이어스(Raechel Myers)이 작업에서 비롯됐다.

라이프웨이 성경 및 레퍼런스 담당자인 앤디 맥킨은 "레이첼, 아만다 및 '그녀는 진리를 읽는다'(She Reads Truth) 팀 전체와의 파트너십에 대해 매우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러 "백만 명의 여성들 손에 성경을 전하기 위해 사역 파트너들과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우리는 '그녀는 진리를 읽는다' 팀과 함께 성경을 관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맥킨은 또한 목상 성경 외판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면서 "우리는 메시지의 아름다움을 반영하는 매개체를 원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아름다움에 관해 많은 말이 나와 있다. 복음에는 아름다운 메시지가 있다. 창조부터 회복까지 구원의 이야기 속에 아름다운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진리를 읽는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2012년 트위터에서 시작했으며 정기적인 성경 읽기를 장려하는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하는 소규모 여성 그룹이 만들어졌다.

2017년까지 커뮤니티는 여러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걸쳐 80만명 이상의 팔로어를 보유하고 있으며 윌리엄스는 당시 CP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성장에 대해 "일부 정통한 마케팅 또는 비즈니스 전략보다는 심플함과 디자인과 더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윌리엄스는 "우리의 사명과 목표가 단순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커뮤니티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성경이 항상 우리가 모이는 주요 이유가 될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정직한 대답은 디자인이다. 우리 콘텐츠 및 크리에이티브 팀은 커뮤니티를 위해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하게 디자인된 이미지, 앱 및 책을 만든다. 재능과 훌륭한 작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헌신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녀는 진리를 읽는다' 리더들이 만든 목상 성경에는 읽기 계획, 여러 개의 세부지도, 독자들이 전반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충 읽기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윌리엄스는 2017년 CP와의 인터뷰에서 "목상성경은 독자들이 원하는 읽기와 이해를 위한 도구를 제공하지 않았고, 연구용 성경은 성경을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 어렵게 느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진리를 읽는다' 성경은 '그녀를'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되었다. 스마트하고 매력적이며 이미 아름다운 복음에 합당한 미학적 아름다움을 더해준다고 믿는다"라고 했다. 이미경 기자

## 브라질 홍수로 7일간 75명 사망 103명 실종... 8만8천 명 대피

브라질 남부 하우그란지두술 주에 내린 역대급 폭우로 지난 7일간 최소 75명이 목숨을 잃었고 103명이 실종되었다고 브라질 당국이 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부상자도 최소 155명이 발생했다. 폭우 피해로 집을 떠나야 했던 사람이 총 8만8000명이며 그 가운데 약 1만6000명은 각급 학교와 체육관 등 임시 대피 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홍수가 휩쓸고 간 지역은 주택과 건물들이 거의 파괴되었고 산사태, 도로 유실, 교량 붕괴가 주 전체에 걸쳐서 일어났다. 전력망과 통신망도 거의 단절되었다고 운영자들이 전했다.

현재 80만명 이상이 물고급이 끊긴 상태다. 이는 주 민방위대가 수도회사 코르산의 보고를 인용해서 발표했다.

구조대가 노인 한 명을 폐허에서 끌어냈지만 중태여서 헬기로 멀리 떨어진 벤토 곤살베스 시내 병원으로 후송했다고 군 소방구조대가 밝혔다. 근처 댐의 물이 넘쳐 흙탕물이 폭포처럼 인근 지역을 덮쳤다.

4일 카노아스 마을 주민들은 아까까지 차오른 진흙탕물 속에서 인간 피 잇기를 하며 보트에 탄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밀어내는 모습이 UOL통신의 동영상 통해 보도되었다.

이 날 과이바 강의 수위는 5일 아침 8시 기준 5.33m에 달해 역사상 최고 수위를 기록했던 1941년 홍수의 수위 4.76m를 초과했다.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톨라 다 시우바 대통령은 5일 두 번 째로 국방장관, 재무장관, 환경부 장관 등과 함께 수해 현장을 방문했다. 이들은 헬기로 수해 현장 곳곳을 시찰했다.

톨라 대통령은 나중에 기자들에게 "우리는 이제 재해의 뒤를 쫓아가는 일"은 그만뒀다. 이런 참사가 일어나기 이전에 미리 손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바티칸의 프란치스코 교황도 이날 일요일 미사에서 브라질의 수재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황은 "주께서 땅자들을 맞이하시고 유족들과 집을 떠난 난민들에게 축복과 위로를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질의 이 지역 폭우는 엘니뇨 현상의 영향으로 1년 새 4번 째 일어난 기후재앙으로 손꼽힌다. 지난 해 7월, 9월, 11월에도 이런 홍수와 산사태로 75명의 사망자를 냈다.

브라질의 엘니뇨 현상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북부에는 심한 가뭄을, 남쪽에는 역대급 폭우를 가져왔다. 올해 엘니뇨는 유난히 극심해서 아마존 지역에도 역대급 한발로 피해가 컸다. 기상학자들은 이런 극한 기후가 인간들이 초래한 기후변화로 인해 점점 더 자주 찾아오고 있다고 수십개의 환경단체 연합체인 기후관측소(Climate Observatory)의 수엘리 아라우조 홍보담당자가 기자들에게 말했다. 차미레 기자

## 주한미군 병사, 러시아 여행 떠났다가 구금... 절도 혐의

주한미군 병사가 본국으로 귀환하지 않고 러시아를 여행하다 범죄혐의로 체포돼 구금 중이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를 여행금지 국가로 정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AP통신과 NBC방송에 따르면 신시아 스미스 군 대변인은 미군 병사 한 명이 지난 2일 러시아에서 범죄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복무하던 이 병사는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으나, 귀환 대신 러시아 여행을 나섰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여성 절도 혐의로 체포됐다고 한다.

신시아 대변인은 "러시아 연방은 비엔나 협약에 따라 미 국무부에 형사 구금 사실을 통보했다"며 "군은 그의 가족들에게 이를 알렸고, 국무부는 러시아에서 적절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현지 점에서 추가적인 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고 했다.

존 케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지점에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2022년 1월부터 러시아를 여행경보 최고 단계인 4단계(여행금지) 국

가로 지정해 유지하고 있다. 국무부 홈페이지에는 "부당한 구금의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7월에는 주한미군 북부 중 장계를 받고 본국으로 송환되던 트레비스 킹 이병이 무단으로 월복해 구금된 바 있다. 킹 이병은 약 두 달 만에 석방돼 중국을 거쳐 미국으로 돌아갔다.

이윤희 기자



인천환경공단  
ENVIRONMENTAL CORPORATION OF INCHON

# 환경도 도시활 민도 짝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안전 지키GO!**  
전국 첫 도시침수 예방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자원 다시쓰GO!**  
공기업 선도 공단  
폐기를 자원순환 100%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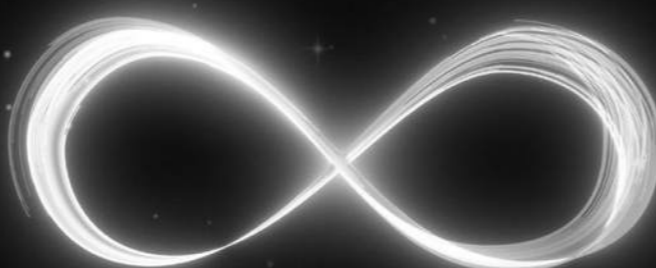


**기후변화 맞서GO!**  
2030 온실가스 83% 감축,  
기후변화 선제 대응



**서비스 올리GO!**  
환경교육 인프라 및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조성





# OPEN Hana Infinity Seoul

국내를 넘어 글로벌 No.1으로 도약하는 뉴하나 딜링룸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본 홍보물은 2024년 5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광고-02488호(2024.04.01) / CC브랜드 240401-0017



# 윤, 민정수석실 신설 “민심 청취 기능 강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  
민정수석에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국정 운영에 있어 국민의 목소리를 보다 잘 듣기 위해 민정수석비서관실을 새로 만들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와대에서 김주현 민정수석 임명을 직접 발표하며 “이번에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정수석실 신설 배경에 대해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반복하고 다시 민정수석실을 둔 이유는 취임 이후 언론과 주변의 조언, 야당과의 회담 등에서 민심 청취 기능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도 초기에는 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정수석에 김주현(오른쪽)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 발표하고 있다. ©뉴스시스

정수석실을 두지 않다가 2년 만에 복원한 바 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할 때도 야당이 대통령 참모진

한 것이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 아니다”라며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대통령이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못박았다.

검사 출신인 김주현 수석 임명 배경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실이 정보를 다루는 기능을 하므로 범죄주의 원칙 수호를 위해 법률가가 지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은 취임사에서 “앞으로 국정 현장의 민심을 가감 없이 청취해 국정 운영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민정수석실 산하에는 기존 공직기강비서관실, 법률비서관실과 함께 민정비서관실이 새로 신설될 예정이다. 민정비서관실은 주로 국민 민원과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설 계획이다. 박용국 기자

#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수사, 증거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야권 “특검 방어용 아니냐” 지적에 “수사 경과 지켜봐 달라”



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은 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서울중앙지검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근거해 수사할 테니 앞으로 수사 경과와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야권에서 제기한 ‘특검 방어용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추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박용국 기자

앞서 이 총장은 지난 2일 김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고발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리”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윤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 등을 담당하는 형사1부에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수사 대상은 유튜브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김 여사의 명품 파우치 수수 의혹을 포함한 각종 의혹들이다.

반면 민주당은 “빈 수레 검찰수사는 특검법에 대한 국민 요구만 더 키울 것”이라며 “김 여사 수사가 특검 방어 품수인지 지켜보겠다”고 반발했다. 박용국 기자

# 21대 국회 ‘막판 해외 출장’ 관행 되풀이

임기 종료 앞두고 15건 이상 승인... “외유성 논란” 지적

21대 국회에서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의원들의 해외 출장 러시가 이어지고 있어 ‘외유성’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국회사무처와 상임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중 승인된 의원 해외출장만 10여 건에 이르고, 4월 10일 임기 시작 이후

로는 최소 15건의 출장이 확인됐다.

농해수위보건복지위·여가위·행안위 등 여러 상임위 의원들이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활동 시간이 한달도 남지 않은 연금개혁특위 의원들도 유럽행 출장을 준비 중이

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외 출장 명단에는 내년 총선에서 낙선한 의원들의 이름이 많아 ‘말년 휴가’ 식의 외유성 시비도 불거지며 보인다.

전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뒷북 출장이 아니냐”며 “임기 중이라도 선진 사례를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용국 기자

정치권 관계자는 “매번 임기 말 해외출장 신청이 몰리고 낙선 의원들에게 배려 차원에서 출장을 배정하는 게 관례”라고 전했다.

국회가 올해 의원 해외출장 예산으로 책정한 202억원은 역대 최대 규모다. 의원 1인당 약 2000만원의 세비가 드는 셈이다.

이 관계자는 “내용이 부실하면 국회 심의에서 부결되는 사례도 있고 승인된 출장도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국 기자

# 최태원 “반도체 업황 상승세 오래가지 않을 것”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최근 반도체 호황에 대해 겸허한 시각을 내비쳤다. 그는 현재 반도체 업황 상승세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하며, 새로운 반도체 사이클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플러스 남대문에서 열린 연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한상의

7일 업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지난 2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연임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너무 나빴기 때문에 올해 상대적으로 좋아지는 현상일 뿐”이라며 “올해 좋아진 현상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초과 수요가 있었다가 해제되며 오히려 경제에 타격이 왔다고 분석했다. 이어 “소비 둔화와 반도체 수요 감소로 상당한 타격을 입었고, 이런 롤러코스터가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회장의 발언은 최근 ‘반도체 슈퍼 사이클’ 기대감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동안 반도체 슈퍼 사이클은 4~5년 주기로 한 번 돌아오면 2년 연속 이어졌지만, 최근 수년간 이 사이클이 무너지며 새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2017~2018년 반도체 호황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은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그 후 부진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찍으며 반도체 경기 회복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최 회장은 “반도체 수요 회복이 아직 일부에 불과하고 미중 갈등 등 국제 정세 불안정으로 반도체 사이클이 과거와 달라졌다”며 “막연한 기대는 금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투자 결정에도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반도체 미세화 과정을 충족시키려면 라인 증설이 필요한데 캐패스(투자비) 지출이 커져 세계가 반도체 생산 유지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앞으로도 캐패스 투자 여부가 업계의 큰 숙제가 될 것”이라며 “정부 보조금 등으로 리스크를 분산하려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반도체 사이클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대응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이나래 기자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소비자 만족도 높아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지역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청주시, 서울 서초동대문구 등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지역 대형마트·SSM 이용자 520명 중 81%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만족 이유로는 ‘주말 이용 가능’(69.8%), ‘여유로운 주말 장보기’(57%), ‘의무휴업일 신경 쓸 필요 없어’(45.7%) 등을 꼽았다. 지역별로는 서초구(87.2%), 동대문구(81.4%), 청주시(78.1%)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81.9%)은 과거 의무휴업일에 대형마트를 가봤지

만 이용하지 못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평일 전환 후 24주차 일요일에 대형마트를 이용한 비율도 60.4%에 달했다.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영향 없었다”는 의견이 61%로 가장 많았고, “긍정적 영향”도 9.4%를 차지했다. “부정적 영향”은 19%에 그쳤다.

대다수 소비자(76.9%)는 앞으로도 24주 일요일 대형마트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확대에 대해서는 53.8%가 찬성했다.

대한상의는 “온라인 활성화로 전통시장·대형마트 경쟁이 무의미해졌지만 규제는 지속돼 소비자 불편만 가중된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나래 기자

# 이스라엘, 가자지구 라파 지역 군사작전 개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있는 가자지구 라파 지역에 대한 군사작전에 승인하고 공격을 개시했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하마스가 이집트-카타르의 휴전 제안을 수락했다고 발표한 지 몇 시간 만에 이뤄진 조치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군대는 현재 라파 동부 지역의 하마스 관련 표적을 공격하고 있다.

가디언도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전날 라파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전단을 살포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이 지역 공격이 나섰다고 전했다.

IDF는 X(옛 트위터)를 통해 “현재 라파 동부의 하마스 테러 목표물을 대상으로 표적 공격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민간인 보호 계획을 내놓지 않는 한 라파 침공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라파에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피해 수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이 모여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으로 100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라파로 피신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은 전날 10만 명에게 라파 지구에서 대피하라고 지시하며 지상 침공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스라엘은 라파를 하마스의 최후 거점으로 보고 있다.

한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휴전안이 본질적 요구와 거리가 멀다고 밝혔지만, 협상단을 파견해 회담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은혜 기자



프리미어리그 아시아 선수 최초 골든부츠(득점왕) 수상 **손흥민**

**안티푸라민** 클리어파스 에어로솔 의약품

## 대한민국이 당신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학생인권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천부적, 보편적 인권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언론회는 최근 이런 제목으로 발표한 논평에서 “최근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충남도의회에서 폐지가 결정되었다. 주로 진보·좌파 교육감들에 의해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그동안 10여 년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는 평가”라며 “우선은 학생의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교권이 추락했고, 학습권도 현저히 떨어졌다는 분석”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런 가운데 서울학생인권조례도 폐지해야 할 상황에 왔다.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는데, 여기에는 학생들을 위한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 교직원, 학부모(보호자)에 대한 각각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언론회는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교육 3주체가 조화롭게 권리를 행사하고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공교육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교육의 주체가거나 혹은 참여자 모두가 권리를 갖고 책임을 갖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서울시 교육감이나 정치권 야당 쪽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잘못된 규정이라면 바꾸고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잘못된 법으



과거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렸던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어보이던 모습.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로 교육 현장이 무너지고, 한쪽의 과도한 권리 주장으로 오히려 보편적 인권이 적용되지 못한 것은 큰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자의적 인권 적용으로 학교공동체를 황폐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언론회는 “현행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천부적, 보편적 상호 존중의 인권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현재의 학생인권조례는 천부적 인권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보편 타당하게 적용시켜야 할 인권의 범위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현행 진보·좌파 교육감들에 의해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는 상대적이고 자의적 인권이라고 한다”며 “상대적 인권의 기원은 칼 마르크스(Karl Marx) 주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상대적 인권의 핵심이 ‘소수자’이고, 학생인권조례의 핵심도 ‘소수자’가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둘째, 학생들에게 자의적 인권을 부여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현행 학생인권조례에 들어 있는 여러 조

항 가운데,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은 자의적인 인권으로 동성애를 적극 지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셋째, 정치가 학교 교육에 끼어들고 있다”며 “학교에는 학교 구성원 사이에 이미 규약이 있다. 즉 학칙이다. 그 학칙에는 학교와 학생,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역할이 들어가 있다. 각 학교는 자유롭게 그런 분위기 속에서 면학(勉學)을 지켜나가면 된다. 그런데 진보·좌파 교육감들이 주도해 만든 학생인권조례는 정치적 이념을 대입시켜 교육 현장을 혼란케 하고, 심지어 폐폐(疲弊)하도록 만들어 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의 교육을 사랑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을 통해 국가의 밝은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이런 전체주의, 공

포주의, 혼란주의, 사회주의, 일방주의, 성정치주의, 규제만능주의를 담은 학생인권조례를 계속 유지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당장 폐지해야 한다. 자라는 우리 자녀들을 경도(傾倒)된 정치와 이념의 희생물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언론회는 “이제라도 뒤늦게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잘못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한다. 다른 지자체들도 뜻을 같이 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이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 신장의 좋은 처방전이 아님이 증명되었다. 이런 악법적 조례가 없던 시대에도, 현재 없는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바른 교육이 이뤄지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 사마리안퍼스와 로아스토어, 어린이날 맞아 로아 기부 플리마켓 진행

국제구호단체 사마리안퍼스와 로아스토어와 손을 잡고,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기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로아 오피라인 종로점(우정국로 222)에서 열린 이 기

부 플리마켓은 전쟁 국가 및 개발도상국의 어린이들을 위한 자원을 목표로 한다.

로아 기부 플리마켓은 어린이날을 맞아, 전쟁과 고통에 시달리는 어린이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데 초점을 맞

췌다. 이 행사엔 30여 개의 크리스천 브랜드가 참여하여 고품질 컵즈를 판매하고, 사마리안퍼스의 활동 소개와 함께 카우치워싱의 루프탑 찬양 예배도 진행되었다.

이번 기부 플리마켓을 통해 모인 수익금은 사마리안퍼스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OCC선물상자’에 전달될 예정이다. OCC선물상자는 사마리안퍼스가 진행하는 주요 사업 중 하나로, 현지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가장 위대한 여장’이라는 제자양육과정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는 해외선교 프로그램이다. 특히, 2년 이상 지속된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상자에 기부될 것이다.

로아스토어 박종우 대표는 “대한민국

도 전쟁의 아픔이 있는 나라인데 우크라이나 전쟁 2주기를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면서 “가정의 달을 맞아 전쟁과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사마리안퍼스와 기부 플리마켓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기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기독교 국제구호단체인 사마리안퍼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지난 50년간 전 세계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영적, 물질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1970년부터 전쟁, 빈곤, 질병, 기근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도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해 캐나다, 영국, 호주 및

독일에 지사를 설립하였고, 17개국에 현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사마리안퍼스는 의료선교, 식수위생사업, 생계지원, 긴급재난구호 등의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사마리안퍼스 코리아는 사역을 함께 할 교회, 단체, 개인 후원자들을 모집하고 있으며, 일시후원 및 정기후원도 가능하다.

최승연 기자



로아 기부 플리마켓 진행 사진. ©사마리안퍼스 코리아

## 밀알복지재단, 굿월운동 확산 위한 광주 교계 지도자 초청 간담회

밀알복지재단 굿월스토어가 광주 지역 교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5월 광주광역시에서 생기는 굿월스토어 첫 매장인 ‘밀알광주우산점, 밀알광주MBC에터점’의 정식 오픈을 앞두고, 광주 지역의 굿월 운동 확산을 위해 교계가 힘을 모으고자 마련됐다.

2일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개최된 교계 지도자 초청 간담회에는 밀알복지재단 이사장인 홍정길 목사가 참석해 굿월운동의 가치를 전했다.

현장에는 이상복 목사(광주동명교회), 운영팀 목사(광주밀알선교단 단장), 황승

룡 목사(전 호남신학대 총장), 이원재 원로목사(광주무등교회) 등 광주광역시에서 활동하는 교계 지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날 모인 교계 지도자들은 장애인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굿월스토어의 취지에 공감하며, 앞으로 지역사회에 굿월 운동 확산을 위한 움직임에 힘쓰기로 했다.

이박행 목사를 중심으로 광주지역 굿월스토어 교회 후원회도 조직됐다. 후원회는 쓰지 않는 물건을 굿월스토어에 기부하고, 필요한 물건은 굿월스토어에서 구매하는 ‘굿월 운동’을 일으키는 데 힘을



밀알복지재단 굿월스토어가 광주 지역 교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밀알복지재단

예정이다. 교회부터 시작해 지역사회로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목표다.

최승연 기자

## 송실대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사업 선정

송실대학교(총장 장범식)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원장 장경남)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희망의 인문학’ 사업에 2024년도 과정에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 사업은 노숙인과 저소득층 시민을 위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립과 자존감 회복을 목표로 하며, 새로운 과정은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다. 그리고 이번에는 인문학 강의뿐만 아니라 자력증 취득 및 취업 연계 등의 사후지원이 강화되며, 1,000명의 인원이 참석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이 사업은 ‘희망과정’과 ‘행복과정’으로 구성된다. 행복과정은 7-9월에 정규과정으로 송실대학교 캠퍼스에서 진행되며, 역사, 문학, 철학 등의 인문학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새롭게 선정된 송실대학교에서는 ‘자활지원 주민의 지속가능한 회복력 배

양을 비전으로 자전적 글쓰기를 통해 자회복을 위한 심리적 치유 효과를 모색하고, 참여형 음악치료 특강과 서울시역사문화 탐방 등 활동적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한편 ‘2024년 희망의 인문학’ 입학식이 지난달 30일 송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입학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송실대학교 장범식 총장, 이원철 연구산학부총장, 이진욱 산학협력단장, 황민호 인문대학장, 장경남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장, 서울시립대 원용걸 총장 등이 참석했다.

축사를 전한 장범식 총장은 “진리와 봉사를 교훈으로 삼고 있는 송실대학교가 소외된 주민들을 돕는 해당 사업에 동참한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지닌다”며 “희망의 인문학 사업을 통해 참가자들이 송실대에서 의미 있고 즐거운 회복과



2024 희망의 인문학 입학식 기념 사진. ©송실대

치유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은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희망의 인문학 과정 이후 취업연계 등 후속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희망의 인문학이 꿈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라며, 꿈과 희망을 위한 자립의 발판 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최승연 기자

동아보감

# 경옥고

소중한 당신께 귀한 마음을 담은  
‘프리미엄 한방 자양강장제’

다음 경우의 자양강장  
병중병후 · 허약체질 · 육체피로 · 권태 · 갱년기 장애

동아보감 경옥고는 동의보감 처방으로 엄선된 약재를 120시간 달여  
소중한 분을 위해 완성한 한방 프리미엄 자양강장제입니다.

일반의약품 60포(23g x 10포 x 6)

동아보감 경옥고

자양강장 · 병중병후 · 허약체질 · 육체피로 · 갱년기장애 · 권태

일반의약품 | 광고심의필 : 2023-1688-003600 |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처방전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생명윤리적 고찰과 정책적 제언(2)

**김수정 원장**  
내과 전문의,  
성누가병원 내과 원장



생명을 확대하는 사회에서,  
생명을 확대하는 사회로

한편 부성의 중요성 또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현대사회의 수많은 문제는 아버지의 부재 때문이라고도 진단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60년 동안 비혼 출산 여성이 8배 증가하였으며 이는 세계적 추이이기도 하다. 그런데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사는 아이들은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4배 높으며, 청소년기의 낮은 자존감과 성 관련 활동이 더 많았다고 보고되었다. 임신한 십대들의 71%, 자살하는 십대들의 63%는 아버지가 없는 집에서 나왔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아버지의 날 메시지에서 아버지의 부재가 자신의 삶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나는 아버지가 없는 가정이 처러야 하는 대가, 즉 당신을 인도하고 이끌어 줄 수 있는 남자 어른이 집에 없을 때 가슴에 뚫린 구멍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적으로 압니다. 책임은 임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버지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부성은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남성 당사자와 사회에도 유익하다. 문제 행동 경향이 높은 남성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범죄와 약물 남용(담배, 술, 마약 등)이 감소하며, 생물학적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즉, 아버지가 되면) 이 지표들은 더욱더 감소하게 된다(그림 1).

과거와 달리 현대에 들어와서는 남성과 여성이 가사와 육아를 적절히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고 있다. 그러나 기혼 유자녀 맞벌이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남성은 가사와 육아를 적절히 분담하는 이상적 아버지 상과 실제적 역할 수행 사이에 괴리감을 느끼고 그로 인해 가정 안에서 갈등과 소외를 경험하고 있었다. 모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인 것에 비해 부성에 대해서는 매스컴 등에서 비취지듯 감성적이고 친근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이나 육아를 위한 쉼터 등 을 감행했을 때 감소해야 하는 직장 내 불이익이 크며 가부장적 문화의 잔재로 부성에 대한 호의적이지 않은 태도도 여전히 남아있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한국인들에게 아동에 대한 부정적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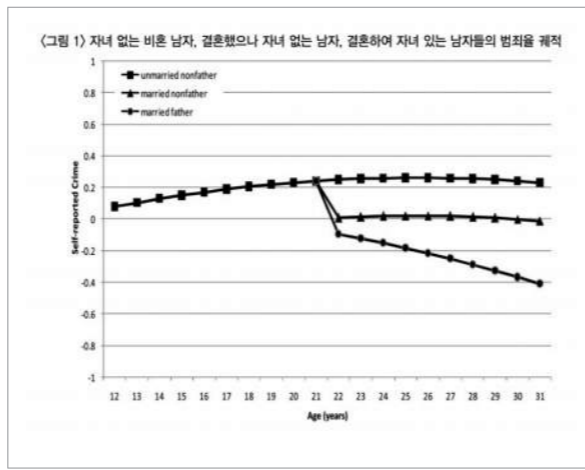
식도 높아지고 있다. “노키즈존(no kids zone)”에 대한 한국사회의 찬성여론이 높다. 물론 아이의 특수성(안전사고 위험 등)과 영업의 자유 문제 등 논란이 있지만 일차적으로는 존중과 배려의 문제로 볼 수 있다. “급식중”, “잠민이”, “요린이” 등 아동에 대한 비하 표현도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늘어났다. 개개의 가정 내에서는 아이들이 사랑받고 있을지 몰라도 사회 전체적으로 아동에 대한 평가 절하는 과거에 비해 나아진 것이 없어 보인다.

### 다. 가정과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따른 ‘비혼주의’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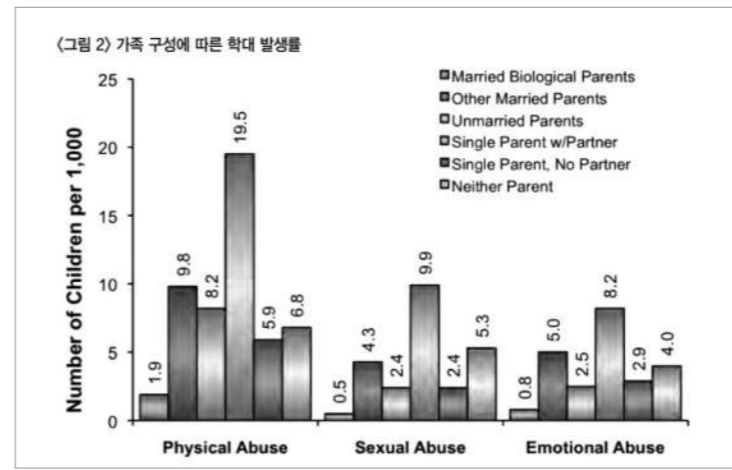
가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전통적인 가족을, 가부장적 구조를 재생산하는 가족 이데올로기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며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다루는 주장들도 자주 관찰된다. 아빠, 엄마,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을 표준적인 가족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라고 일컬으며 비판하는 논리에 따르면, 산업화 이후 남성은 외부 세계와 직업, 여성은 가정과 가사노동을 맡아 왔고 이러한 분업은 남성과 여성의 위계질서와 의존성을 심화시켰으며 이러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가정폭력이나 다른 형태의 가정에 대한 혐오 또는 죄책감을 유발시킨다고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가정은 가정 역사가 오래된 기본적인 사회집단으로서 산업화 훨씬 이전부터 있어왔고, 남성-외부 세계, 여성-가정이라는 이분법은 산업화, 남존여비 사상 등 구시대의 산물일지는 몰라도 가정 자체와 밀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남자와 여자가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하고 아이를 낳는 것은 안정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것이었으며, 가정은 유사 이래 안정적으로 작동해 온 사회의 기본구조로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

물론 가족을 위해 개인의 삶을 억압하거나 가족 구성원 중 일부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식의 지나친 가족주의나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가족 문화에 대해서는 반성과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문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로 잡아야지, 문제를 반대로 뒤집어 가정 자체의 존재 가치를 평가 절하하고 폐기의 대상으로 치부하는 비생산적인 극단으로 치우쳐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는 비혼주의 또한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3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결혼과 출산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여성은 4%, 남성은 13%밖에 되지 않았다. 즉 결혼과 출산을 과거와 같이 필수가 아닌 선택의



(그림 1) 출처: D.C. Kerr, D.M. Capaldi, L.D. Owen, et al.



(그림 2) 출처: Fourth National Incidence Study of Child Abuse and Neglect (NIS-4). Report to Congress.

문제로 바라보게 된 것이다. 비혼의 원인으로서는 결혼 비용 부담, 결혼할 기회 상실, 결혼으로 인해 발생할 불이익 부담, 자발적 결혼 의사 결여 등을 들 수 있다. 남성 비혼자들에게 가장 많은 유형은 결혼비용부담형, 그다음으로 기회상실형이었으며 여성 비혼자들에게 가장 많은 유형은 기회상실형, 이어서 자발형이었다. 여성의 교육 수준은 향상되었으나 경제력을 갖춘 남성 청년층은 감소하여 여성들이 자신의 수준 이상의 배우자를 만나려 하다 보니 이것이 여성들의 결혼 기회를 낮추게 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기존의 가부장적 태도는 아직도 관찰되며 개선이 필요하지만, 요즘은 반대로 남성에 대한 역할별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남성과 여성들 사이에 대립적 구도가 형성되어 있고 한국 저출산은 젠더 갈등 — 즉, 남녀 사이의 관계 악화 — 때문이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자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기에 보다 세심한 고려와 주의가 필요하다. 물론 비자발적인 비혼 상태나 독거노인, 힘든 여건에도 육아를 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입양 가정 등은 인정을 넘어서 적극적인 도움과 돌봄이 필요하다. 그런데 자발적이고 인위적인 비혼출산을 늘리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저출산에 대한 해법으로 프랑스와 같이 동거를 합법화하여 혼외 출산율을 늘려야 하며(프랑스의 혼외 출산율 62.2%) 한국의 혼외 출산율이 2.9%로 낮은 것이 문제인 것처럼 논하기도 한다. 그러나 비혼출산을 장려한다고 해서 출산이 과연 늘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정작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PACS, pacte civil de solidarité)은 통계분석 결과, 출산율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PACS를 맺은 커플

의 46%가 자녀가 없었지만, 혼인 관계인 부부는 15%만 자녀가 없었다. 즉 결혼하지 않은 커플은 출산을 덜 한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결혼에 비해 약한 결혼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려는 결단을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저출산 해법으로 비혼 여성에게 정자 이식 등의 시술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비혼 여성이 시술까지 해서 남편 없이 아버지 없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경우가 빈번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 또 비혼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가정에 대한 가치관을 붕괴시켜 결혼, 출산의 가장 안정적인 틀인 가정이 더 가파르게 소멸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객관적 자료들은 전통적 가정이 더 많은 이점을 가졌음을 보여준다. 동거는 관계의 불안정성을 야기하여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동거 중인 비혼 부모는 결혼한 부모보다 10년 동안 관계를 종료할 가능성이 3배 더 높았으며 이러한 파트너십의 불안정성은 아동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가족 전환(부모의 헤어짐과 파트너 교체 등이 거듭될수록 자녀의 공격성과 행동 문제가 증가했다. 동거 중인 부모의 아이들은 행복감이 낮았으며, 생물학적 부모가 결혼하여 이혼 가정의 아이들에 비해 신체적, 성적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각각 4배, 5배 증가하였다. 아이의 생물학적 부모 중 한 명과 생물학적 부모가 아닌 다른 한명이 동거하는 경우에 아동학대는 10배 이상으로 급증한다(그림 2).

또한 정자 및 난자 기증으로 태어난 481명에 대한 2020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77%는 “기증자가 나의 정체성의 절반에 해당한다”는 진술에 동의하였으며 71%에서 “정자, 난자 기증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이 때때로 우울하고 화가 나거나 슬프다”고 답하였다. 96%에서 “자신과 자신의 자녀를 위해 기증자

의 가족력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94%에서 “기증자에 대해 알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답하였다. 81%에서 “의명의 기증은 폐지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생식세포 기증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대규모 전향적 연구는 아직 시행될 수 없었다. 그러나 기증으로 태어난 자녀들이 본능적으로 부모를 알고 싶어 하는 사례들은 쌓여가고 있다. 독일의 기본법에서 “모든 자라는 자신의 생물학적 부모를 알 권리가 있고, 이러한 권리는 일반적인 인격권으로부터 파생된다”라고 판단한 바 있듯이, 첨단 재생산 기술의 발전으로 파생된 인권 문제도 또한 활발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라. 무책임한 성문화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지난 50년 동안 급속하게 진행된 성혁명은 자유로운 성생활을 정상으로 인식되게 하였으며, 성매개감염병 및 더 많은 원치 않는 임신, 그로 인한 낙태와 미혼모를 낳았다. 이로 인해 남성들도 결혼을 통해 가족과 여성과 아이들에게 헌신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게 되었고 동거가 성 육아와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선택지가 되고 있다. 동거는 결혼과 비교할 때 더 낮은 헌신, 더 높은 비율의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학대와 관련이 있고 삶에 대한 불만족과 더 높은 우울증 비율과 연관이 있다. 동거는 평균적으로 2년 미만으로 지속된다고 보고되어 결국 ‘동거는 독거로 이어진다(Living together leads to living alone)’고 표현되기도 한다. 또한 동거 커플은 결혼한 부부에 비해 계획적인 임신을 덜 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자유로운 성생활, 동거를 선택하는 사고방식은 자기 절제(self-control)보다는 자기중심성(self-centeredness)을 촉진하며, 헌신이나 희생과 같은 가치들은 약화시킨다. 자기 절제와 헌신과 희생은 성공적인 결혼생활에 필수가 되는 요소로서

자유로운 성생활과 동거를 긍정적으로만 조명하는 것은 결혼 인구와 출생 인구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점차 늘어나는 난임 문제도 출산율 감소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난임을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난임의 원인은 만혼, 환경 오염, 생활 방식 등 다양하다. 그러나 자유로운 성생활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성매개감염병과 낙태도 난임의 한 이유가 될 수 있다. 피임약은 임신을 예방하는 약이 아니며 콘돔도 완벽한 성매개감염병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국내 성매개감염병의 보고는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재 일본 등 주변 국가에 매독이 급증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증가 추세로 2024년부터 매독이 전수감시 대상 3급 감염병으로 격상되었다. 매독은 2011년 대비 2019년 신고가 1.8배 증가하였고, 임질, 클라미디아 등 5종의 표본감시 감염병 신고는 3.8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성매개감염병은 가임기인 20-30대에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였으며, 효과적으로 치료되지 않거나 합병증(부고환염, 골관절염 등)이 생길 경우 남녀 모두에게 난임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미국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서는 성매개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성행위를 피하거나 일부일처제에서의 안정적인 성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피임 실패로 많은 낙태가 이루어져 왔는데 낙태 시술로 인한 부작용으로 감염, 유착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 또한 난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낙태는 난임 이외에도 여성들의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1년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에 보고된 800,00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낙태를 한 여성은 출산을 한 여성에 비해 155% 높은 자살률, 34% 높은 불안, 37% 높은 우울감을 보고하였다. 또한 2018년 까지 발표된 103개의 연구를 리뷰 하였을 때에도 낙태를 경험한 여성들은 낙태를 경험하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더 높은 정신적 후유증을 겪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고, 특별히 취약한 여성에 대한 선별과 상담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동의가 이루어져 있다. <계속>

※ 출처: 생명, 윤리와 정책 제8권 제1호, 1-34 ©(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024년 4월. 투고일 2024년 2월 24일, 심사일 2024년 4월 9일, 게재확정일 2024년 4월 16일 <http://doi.org/10.23183/konibp.2024.8.1.001>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 대한민국 희망을 캠 (캠코)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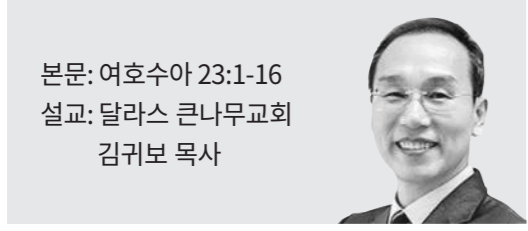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 위태로운 기업의 기회를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발기금
- 침체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 유류 지할당 국유재산 관리
  - 노후 공공유재산 개발 · OnBid (온비드)
-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을
  - 기업구조조정펀드
  - 기업구조조정지원센터(기업) · 경코신비금융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http://www.kamco.or.kr) 문의 1588-3570



# 능력을 잃지 않는 삶



본문: 여호수아 23:1-16  
설교: 달라스 크나목교회  
김귀보 목사

## 김귀보 목사의 본문이 이끄는 설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목표 지향적이다. 눈에 보이는 목표를 정해두면 더 열심히 한다. 무한정 시간을 주는 것보다 한정된 시간을 정해주는 것이 목표를 성취할 확률이 높다. 일년 안에 20파운드 빠라는 것보다 한 달 안에 20파운드 빠라는 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 자발적으로 하라고 편안하게 해 주는 것보다 상과 벌을 확실하게 해서 부담을 줄 때 더 잘한다.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면 눈에 보이는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런데 문제는 목표를 이룬 다음에 위기가 찾아온다.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첫번째는 더 큰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삶의 의미를 상실한다. 더 멀리, 더 높이, 더 많이를 외친다. 두번째는 이룬 목표에 만족해서 더 이상의 도전을 하기 싫어한다. 현실에 안주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큰 목표를 이루었다. 그 다음에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온다. 1절을 보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첫번째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쉬게 하셨다. 주위의 적들과 힘겹게 전쟁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두번째, 쉬게 하신지 오랜 후에 편안한 시간이 오래 지속 되었다. 편안한 삶에 익숙해졌다는 말이다. 세번째,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영적 지도자의 부재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것은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다는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목표를 이루고 난 뒤에 문제가 생겨버렸다. 4절과 5절을 보자. "4.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족 대해까지의 남아 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5.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라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했다. 그렇다고 전쟁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었다. 12지파에게 분배된 땅 안에는 아직 점령하지 못한 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적과의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들은 각 지파들이 계속해서 싸워서 점령해야할 적들이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분배 받은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적들과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았다. 자신들이 이룬 목표에 만족해 버린 것이다. 더 이상 싸우는 것도 싫고, 불편한 것도 싫고, 위협을 감수하면서 전쟁하는 것이 싫어졌다는 것이다. 주변에 있는 이방 부족들과 타협해서 적당히 편하게 살자라고 생각을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목표는 이루어졌는데, 가나안 땅을 차지한 목적은 상실해 버렸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들어가서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살고, 풍요롭고 살고, 즐기면서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다. 가나안 땅은 그런 삶에 어울리지 않는 곳이다.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려면 이집트 땅이 더 어울린다. "10.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밭을 갈아 물을 채우면 밭과 같이 하였거니와 11.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신 11:10-12)

하나님의 첫머리가 가나안 땅은 이집트 땅과 같이 았다라고 했다. 이집트는 모든 것이 풍족한 땅이다. 나일강이 정기적으로 범람해서 주변의 땅을 옥토로 만들었다. 나일강은 물이 넘쳐나서 밭으로 수로만 만들어 주면 언제나 물을 공급할 수 있었다. 나일강의 풍부한 물은 곡식과 과일을 풍성하게 생산해 냈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도 모든 수자원들이 넘쳐나는 곳이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이집트와는 정반대 되는 땅이다. 바가 내리면 땅 속으로 사라져 버려서 늘 물이 부족한 땅이다. 하나님이 적절하게 비와 이슬을 내려주지 않으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땅이다. 양대 문명의 중간에 끼여 있어서 항상 전쟁을 겪을 수밖에 없는 땅이었다.

이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풍족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다. 이렇게 살려면 이집트에서 살아야 한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땅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야 할 땅이다. 가나안 땅에서 삶의 목표는 이집트에서와 같을 수가 없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어떻게 되나? 돈을 많이 벌는 것이 목표라면 목사가 되면 안된다. 사업가가 되어야 한다. 자녀들에게 돈으로 해결 수 있는 좋은 것을 다 해주는 것이 목표면 목사가 되면 안된다. 돈바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목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부요함을 바라고 사는 사람이다.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고 사는 사람이다.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믿고 사모하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늘 나라의 축복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

지하게 하신 목적이 있다. "5.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 19:5-6)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 땅 자체가 아니었다. 하나님은 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를 살리는 제사장으로서, 세계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해서 땅으로 주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목표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나산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광야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몇 만불 이상 벌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녀들이 축복을 받아 다 잘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누가 보더라도 건강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약해도, 부족해도, 아파도,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설정한 어느 기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의 기준일 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최고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목표는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목적은 상실해 버렸다. 목적을 상실하니 목표가 변해 버렸다. 7절과 12절이다. "7.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 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12.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의 부족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까를 고민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서 편안하게 살까로 변했다. 정복하고 쫓아내고 싶었던 적들이 이제 따라가고 싶은 대상이 되어 버렸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가 달라져 버리니 전혀 함께 할 수 없는 두 가지를 연결하려고 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과 이방문화를 따라 사는 것은 맞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과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맞지 않는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표가 되니 어울리지 않는 이 두 가지를 연결해버렸다. 혼합주의가 일어난 것이다.

<탈기독교시대 교회>라는 책에 보면, 지난 25년 동안 미국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4천 만명이라고 이야기 한다. 한국 말로 하면 가나안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다. 4천 만명이면 미국 성인 숫자의 15퍼센트 정도 되는

엄청난 놀라운 숫자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교회를 이탈한 이유이다. 기독교 문화는 좋지만 일요일엔 교회가고 싶지 않다. 그 시간에 가족끼리 오붓하게 지내고 싶다.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 생활(예배, 성도의 교제, 섬김, 봉사)하는 것은 귀찮다.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 하는 것과 예배 드리지 않고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구원 받은 신자로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섬김과 봉사를 하는 것과 그 모든 것을 귀찮아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목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혼구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복을 위한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가능한 것이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도 자기의 욕구와 행복을 침해 하지 못하게 한다. 주일날은 주의 날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한 날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주말에는 여행을 가야 하니까 목요일 저녁을 주일 예배처럼 드리는 경우들은 이미 등장했다.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목적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능력을 다 잃어버렸다. 9절과 10절을 보자. "9.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 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10. 너희 중 한 사람이 천 명을 쫓으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세상 방식은 눈에 보인다. 세상 방식은 계산이 된다. 그래서 세상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과 돈이다. 돈이 많은 사람이 이기고, 사람이 많은 쪽이 이긴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돈과 사람의 많음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이 천 명을 상대해서 이기는 것이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이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것이다. 비천한 자가 권세 있는 자를 이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기 때문이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적들이 두려워 떨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 능력을 잃어버렸다. 왜 잃어버렸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잃어버렸다. 왜 잃어버렸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의 능력이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능력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해도 못한다.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라고 해도 못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력을 모르는 사람에게 모든 문제에 기도의 능력, 예배의 능력,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면 사용하지 않고 싶지 못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가진 것이 더 많아졌다. 삶이 더 풍족해졌다. 더 편해졌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잃어버렸다. 원수들이 두려워 떨지 않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는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 떨었는데, 이제 주변 나라들이 우습게 여기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

구원 받은 우리는 세상의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예수가 그리스도 됨을 선포하고 영적인 전쟁을 하는 영적인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

목표 지향적으로 산다는 것은 목적을 위협하는 것을 제거하면서 사는 것이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목적을 위협하는 것이라면 제거 해야 한다.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적들까지 다 몰아내야 하는가? 더 큰 땅을 차지하고, 더 편하게 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목적을 방해하는 대적이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스스로 절제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가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다고 여호수아 프로젝트가 우리 교회 존재목적은 아니다. 우리 교회에 존재 목적은 영혼구원이다. 여호수아 프로젝트가 이루어져도 영혼구원을 위해서 살고, 여호수아 프로젝트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영혼구원을 위해서 산다. 여호수아 프로젝트는 영혼 구원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은 목표일 뿐이다. 달라스의 부흥을 불을 지피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일 뿐이다.

우리는 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면 안된다. 하나님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면 더 큰 목표를 잡아서 더더더를 외치고 사는 것이 아니다. 또는 하나의 목표를 성취했다고 해서 안주하고 나태하게 사는 것도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습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14절-15절을 보자. "14.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 가는 길로 가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감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15.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할 때까지 하실 것이라"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면 망한다. 우리의 목표대로 살면 힘을 다 잃어버린다. 가진 것은 많아지고, 숫자는 많아지고, 삶의 모습은 더 풍성해질지 모른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산다.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잃어버린다. 기도의 능력이 잃어버린다. 예배의 능력이 잃어버린다.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에게 눌린 영혼들을 살려내는 능력이 다 잃어버린다. 세상과 마귀가 두려워 하지 않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되어 버린다. 머리 카락이 잘린 삼손처럼 되어 버린다.

능력은 육신의 편안함 보다는 불편함 가운데 나온다. 불편함을 제거하면 육신의 욕구만 더더더 부각된다. 새벽 기도하는 불편함을 가지고 살길 바란다. 금요일이 되면 기도하러 나오는 불편함을 제거하지 않고 살길 바란다.

그래서 예배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살길 바란다. 한 사람이 천명을 대적하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길 바란다. 마귀를 대적하고 영혼구원하는 삶을 살길 바란다.

**SAMJIN 삼진제약**

# 해열 진통제 상비약 걱정 끝!

## 게보린<sup>®</sup>쿨다운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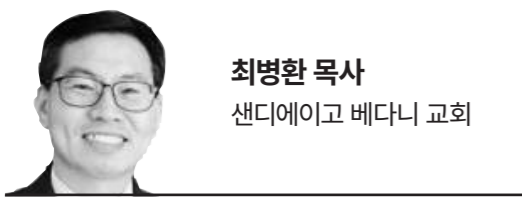
광고심의필: 2022-1618-003300

상품 및 구입문의: 080-082-1234 (수신자 부담)

[성분 및 함량] 아세트아미노펜 400mg + 벤조피타민 8mg + 리보플라빈 4mg + 아스코르브산 100mg [효능 및 효과] 1. 두통, 치통, 발치 후 통증(통증), 인후통, 귀의 통증, 관절통, 신경통, 요통, 근육통, 건통(아개결림), 타박상, 골절상, 염좌통(염좌통), 필경통(생리통), 외상통의 진통 2. 오한, 발열시의 해열(용법 및 용량) 만 15세 이상 및 성인: 1일 3회, 1회 1정 공복(빈 속)시를 피하여 복용한다. 복용 간격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있을수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제품문의전화: 080-082-1234(수신자부담) www.samjinpharm.co.kr



# 최병환 목사와 함께 하는 설교 클리닉 III



최병환 목사  
샌디에이고 베다니 교회

## 목회자의 설교 준비(2)

목회자들의 설교 준비 과정은 매우 정교한 작업이다. 지난 호에는 목회자의 설교 준비 과정 가운데 1) 본문 선택하기 2) 본문 읽기와 묵상하기 3) 본문 주해하기 4) 메인 아이디어 찾기 5)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교하기 6) 설교 형식을 결정하기 7) 설교 아웃라인 작성하기 8) 설교 예화 사용하기 9) 설교 적용하기 10) 서론과 결론 작성하기이다.

**6) 설교 형식을 결정하기**  
설교의 형식은 청중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청중의 흥미와 기대 그리고 참여를 결정한다. 전통적으로 설교의 형식은 두 가지가 있다. 연역적 설교와 귀납적 설교이다. 연역적 설교는 중심 사상을 제시한 후에 청중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증명, 적용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어떤 주제나 교리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반면에 청중들은 설교자가 서론을 이야기하면 본문에서 무엇을 말할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청중들이 긴장감 있게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귀납적 설교는 특정한 이야기를 통해서 일반적인 진리를 이끌어가는 방식이다. 특정한 이야기들은 설교에 무관심하거나 집중하지 못하는 청중들이 귀를 기울여 듣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점이 있다. 주로 이야기 형식으로 설교가 구성되기 때문에 설교자는 본문의 내용이 생동감이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단점은 설교가 잘 준비되지 않으면 청중들은 설교의 핵심 주제를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혼합적 설교 방법은 서론은 귀납적 방식을 택하고 본문은 연역적 방식을 사용한다. 청중들은 서론에서 설교에 흥미를 느끼게 되고 본문에서 성경의 깊은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배우게 된다. 설교자는 성경 본문의 장르와 형식에 맞게 설교의 전개 방식을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다. 청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설교의 형식과 전개 방식을 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7) 설교 아웃라인 작성하기**  
설교의 형식이 결정되면 설교자는 어떻게 설교를 진행할 것인지 아웃라인을 작성해야 한다. 명확한 아웃라인을 작성하면 설교자와 청중들이 설교를 이해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분명한 아웃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설교자는 본문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성경 본문에 대한 깊은 묵상과 주해를 통해서 명확한 아웃라인이 만들어진다. 설교자는 원고 없이도 힘 있게 설교를 진행해 나갈 수 있다.

설교 아웃라인은 일반적으로 서론, 본문, 결론으로 구성된다. 서론에서 주제를 소개하거나 강조점을 제시한다. 본문에서 주제를 발전시킨다. 본문의 의미를 설명하고, 예화를 통해 본문을 증명해 준 후에는 실제적인 적용을 제시해 준다. 결론은 설교를 요약하고 호소를 통해 마무리 짓는 것이다. 효과적인 설교 아웃라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설교자가 본문을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리 바인스와 짐 셰디(Jerry Vines and Jim Shaddix)는 [설교의 능력]에서 효과적인 아웃라인 만드는 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 분석적 방법, 중심 단어 방법, 그리고 설교적 줄거리 방법이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첫째, 분석적 방법은 강해 설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내용을 분석하고 내용을 몇 가지 포인트로 나누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1-21절에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 사건에서 설교자는 3대지로 설교할 수 있다. 거듭남의 당위성(1-3절), 거듭남의 신비(4-15절), 거듭남의

도구(16-21절)로 설교의 아웃라인을 만들 수 있다. 분석적 방법은 강해 설교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다.

둘째, 중심 단어 방법은 성경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중심 단어를 찾아 설교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의 다섯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살아있음, 활력이 있음, 예리한, 짜름, 판단함이라는 중심 단어들을 찾아낼 수 있다.

셋째, 설교적 줄거리 방법은 이야기 형식의 성경 본문에서 아웃라인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이야기는 삶의 정황, 예외소드, 흐름, 긴장점과 해결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식 설교의 흐름은 서론-사건들-문제 해결-결론이라는 형태를 보인다. 설교자가 성경 본문의 구조와 내용들을 잘 이해한 후에 아웃라인을 발전시키면 좋은 설교 아웃라인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8) 설교 예화 사용하기**  
설교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진리와 인간의 경험들이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탁월한 예화 사용은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데 강력한 효과가 있다. 브라이언 채펠(Bryan Chapell)은 "예화가 숙련된 기술자의 손에 들어가면, 그것은 설교자가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설득력 있는 설교 방법의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우리 주님도 예화를 자주 사용하셨다.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막 4:34). 예수님의 탁월한 예화 사용은 청중들이 집중하기에 충분했다. 예수님은 비유, 알레고리, 이미지 등의 방법을 이용해 진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화를 사용하셨다.

데이빗 라센(David L. Larsen)은 그의 책, [설교의 해부]에서 "구약 성경의 75퍼센트가 이야기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날 설교의 폭발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설교자가 예화를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청중들은 설교를 듣는 동안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듣게 될

것이다. 예화는 마치 창문과도 같다. 창문을 통해서 또 다른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해돈 로빈슨(Haddon W. Robinson)은 예화의 본래 의미에 대하여 '주제에 빛을 비추어 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예화를 통해서 무대 위에 연기를 돋보이게 하는 '조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성경이 설교의 주제라고 한다면, 예화는 보조재료에 해당된다. 예화는 설교를 명쾌하게, 흥미롭게, 생생하게, 그리고 실감나게 해준다.

인간 삶의 이야기, 개인의 경험이나 각종 생생한 체험들, 삶의 현장에서 나온 독특한 이야기들, 전쟁, 고통, 기쁨, 아픔의 이야기들은 탁월한 예화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예화를 잘못 사용할 때, 성경의 진리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 흥미 위주의 예화 사용은 매우 위험한 시도이다. 예화를 사용할 때 가능한 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설교자가 예화를 사용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면 청중들은 성경의 진리보다는 예화만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전통적인 방법론에 따르면 하나의 대지마다 한 가지 예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예화는 청중들이 설교를 듣고 적용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줄 수 있다.

**9) 설교 적용하기**  
적용은 강해 설교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설교의 목적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청중의 삶이 변화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청중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초청해야 한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거룩한 삶으로 성화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만약에 설교자가 적용이 없게 설교를 한다면 실패한 설교라고 볼 수 있다.

브라이언 채펠(Bryan Chapell)은 적용을 위한 네 가지 질문을 제시한다.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What)? 하나님은 그것을 어디에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가(Where)?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왜 내가 행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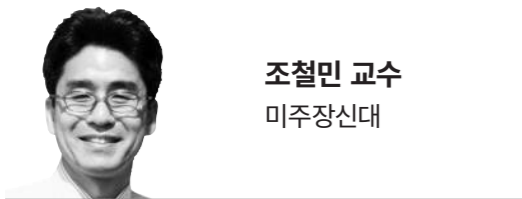
(why)?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는가(How)? 설교자의 임무는 성경 본문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실행할 수 있는 적용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적용은 설교의 종류에 따라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설교가 끝난 후, 말씀에 대한 반응을 촉구할 수 있다. 때로는 설교 전체 가운데 중심 문장들과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분명한 사실은 적용은 설교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때 탁월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변화를 겪는다면 설교자는 임무를 완성한 것이나 다름없다.

**10) 서론과 결론 작성하기**  
일반적인 연설 연구에 따르면 청중들은 연설이 시작된 후에 30초 이내에 그 연설을 들을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고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설교도 서론이 매우 중요하다. 설교자는 서론에서 청중의 관심과 집중을 위해 어떻게 서론을 시작할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설교의 첫 문장이 중요하다. 청중이 집중할 방법을 청중을 연결하는 것이다. 설교 본문과 연결된 흥미로운 주제, 과거의 사건, 미래의 두려움, 분노와 슬픔 등의 감정을 연결하는 것이다. 설교자는 서론에서 메시지의 주제를 설명해야 한다. 서론의 목적은 설교의 주제 앞으로 청중을 이끌어 가는 것이다.

서론이 청중의 관심을 끄는 이야기로 시작한다면, 결론은 훨씬 더 강력해야 한다. 결론은 메시지의 절정이기 때문이다. 탁월한 설교자는 결론의 마지막 문장을 가장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다. 설교 전체 주제와 감정을 살려서 설교의 목적을 분명하게 각인시켜야 한다. 결론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설교 요약, 예화, 적용, 인용, 질문 그리고 초청 등이 있다. 탁월한 설교자는 설교 준비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준비하며 선포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체계적인 설교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건강한 설교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삼촌이 있다



조철민 교수  
미주장신대

(창 14:14) "아브람이 그의 조카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삼백십팔 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비즈니스를 위해서라면

롯은 삼촌 아브람에게 자식처럼 큰 사랑을 받았지만 삼촌의 마음을 몰라주고 요단 지역으로 떠났다. 그리고 장막을 소돔까지 옮기게 되었다. 소돔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악하다는 것은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여호와 비즈니스를 위해 삼촌을 떠난 것이었기 때문이다. 모든 이슈가 비즈니스라는 이유로 무시되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다**  
소돔에서 큰 성공을 꿈꾸던 롯의 계획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소돔왕과 4명의 인근 지역의 왕이 엘람 왕 그돌리오멜에게 반역하자 엘람 왕이

자신을 따르는 3명의 왕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했기 때문이다.

롯은 졸지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자신도 사로잡힌 신세가 되었다. 그의 소돔 비즈니스가 망한 것이다.

**◆삼촌이 있다**  
가나안 헤브론에 살던 삼촌 아브람이 그 소식을 들었다. 그는 자신의 집에 있어서 태어나고 훈련받은 종 318명과 헤브론의 지역 동맹인 마므레의 형제들과 함께 단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쳐부수고 롯과 그의 재물을 찾아왔다. 롯은 죽었다 살아

나게 된 것이다.

롯이 삼촌 아브람에게 한 행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롯이 의로운 삼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삼촌이 자신의 목숨을 던져 조카를 구했다는 것이다.

그런 의로운 삼촌을 가지고 있는가?  
(히 16) "또 그(하나님)가 만이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라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큰 형 되시는 예수가 계시다. 비록 한 번도 그에게 합당한 믿음을 보여준 적

이 없지만 우리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던지시는 큰 형이 있다.

탐욕의 비즈니스를 하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가?

좌우를 둘러보아도 절망뿐임을 느끼고 있는가? 큰 형님을 기대하라. 비록 우리가 불의하나 의로운 그가 도우러 나타나실 것이다. 그의 종들이 나타나 우리를 구할 것이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우리의 큰 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비즈니스, 예배가 된다.

세상에 행복을 물로 더 행복한 세상!  
World Top K-water  
물로 더 행복한 세상!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민감동을 위해 거듭나겠습니다.

환경부 |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 빠른 길을 찾는 인간들



**김인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 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 12:4)

올해 초 보도에 의하면 한국이 자동차 생산 세계 제 4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1위는 여러해 전에 미국을 제친 중국이고, 2위는 일본, 3위가 독일, 4위가 한국, 5위가 멕시코입니다.

자동차 왕국이라 불리던 미국은 오래 전에 자동차 생산 1위 자리를 내어 놓고, 2020년까지만 해도 자동차 수출 4위였는데 이제는 6위로 밀려나고, 그 자리를 한국이 차지했습니다.

인류는 역사 초기부터 두 발로 걸어 다녔고, 조금 세월이 지나고 나서는 말, 당나귀, 낙타 등의 동물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Napoleon군의 포병 장교 Nicolas Joseph Cugnot(퀴노)가 1770년

증기자동차를 발명하였고, 후에 미국의 Henry Ford가 1852년 내연기관을 완성하여 오늘의 자동차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자동차가 세상에 나오므로 사람들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짐을 싣고 빠르게 운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연기관 자동차 시대를 넘어, 하이브리드에 전기차가 나왔고, 수소차도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이제 내연기관 시대가 끝나고 전기차와 수소차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요즘 필자가 살고 있는 LA 시내를 다니다 보면 전후좌우로 한국산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와 기아에서 만든 여러 종류의 차들을 백인들을 비롯해서 흑인, 스페니쉬들이 몰고 다니는 것을 보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6.25사변 때만해도 세계 최빈국 거지 나라가 이제는 세계 굴지의 나라가 되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딜 향해서 그렇게 빠르게 가고 있는지, 자

기들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또 달려갑니다. 과학자들은 사람들과 짐을 더 빠르게 운송하기 위한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전에 몇 번 언급했던 미국에서 18세기 생활을 하고 있는 재침례교회 일파인 Amish들의 삶을 회상해 봅니다. 필자가 Amish 동네에 갔을 때, Amish들은 말 마차를 타고 천천히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지역에 들어서면 80-100마일(160Km)로 달리던 자동차도 말 마차 뒤를 서서히 따라가야 하는데, 그들이 자동차가 뒤따라 와도 길을 비켜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들은 말 마차 뒤를 천천히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서서히 사는 삶을 가르쳐 주려는 의도입니다. Amish들은 말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항상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교통사고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가도, 많은 지식을 축적해도 그것이 인간에게 결코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차량 사고로 치명적 불행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문명의 발전에 너무 치

우치지 말고, Amish들처럼 어떻게 하면 마음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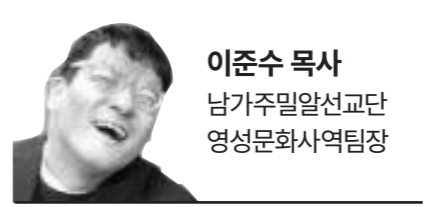
지상에서 우리의 삶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빠르게 움직여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 놓아도,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나야 하고, 영원한 세계로 가야합니다. 이것이 인생이 가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의 삶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저 세상에 가서 살 일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고, 자동차 생산 4위며, 세계 군사력 6위를 차지한다 해도, 그것이 한국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주지는 못합니다. OECD 38개국 중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님 모신 곳이 천국입니다. 내 마음에 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내재(內在:내부에 들어 있음)하고 계실 때, 나는 참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와 함께 길을 가는 것 증거는 일 아닌가..." 살름.

# 사랑하는 당신, 걱정하지 말아요



**이준수 목사**  
남가주밀알선교단  
영성문화사역팀장

예전에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주 함께 '산책'을 다니시곤 했다. 저녁식사 후 소화도 시킬 겸 아파트 단지를 한바퀴 둘러보시곤 하셨는데, 산책하시는 모습을 보면 두 분 스타일이 완전히 달랐다. 아버지는 성격이 급하시어서 옆이나 뒤도 안 돌아보고 혼자 앞으로 후다닥 직진하셨던 반면, 어머니는 한참 뒤에서 이곳저곳 소원도, 간판 다 구경하시며 천천히 따라가셨다. 그 모습이 정말 재밌었다. 내 기억엔 두 분이 함께 보조를 맞추며 다정하게 걸으신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

또 항상 바쁘신 아버지가 모처럼 쉬는 휴일에 가족끼리 어디 놀러갈 때도 아버지는 벌써 준비를 다 마치고 문밖에 나가 엘리베이터 스위치를 누른 채 우리에게 빨리 나오라고 재촉하시는데, 어머니는 삼남매를 일일이 챙기느라 시간이 많이 걸려 결국 두 분 사이에 큰소리가 나고 다툼이 일어나 오랜만의 가족 나들이가 썰렁해질 때가 많았다.

최근 아버지와 어머니가 4개월 간격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 두 분이 천국으로 떠나가신 여정도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작년 여름 아버지는 급성폐렴으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신지 단 사흘만에 가족과 마지막 작별인사도 못하신 채 급하게 떠나셨지만, 어머니는 파킨슨병과 신장암으로 병세가 너무나 위중한데도 남은 식구들이 염려되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주기 위해 쉽게 떠나시지 못하고 한참을 버티시다가 지난 12월 말 천국으로 가셨다.

장애자녀를 둔 엄마의 간절한 소원이 자녀보다 하루 늦게 세상을 떠나는 것이라는, 우리 어머니라고 왜 그렇지 않았겠는가? 내가 아무리 장성해서 한 가정은 이루고 목사가 되었다 한들 우리 어머니 눈에는 한낱 연약한 자식일 뿐이고 사람 같지도 않던 아들을 조금이라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 당신의 모든 열정과 젊음을 바쳐오셨던 만큼, 이제 이 아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눈을 감으시는 게 말할 수 없이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었을 것이다. 나뿐 아니라 홀로 살고 있는 둘째 아들 성육이에 대해서도 걱정과 근심이 엄청 크셨던 것으로 여겨진다.

나로서도 내가 지금껏 세상에서 가장 완전하게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던 아버지, 어머니를 연이어 떠나 보내드리니 슬픔의 차원을 넘어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커다란 상실감과 함께 내 존재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듯한 고통이 느껴진다.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내가 과연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지꾸 되묻게 된다. 솔직히 몹시 두렵고 자신감이 없어진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토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 키우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당신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내가 결코 흔들림 없이 깨끗하게 살아가라는 데에 있는 만큼, 두려움과 염려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나님과 나 자신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신뢰를 가진 채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계속 성실히 이루어가리라 다짐해 본다. 부모님과의 이별이 내 인생에 있어 새로운 출발이요, 장애인으로 진정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한 가지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지난 UCLA에서 홀로 유학하던 시절, 어머니가 나를 보러 미국에 오셨다가 돌아가실 때면 꼭 이런 쪽지를 남기시곤 했다.

"사랑하는 아들 준수야, 엄마는 이제 떠난다. 감기 걸리지 않게 밤에 꼭 창문 닫고 자고, 휠체어도 조심조심 타고 다녀라. 또 어려운 일 있으면 혼자 하려 애 쓰지 말고 주위 분들에게 부탁하고..."

수업에서 돌아와 더 이상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빈 방에서 이 쪽지를 읽으며 며칠동안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나는 곧 "엄마, 염려 마세요. 내가 잘 할게요!" 라고 의지하며 마음을 다잡곤 했다. 얼마 전 우리 어머니가 천국을 향해 마지막 여정을 떠나실 때도 나에게 또 이런 메시지를 남기셨을 것이며, 나는 무너져 내리는 가슴으로 그 메시지를 읽으며 천국에 계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향해 또 이렇게 조용히 말씀드렸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온 정성을 다해 키운 아들 준수는 결코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베풀어주신 엄청난 사랑의 힘으로 인생 끝날까지 건디고 버티며, 그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하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서 항상 지켜봐 주십시오!"

먼 훗날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어머니와 다시 기쁘고 반갑게 만날 날을 간절히 기대해봅니다.

# 다윗의 지도력



**김진홍 목사**  
두레수도원

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사무엘상 21장 13-15절)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체제를 시작하기 전입니다. 연세대학 정치학과 교수 중에 주관중 박사란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정치공학(Political Manipulation)이란 제목의 책을 써서 시중 서점에 보급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청와대에서 이 책을 전부 사들여 폐기 처분하고는 주관중 교수를 대통령 정치 특보로 발탁하였습니다. 정치공학이란 국가를 통치하는 기술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민심을 어떻게 장악하며 반대하는 세력을 어떻게 무력화 시키며 선거에서는 어떻게 승리하느냐 등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당시로서는 정치공학의 대가였던 주관중 교수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체제를 구상하는 일에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였을 것입니다. 정치공학을 선한 지도자가 활용하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는 데에 사용할 것이요, 악한 지도자가 활용하면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에 사용할 것입니다.

정치공학적인 기술을 절묘하게 활용하여 선한 정치에 이용하였던 인물이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간디는 여론이 양분되어 국가적인 위기가 올 때는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간디가 단식하게 되면

모든 여론 기관들이 하루하루 간디의 근황을 보도하곤 하였습니다. 그의 금식이 보름을 넘어서게 되고 20일이 넘게 되면 온 국민들이 간디를 살려야 한다고 들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간디의 정책을 반대하던 사람들도 여론에 밀려 반대를 포기하고 협력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는 다윗이 정치공학을 활용함에 일인자였습니다. 그는 권좌에 오르기 전까지 수차례나 위기를 맞곤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치공학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위기를 극복하여 나가곤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은 아기스 왕의 궁궐에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때 그는 미친 척하여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거짓 미친 척하여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치광이 노릇을 하여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난세에 자신의 뜻을 이루고 경륜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려면 반드시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모든 여론 기관들이 하루하루 간디의 근황을 보도하곤 하였습니다. 그의 금식이 보름을 넘어서게 되고 20일이 넘게 되면 온 국민들이 간디를 살려야 한다고 들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간디의 정책을 반대하던 사람들도 여론에 밀려 반대를 포기하고 협력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는 다윗이 정치공학을 활용함에 일인자였습니다. 그는 권좌에 오르기 전까지 수차례나 위기를 맞곤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치공학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위기를 극복하여 나가곤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은 아기스 왕의 궁궐에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때 그는 미친 척하여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거짓 미친 척하여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치광이 노릇을 하여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난세에 자신의 뜻을 이루고 경륜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려면 반드시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기독교일보** www.christiandaily.co.kr

발행인 김규진 편집인 김진영 인쇄인 임채정

0285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 02-739-8119 /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개월 15,000원 / 1부 1,000원

구독문의 02-6085-8166  
광고문의 02-6082-8165  
대표구좌  
농협 355-0018-9278-03 (주)기독교일보사

미주 기독교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교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기사 제보는**

독자께서 기사화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02-739-8119 혹은 press@cdaily.co.kr 등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주신 내용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기사화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희망이 담긴 당신의 예금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해 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의 지급을 보장해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 어린이안전 정책 범정부 통합 추진... 14개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 6550억 원 투입

교통·제품·식품·환경·시설·교육 6개 분야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수립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등 14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범정부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 6개 분야(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의 2024년 세부 추진계획을 담았다. 올해 총 예산 규모는 작년 대비 약 63억원 증가한 6천550억원이며, 14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에서 65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의 6개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연말까지 개발하고, 진단 결과 위험한 통학로를 우선적으로 개선한다.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하고, 곡선부내리막길 등에는 일정 등급 이상의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대상으로 위생지도·영양교육 등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2026년부터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

별도로 투입하여, 보행자·차량의 움직임을 분석하여 사고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산한다. 무인 키즈푸드, 무인 키즈카페 등과 같은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단추형전지(button cell) 삼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말까지 보호포장과 주의경고 표시 의무화(어린이 보호포장 안전기준 제정)한다. 고카페인 음료 주의문구를 진열대에 표시하는 편의점을 확대(695→1000개소)한다. 전국 236개소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영양교육 등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2026년부터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

는 기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법’ 미적용 시설(지역아동센터 등) 등에 환경안전진단과 시설개선 지원을 확대한다. 어린이 환경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환경보건 안전교실’ 운영 권역을 확대(수도권→수도권, 경상권, 전라권)하고, 건강나누리 캠프 숙박형 프로그램(12화→약 20화)을 확대 운영한다.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합동 안전점검(14개소, 2.27-3.8)과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한 집중안전 점검을 실시(4.22-6.21)한다. 주요 온라인 포털에서 키즈카페 등을 검색할 때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업소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어린이 스스로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굴 및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하이어즈’를 운영(3000명)한다. 영유아 질식사추락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어린이 등 수요자 의견(주제·구성 등)을 반영한 안전교육 콘텐츠 20종을 연말까지 제작하고 배포한다. 행정안전부는 반기별로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예산 집행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신속하고 꼼꼼하게 이행하겠다”라면서, “아울러,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일상생활과 맞닿은 어린이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우리 기자

## “산재신청,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하세요”

근로복지공단, ‘정부24’에 산재신청 서비스 도입  
앱으로 신청서 작성하면 의료기관서 자동 신청

앞으로 산재신청이 ‘정부24’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도 가능해진다. 근로복지공단은 7일 행정안전부의 정부24 앱과 홈페이지를 통한 모바일 산재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재신청은 방문이나 PC 등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산재신청건수와 소요일수가 늘고 있어 이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 2021년 16만8927건이었던 산재신청건수는 2022년 18만1792건, 2023년 19만6206건으로 늘어났다. 재해발생일로부터 산재신청일까지 평균소요일수도 2021년 67.6일에서 이듬해 73.7일, 지난해 77.3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정부24 앱을 통해 시간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신속하고 편리한 산재신청이 가능해져, 처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산재근로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해 ‘윌클릭(One-click) 산재신청 대행 요청’을 검색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치료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지정하면, 해당 정보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 토털 서비스로 연계돼 의료기관에 전달된다. 이후 의료기관이 산재신청서에 소견서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하면 산재신청이 자동적으로 완료돼, 공단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해진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근로자의 신속한 치료와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산재신청 경로를 지속해서 다각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우리 기자

## 다양한 가족서비스, 정부24에서 한 번에 찾는다

가족상담, 다문화가족 서비스 등 확인·신청 가능

여성가족부는 오는 15일부터 ‘정부24’와 연계해 가족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가족센터는 한부모·다문화 가족,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에 맞는 심리정서 상담, 교육, 입산·출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전국 24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여가부는 가족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올해 1월 ‘국민비서’와 ‘가족서비스 통합시스템’을 연계한 데 이어, 이달 15일부터 정부24에 가족·다문화

지원서비스 페이지를 신설하고 서비스 안내를 강화한다. 가족·다문화지원서비스 페이지에서는 가족센터지원서비스, 가족상담서비스, 온가족돌봄사업,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등 6개 사업 정보를 찾아볼 수 있으며,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바로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시에는 가족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정보를 맞춤형으로 받아볼 수 있다.

아울러 생애·의료·주거급여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시에도 필요한 가족센터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한편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시도봉구가족센터를 방문해 가족센터 종사자를 격려하고, 다양한 가족유형별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과 가족서비스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의견을 청취한다. 신 차관은 “국민들이 좋은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민생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더은 기자

## 서울시, 취약계층 청년·가족 550명에 무료 건강검진·의료비 지원

50만원 상당 건강검진 제공  
하반기에는 의료비도 50~100만원 지원

서울시가 ‘가족돌봄청년’과 ‘청년부상제대군인’ 당사자와 가족 550명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하반기에는 의료비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상반기에 건강검진 서비스 대상자를 모집하고 하반기에는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우선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 200명에게 5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 50명을 추가로 선발해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의료비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족돌봄청년들과 그 가족이다. 건강검진은 가족 1인까지 지원하며, 의료비는 본인과 가족 의료비를 모두 더해 1인당 최대 100만원이다.

지원을 원하는 가족돌봄청년은 가족돌봄청년 전담기구(02-6353-0337)로 문의하면 된다.

청년부상제대군인과 그 가족 200명에게도 동일한 5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당사자 100명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의 의료비도 지원한다.

대상은 서울시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에서 청년부상제대군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으로 건강검진은 가족 1인까지, 의료비는 본인에 한한다. 청년부상제대군인 인정방법, 건강검진 및 의료

비 지원 관련 사항은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02-6354-2030)로 문의하면 된다.

시와 협력기관들은 이번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을 통해 청년 당사자의 질병 예방 등 건강 보호는 물론 돌봄과 생계의 이중고를 겪어온 가족돌봄청년들의 짐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 당한 청년제대군인들의 병원 치료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 가족돌봄청년이 겪는 어려움 중 경제적 어려움(48.8%)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김순이 KMI 명예이사장(ESG위원장)은 “올해부터 3개 기관이 협력해 소외계층 청년들의 건강 공백을 돌보기 위한 사업을 시작한다”며 “취약계층 청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무료 건강검진을 비롯한 건강사랑 나눔 사회공헌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훈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장은 “복지의 영역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가족돌봄청년, 청년부상제대군인을 민간과 협업체 지원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긴밀한 협업체가 구축된 만큼, 앞으로도 다각도로 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한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청년부상 제대군인과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 따뜻한 위로를 되찾아 주시길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취약계층 청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든든한 지원자로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우리 기자

성명서, 칼럼, 논평 등 언론에 게재된 송암 권태진 목사의 글 모음집

대한민국 현대사 30년을 정리한 ‘역사 교과서’이자 ‘역사 지침서’



최신간  
NEW

권태진 지음 | 170x240mm(양장)  
400쪽 | 33,000원 | 성빛출판사  
2023년 10월 15일 발간

# 광야에서 희망을 외치다



저자 : 송암(松巖) 권태진

저자는 1978년 10월 15일 천막 하나로 교회를 세운 군포제일교회의 담임목사이다. 설도들과 신명난 가족이 된 그의 사역을 보고 사람들은 어비목회라 불렀고 끝없는 사랑의 돌봄을 어비목회라 칭했다. 그는 한국 교회의 본질 회복과 연합 운동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순종하며 심장으로 믿어지는 목회자이다. 예장 합신 총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등 총회와 연합기구의 수장으로 지역, 교단, 교파를 초월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되는 운동을 계속해왔고 일남전(영호부대) 참전용사로서 피 끓는 애국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다. 그는 ‘송암’이란 호를 가진 시인이기도 하다. 1994년 문예사조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으며 국제PEN회원, 한국문인협회원으로 시 열여덟 권의 시집, 열두 권의 설교집, 열세 권의 에세이 등 총 44권의 저서를 집필했다. 한국전송가개발원의 이사장으로서 찬송 작사가로도 활동 중이다. 그는 ‘오직 예수님이 희망’을 삶으로 전하며 쉬지 않고 열한 나라를 향해 달려간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BIRMINGHAM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 박사(D. MIN.), LOUISIANA BAPTIST UNIVERSITY 명예철학박사(Ph.D.),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사단법인 성명인의 이사장이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96회 총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30대 대표회장, 한국교회연합 89대 대표회장 등을 역임했다.





건축/인테리어/리모델링  
**하주디자인&건축**  
최윤곤(왜관제일교회 집사)

Tel. 054-973-0153  
Mobile. 010-4676-2314  
E-mail. sja7778@naver.com



### (이재흔 목사의 한국교회 살리기)

## 임마누엘 성경구속사개관대학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향한 구원의 복음으로 그 능력이 구속사다. 택하신 은총을 입어도 구원은 복음에 순종해야 얻는 전제조건이 있는 명령이다. 말씀이 믿어져 따지지 않고 따르는 것이 복음 순종이고 구속사의 능력이며, 자기 생각을 따르는 것은 불순종일 뿐 자유도 아무것도 아니다.

임마누엘 성경구속사개관은 문자에 갇힌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언약 이행의 능력을 보게 하고, 자기 생각에 갇힌 자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뜻을 듣고 보게 하며, 멸망의 자리에 있는 자는 주의 영광 앞으로 나오게 하는 구주 예수의 선물이다. 복음이 공의대로 들리고 보이고 믿어져 따르게 하는 말씀의 깊은 샘이다. 구속사의 공의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회개의 능력으로 학문일 수 없고 또 학문에 가두게 할 수도 없는 복음 안에서의 자유다. 한국교회 앞에는 물질과 명예와 권세로 미혹하는 종교의 넓은 길과, 검소와 감사로 구주 예수 따라가는 신앙의 좁은 길이 있다. 복음이 들리고 보여 믿어지게 하는 생명을 듣고 소유하고 흐르게 하기 바랍니다.

**강사 약력**  
생명수기도원 교회 담임(현)  
임마누엘 성경구속사개관대학장(현).  
제 1 예수복음부흥단 대표.  
총회부흥사회.  
홍신대학원 목회학 석사.

**강사 이재흔 목사.**  
소 : 천안시 동남구 터미널4길32  
임마누엘 성경구속사개관대학, 생명수기도원.  
일 시 : 3~6, 9~12월 첫 주 월(오후 2시)~수(오후 5시) (숙식 가능).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전화 : 010-5432-7951.  
(선교계좌, 농협 302 0472 2140 31 이재흔)

## 청주시 상당구 교회매매

주소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기암구말길 47-15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기암리(가지기) 229번지/ 229-1번지(지번)

면적  
\*대지-264(평) / \*토지-258(평) / \*총면적-522(평)  
\*사택-28(평) / \*교회-46(평)

매매가격: 2억5천만원

**<매물장점>**  
1.청정지역입니다  
2.교회,기도원,수련원,요양원,전원생활지로 최적입니다.

연락처 ☎010-5622-8240

## 신·편입생 모집

<수시모집>

- 최고의 교수진 (정규 박사학위 소유자 강의)
- 본교 교수의 수준 높은 강의
- 전 과정 철저한 본교 교과목 수업
- 패적인 캠퍼스 환경
- 여목 제도 있음. (수시접수)

모집과정	과제	지원 자격
신학부	(주/야/토요일) 8학기	·세례를 받은 자 ·남녀 상관없이 사명이 투철한 자 ·본교가 인정하는 타 신학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자는 편입 가능. ·일반대학 이상 졸업자는 본 과정 3학년에 편입.
신대원	(주/야/토요일) 4학기	
학점은행제	월~토(10시-22시)	

**특 전**  
□ 방학 없이 1년 4학기 수업으로 조기졸업이 가능함.  
□ 여목 제도가 잘 활성화 되어 있음.  
□ 기적의 장학제도로 인하여 학비가 저렴함.  
□ 본 과정은 서울캠퍼스와 인천캠퍼스가 동일 함.  
□ 모든 과정 주/야간반 운영.  
□ 편목과정은 신대원에서 2학기 과정을 수료하면 됨.  
□ '수도국제대학원대학교'와 협력교육기관

**입학 시 구비서류**  
□ 입학원서(사진 1매 부착)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신대원과정 지원자는 신학대학 또는 신학교졸업증서 (졸업장사본) 1통  
□ 학점은행제 수업을 통하여 정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신학, 사회복지학, 상담학, 아동보육교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천총회신학 TEL.032-465-5511~2 http://www.incs.or.kr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925-1 국제빌딩 2층,5층(INCS생명교육원)

## 획기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아이디어 사업

기/승/전/치킨집 or 커피숍!?!  
국내 레드오션 NO!  
글로벌 비즈니스가 해답이다

세계1위가 될 사업도, 인류의 진보를 위한 계획도, 예산이 없다면 산산조각이 납니다  
아이템은 있으나 예산이 없는 저를 도와주시면 예산은 갖고 계시나 아이템이 없는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2025년 사업완성  
국민은행 975901-00-026853  
헬프사람넷 조현철  
한구좌1억 8명 제한

\*투자진행시: 변호사 공증 및 10%배당 서류전달 (단계별 수익 창출과정 일목요연 프로세스 제공함)

전화: 010-9897-2003

## 장대수 목사의 목요 말씀찬양을 통한 치유 대부흥성회


[ 부흥회 특징 ]  
불같은 찬양  
생수같은 말씀  
강력한 축사  
우울증해결

강사 장대수 목사  
시흥시영의교회 담임회장  
대한기독교부흥사회의 대표

국내최초 우울증 원인분석연구 박사학위 취득  
부흥회 경력 30년의 장대수 목사의 능력있는 설교를 경험하세요

장소 | 시흥 사랑의 교회  
시간 | 매주 목요일 7시  
문의 | 010-6325-3916  
경기도 시흥시 하성동 377-2 삼성프라자 304호

미디어 선교를 선도하는 방송  
지구촌 예수복음 선교방송  
[ 특 징 ] 오직! 예수님 말씀만 전하는 방송  
\*유튜브 ▶ 검색창에 장대수 목사를 검색해 보세요\*




made in NORWAY

## 그냥 오메가3가 아닙니다!

### 생체이용률 높은 rTG형태 노르웨이 직수입 하프물개 오메가3

3중 기능성 | 건강 기능식품

- 원활한 혈액순환!
- 혈행건강과 뼈건강을 동시에!
- 항산화 건강까지
- 하루 2캡슐
- 고품질 노르웨이산
- 하프물개 오메가3



## 최초판매기념

Sale 57%

1박스(120캡슐) x 3박스  
지금 주문하시면 선물용 쇼핑백 무료 증정!

정가가 360,000 원  
할인가 155,000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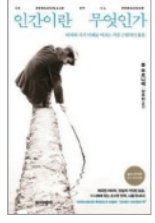
우체국 107045-02-188054  
농협 301-0336-3023-11  
예금주:김종덕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문의 : 010-5775-2671



## 참 존재와 대면하는 시간

### 크리스천북뉴스 서평 '인간이란 무엇인가'



한 사람을 알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험거운 과제입니다. 저마다 자신의 참 존재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 상황에 휩쓸려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더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자신의 모습을 숨기기도 하고, 특정 부분만을 부각시키기도 합니다. 각자 저마다의 가면을 쓴 채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은 타인과 적절하게 거리를 유지한 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괜찮은 듯합니다. 문제는 진짜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가 불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역할에 맞추어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는 능수능란하지만, 참 존재에 대한 인식은 흐릿해집니다.

정신의학자인 폴 투르니에(Paul Tournier) 상담을 공부할 때 그리스도인이었던 교수님께 여쭙어보았습니다. 상담 공부를 하면서 꼭 보아야 하는 기독교 상담 학자가 있는지 말입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분이 폴 투르니에입니다. 그 누구보다 그분의 책은 꼭 봐야 한다고 신신 당부하셨습니다.

폴 투르니에는 『모험으로 사는 인생』, 『강자와 약자』, 『고통보다 깊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하여』 등으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성경적 인간관에 대한 질문을 지속적으로 던졌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에서는 본격적으로 인간의 실제 모습에 대한 오랜 시간의 고민을 풀어냅니다.

불분명한 자아를 찾기 위한 여정은 생각보다 고됩니다. 급하게 가다 보면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저자를 따라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함께 질문하고 함께 답을 모색해야 합니다. 저자는 자신의 상담 사례들과 심리학과의학, 신학 등을 동원해 인간의 참된 존재가 무엇인지를 찾아갑니다.

저자는 처음으로 지적 정보 교환과 영적 교감에 대해서 말

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 사람 자체를 아는 것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문제는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정작 나조차도 나의 진실한 존재를 모를 수 있습니다. 실제의 나와 '현상의 나'는 서로 도움이 되긴 하지만 통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작 나 자신에 대해서는 그 선이 희미해지고 흐릿해집니다. 어떤 지점에서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드러나는 나'에 대한 에너지에 비해 '진짜의 나'에게는 마음 다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자는 실제의 인간과는 다른 거대한 자아를 통칭할 때 '등장인물'이라 명명합니다. '등장인물'은 극 중에 역할을 부여받은 꾸며진 존재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현대 사회에서 등장인물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진정한 교감은 하기 힘들습니다.

우리들이 등장인물이 되는 이유는 개인의 욕망과 현대 사회의 비인간화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역할을 부여받는데, 우리 또한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여서 존중받고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또한 집단 사회는 정신없이 움직이며, 기계처럼 진행됩니다. 그러한 현대사회에서 정작 우리는 누구에게 마음을 열어야 하는지 알지 못한 게 됩니다.

의사나 상담사와 마찬가지로 목회자도 비슷한 고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정작 그들의 존재에 깊이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해결해야 할 하나의 문제로 치부할 때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혹은 상대방이 선을 넘을 것 같다는 부담감으로 존재 자체로 대하는 것을 회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모습된 존재입니다. 온갖 부조리 가운데서도 어느새 자연스레 익숙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층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선불리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총체성과 모습에 대해 인식하고, 최대한 여유롭고도 넉넉하게 상대방에게 다가

가야겠다 다짐을 합니다.

저자는 등장인물과 실제 인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는 둘의 통합을 꾀하기도 하고,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의 실제 모습에 다가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시도 자체가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우리는 등장인물과의 관계를 운영처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등장인물을 떠안으시기를 바라십니다. 성경은 자연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무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우리를 표현하는 여러 도구들조차도 아름답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실제의 자아를 만날 수 있을까요? 저자는 이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지만 포기하기는 아닙니다. 진실성과 책임감이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대화를 통해 진정한 실체로서의 인간과 인간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적 삶을 되찾기 위한 대화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많은 두려움과 장벽들이 존재합니다. 진정한 대화를 가로막는 장벽과 방해물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책임감'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의 참 존재와 대면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저자는 진솔한 대화를 통해 존재와의 만남과 존재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진솔한 대화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도 가능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 즉 기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 점을 통해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인용하는 학자나 저자들이 생소하여 빠르게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 하지만 다양한 사례와 더불어 저자의 진솔한 이야기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는 통찰을 얻게 됩니다. 저자와의 여정은 참 자아와 대면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모종현 목사, 크리스천북뉴스 편집위원

### 5월, 작가들의 말말말



젊은 세대는 개인의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경험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경험할 곳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가 인터넷 세상에 공유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마음만 먹으면 다른 교회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권위적인 설교로만 승부를 거시겠습니까? 나이로 평가하지 않고, 청년을 신앙 공동체의 주체로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다림쥐가 원하는 공동체는 무엇인지 묻고,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이나 법인이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없기에 누구도 남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교회의 주인은 모두입니다. 누구도 누구의 종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모두가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자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니체의 철학과 다른 지점입니다. 주인이 없는 다림쥐들에게 억지로 주인이식을 주입하려고 애쓰지 말고,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세워 주면 어떤가요? 중심을 잃고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 알맹이 없는 시대정신이 아닌,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소개합니다.

구선우 '다음세대입니다'



20세기 이후 신학계는 세계에 내재하는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내재성을 재조명하고 회복함으로써 초월적 신론으로부터 만유재신론(pantheism)으로 전회하는 사례들을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이 여기에는 자연과학의 발전과 생태계 파괴라는 주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존재론상 더욱 의미 있는 것은 그리스도교가 만물 안에 거하는 하나님을 재발견하면서 루아흐 성령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내재성을 회복하는 시도가 가능해졌고,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세계를 하나님과 더불어 전일적으로 보게 할만한 고무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 특히 지혜와 목적과 사랑을 결합한 신론을 개진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교가 밝히는 신학이 될 수 없다. 그렇게 해명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파괴적인 무신론 및 유물론에 직면했던 근현대 신학이 하나님의 인격성, 하나님의 사랑을 발설하는 데 머뭇거리고 웅얼거렸지만, 그것은 크게 잘못된 태도다.

박혁순 '하나님의 무, 그 천의 얼굴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원 자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약속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았습니. 여러분 중에 누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 건의 사항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욕이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다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어디에 있었느냐고 하시는 질문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질문은 옳은 자기가 한 말을 거두어 들고 입을 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십니다. 창조도 율법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장우 '언약에 따른 설교 70'

## 교회와 선교의 방향을 묻는 이들에게

### 신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

한국 선교계에 획을 그은 저자 정만영 선교사가 최근 선교학 개론을 주제로 도서를 집필했다. 책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님의 선교> 저자는 자기고백적 성찰을 바탕으로 사랑에 기초한 복음은 무엇인지 밝힌다. 그러면서 바로 그 복음을 누리고 유통하는 일이 '선교'라는 가르침을 힘겹고 명쾌하게 전해 준다.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에 관한 개념을 성경적, 신학적으로 정립하고 전망을 모색한다. 저자는 "이 책은 총 다섯 장으로 구성되는데, 각 장은 다음

장의 논리적 토대를 제공한다. 1장은 선교가 우선적으로 교회나 선교 단체의 일이라기보다 '선교의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가장 근원적 기초를 다진다. 그것은 2장의 주제, 즉 기독교가 인본주의 종교 아닌 신본주의 종교라는 개념으로 이어지는데, 만유의 주재이신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그 핵심이다. 따라서 3장은 멸망하는 인류를 구출히 여겨 구원하는 차원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선교적 지향성을 다룬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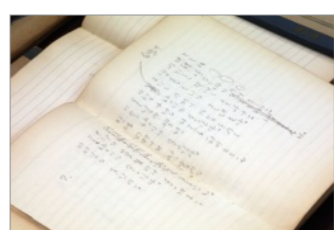


## 박목월 미공개 육필시 166편 디지털북으로 발간

'대한민국 대표 서정시인' 故 박목월(1915~1978)의 미공개 시 166편이 디지털북으로 발간된다. 박목월유작품발간위원회는 지난 46년간 공개되지 않은 박목월 시인의 노트 80권 중에서 시 166편을 선별해 작품 전문을 디지털북으로 제작했다고 최근 밝혔다.

166편의 시는 10권의 디지털 이미지로 복원된 노트로 편집됐다. 디지털시는 시 한 편마다 결표지를 다르게 만들었으며 내부도 원본을 스캔한 이미지, 노트선을 남기면서 바래진 색을 보정한 이미지 등 다양하게 구성됐다. 또한 AI 기술을 통해 박목월이 직접 시를 낭송하는 것을

들을 수 있으며 디지털북 발간위원들이 작품 해석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디지털북은 166편의 시를 ▲생활 ▲사람 ▲신앙 ▲가족 ▲사랑 ▲제주 ▲자연 ▲기념 ▲동심 ▲시인의 삶 등으로 분류했다. 조수원 기자



박목월 시인의 비발표 육필 노트에 담긴 시작품 166편이 디지털북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뉴시스

크리스천투데이

#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추천사**

장로님께서 칠순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경 장로 (구세군 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신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준일 목사 (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제가 읊어낸 책입니다. 박옥철 목사 (양천내산교회)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 매일묵상 은혜를 받은자의 기쁨과 찬송

누가복음 1:57-166  
 57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58 이웃과 친척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 하더라  
 59 팔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 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60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61 저희가 가로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62 그 부친께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려 하는가 물으니  
 63 저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은 요한이라 쓰매 다 기이히 여기더라  
 64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65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지매

66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여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

**[단어설명]**  
 할례/ 율법에 따라 생후 8일 만에 남자 아이들의 생식기의 표피 끝을 잘라내는 의식  
 서판(書板)/ 글을 쓰는 판

**세례 요한의 출생(1:57-63)**  
 나이 든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은 이웃과 친척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을 알고 함께 즐거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그들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나 방법과 다릅니까? 하나님은 노년에 그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 주셨고 그들을 아는 모든 사람들도 같이 기뻐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출생한 지 8일이 되어



할례를 할 때, 사람들은 유대인의 풍습에 따라 아기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하였지만 천사의 지시에 따라 엘리사벳은 '요한'이라고 부를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것이 당시의 풍습과 전통을 벗어난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에 복종하

는 그들의 온전한 믿음의 태도를 배우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가랴의 찬송(1:64-66)**  
 사가랴가 하나님에 하신 일을 인정한 생명의 삶 제공

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그대로 받아들이자 즉시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이 노년에 주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소식을 들은 유대 산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일련의 기적적인 사건과 더불어 태어난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궁금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손이 세례 요한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선택하시고 그가 일생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그를 출생 때부터 준비시키고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실 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필요한 능력과 힘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며 살고 있습니까? 생명의 삶 제공

### 바이블지식IN

## 진정한 예배란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1-2에서 진정한 예배에 대해 완벽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진정한 예배의 모든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예배하는 동기, "하나님의 자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가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입니다. 즉, 영원한 사랑, 영원한 은혜, 성령, 변함없는 평안, 영원한 기쁨, 구원하는 믿음, 위로, 힘, 자혜, 소망, 인내, 양선, 명예, 영광, 의, 보좌, 영생, 용서, 화해, 정당성, 성화, 자유, 존보, 그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선물들에 대한 지식과 이해는 우리에게 찬양과 감사가 넘쳐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다른 말로 그것이 예배

입니다! 이 말씀에 담겨 있는 또 다른 요소는 예배 태도에 관한 설명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 몸이라고 한 언급은 모든 인간적 기능, 모든 인간성, 즉 마음, 생각, 힘, 사고 방식, 태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 그대로 희생 제물이 제단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졌던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통제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전부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을 통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벗어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지혜를 재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아닌, 새롭게 되고 씻겨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감정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진리로 흠뻑 적셔진 마음에 의해 생겨난

것이 아닌 한, 파괴적이고 통제 불능의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향하는 곳에는 의지가 따를 것이고, 감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16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감정이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는 것은 즉 하나님의 긍휼을 안다는 것이며 그때 우리는 우리가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으며, 진리에 대한 신념을 붙잡고, 진리를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진정한 영적 예배로 이어질 것입니다. 영적 예배란 진리에 대해 응답하는 애정으로 말미암는 확신이지, 음악을 포함한 그 어떤 외부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그러한 음악은 예배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음악이 분명히 감정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도, 예배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음악은 예배의 근원은 아니지만, 예배의 표현은 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유도하기 위한 음악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긍휼에 완전히 몰입되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그저 표현해주는 수단으로서의 음악을 찾아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입니다.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지, 예배 안에서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하는지, 자기들의 예배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에 신경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말씀합니다(요한복음 4:24). 이는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식으로 예배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예배는 기도,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찬양,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행동에 제한되어 있지 않고, 사람의 마음과 태도가 올바른 상태에 있을 때 올바르게 행해집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 또한 중요한

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종에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받기에 합당하십니다(요한계시록 19:10). 우리는 성인이자, 선지자, 동상, 천사, 어떤 거지 신물,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도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또한, 기적적인 치유와 같은 무엇인가를 받으려는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서도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 하나님께서 예배받기에 합당하시므로 -,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만 행해져야 합니다. 예배는 회중과 함께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습니다(사도행전 2:22, 35:18). 그 안에서 우리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경배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내적으로 느껴지는 것이고 그다음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의무적으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부질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선을 꿰뚫어 보실 수 있으며, 하나님은 위선을 혐오하십니다. 야모스 5:21-24에서 하나님은 다가오는 심판에 대

해 이야기하시면서 이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또 다른 예로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둘 다 주님께 헌물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아벨의 헌물에만 기뻐하셨습니다. 가인은 의무적으로 헌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무리에서 가장 좋은 양을 골라 드렸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공경으로 헌물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교회나 열린 찬양 예배에서 하는 것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아담과 하와). 모든 선하고, 또 성경은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긴 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영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장 숭고한 형태의 찬양과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지,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사도행전 17:23). 예배는 우리 아버지께 대한 충성과 공경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을 찬미하고 높여드리려는 것입니다. 캣캐츠스 제품

광동초이스 CHOIS PREMIUM

업그레이드 리뉴얼 출시

성분도 UP! 용량도 UP!  
"더 커진 프리미엄 환"으로 고객님의 사랑에 보답합니다.

광동제약 전속모델

### 반세기 광동의 뚝심으로 마침내 프리미엄을 완성하다!

##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 고객 감사 업그레이드 출시!

침향의 정수 침향추출에센스

16%

빈틈없는 3중 황금배합

SAT 녹용 10%

프리미엄 업그레이드 기념 특별 감사 이벤트

{일 선착순 500명 한정!}

※ 증정품 소진 시 이벤트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30환 2박스 구매 시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30환 2박스 무료 증정!

쌍화의 진향 정성, 광동 쌍회진 30포 1박스 추가 증정!

침향, 침향추출에센스, 녹용의 빈틈없는 3중 황금배합으로 프리미엄을 완성하다.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은 진귀한 '침향'에 최상위 SAT 등급 뉴질랜드산 '녹용', 침향나무에서 극소량만 얻을 수 있는 '침향추출에센스'까지 담아 광동제약의 반세기 노하우와 기술력이 집약된 프리미엄 침향환 제품입니다.

100kg 침향나무에서 약 1kg 가량 추출한 진귀한 '침향추출에센스'는 광동제약의 독자 기술력으로 β-유데스몰 등 침향 성분을 담아내어 적은 용량으로도 침향이 지닌 다양한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직 최상위 SAT등급 청정 뉴질랜드산 녹용 전지를 통째로 사용하였습니다. 부위별 쓰임새가 다른 녹용의 힘을 오롯이 담아내기 위해 녹용 전지를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무료 상담 **1899-1260**



## 승리를 위해 선(善)을 원하는 자의 '두 마음'

### 키에르케고어를 만나다

#### 특별한 때를 위한 강화(17) 승리만 원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악을 악으로 되갚지 마십시오. 선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종종 이와 같은 설교를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설교에 대해 100% 동감한다. 선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세상에서 승리만을 원하는 그리스도인 역시 두 마음을 품은 자이기 때문이다. 승리하기 위해서만 선을 원한다면, 보상을 위해 선을 품은 것이고 두 마음인 것은 확실하다.

그는 선을 선기려는 것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다. 섬기려 한 것이 아니고 선을 이용하려 한 것이다.

우리가 조금 더 엄밀해지자. 조금 더 마음이 청결해져야 한다. 아마도 마음이 청결한 자와 두 마음을 품은 자 사이에 경

계를 결정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나. 승리를 위해 선을 원하는 자의 두 마음은 굉장히 교활하다. 이 두 마음은 언제나 숨겨진다.

어느 정도나? 저 분명하고도 아주 분명한 세속적인 두 마음보다 아주 건방진다. 이 두 마음은 진리 안에서 선을 품은 청결한 마음에 가장 근접한 것처럼 보이는 강력한 착각이다.

높이 솟아오르는 물줄기가 저 심연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늘 높이 울려 퍼지는 교만이 저 겸손하고도 비천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그럴듯한 근사치, 이 그럴듯한 두 마음은 영원하고도 본질적인 구별을 조작함으로써 저 밑에서 흘러 나온다.

맞다, 그는 보상을 위해 선을 원한 게 아니다. 그냥 선이 승리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통해” 선이 승리하기를 원했다.

“주여, 제가 선의 도구가 되게 해 주소서! 제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저를 통해 선이 승리하게 해 주세요!”

그는 ‘선택받은 자가 되기 원했다. 세상의 보상? 그런 것은 바라지도 않았다. 그가 경멸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니까. 그를 조롱하고 그를 알잡아보고 그를 경멸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보상을 바라지도 않



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가치한 종이 되기를 바라지 않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눅 17:10).”

한 마디만 해볼까? 자긍심은 이런 자가 요구하는 보상이다. 바로 이런 요구에 그의 폭력적인 두 마음이 존재한다. 그래, 폭력적이다. 그가 폭력으로 선을 빼앗고, 폭력으로 잠깐하고, 선에 대한 봉사를 강요한다.

도대체 왜 선이 그를 통해 승리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은 안 되는가? 이것은 두 마음일 뿐이다. 이것은 두 마음 속에 숨겨진 고집, 또는 아집이다. 그는 목숨을 내놓고 선을 원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만큼 강력해 보여도 여전히 두 마음이다.

두 마음을 품은 자에게 선과 선의 승리는 별개다. 적어도 그를 통한 선의 승리는 완전히 별개다. 그는 선이 승리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면 별별 편다.

혹은 선의 승리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참을 수 없다. 이것은 일종의 말미

거나 선에 대한 구토 증세다. 참을 수 없는 충성심의 가벼움이다. 이것이 그가 두 마음을 품었다는 증거다.

선의 승리가 지연될 때, 그는 참을 수 없다. 시간 싸움이다. 충성된 종의 삶을 생각해 보라. 충성된 종의 삶은 끊임없이 반복된다.

승리? 그런 것은 없을 것처럼 보인다. 그냥 매일에 반복적인 어려운 삶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리 안에서 선을 품은 충성된 종이였다. 그는 선에 의해, 하나님에 의해 사랑을 받는다. 선은 숫양의 기름보다 순종을 더욱 가치 있게 한다(삼상 15:22).

사람이 받았으므로 ‘선을 위하여’ 산다면, 그 일로 떠들썩하게 만든다면, 그 일로 요동친다면, 아픈 환자가 침대 위에 몸을 던지듯 시간 속에 자신을 던진다면, 아픈 환자가 옷을 벗어던지듯 자신을 위한 모든 배려를 벗어던진다면, 그가 이 세상의 보상을 조롱한다면, 사람들과 멀리 떨어진다. 그때 그가 상상하듯이 많은 사람들은 그를 열정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그는 두 마음을 품었으니까. 토네이도가 꾸쭈히 불고 있는 산들바람을 닮을 수 없는 것보다 두 마음은 더

욱이 열정을 닮을 수 없다.

이 두 마음이 조바심이다. 모든 조바심은 이와 같다. 이것은 일종의 심술이다. 이 근원은 이미 아이에게 있다. 아이는 시간을 들이지 않으니.

이것은 저 두 마음을 품은 자에게도 나타난다. 같은 사람에게서 시간과 영원은 화해할 수 없으니까, 그는 선의 느낌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을 것이다.

공허하기 때문에 선은 오랜 고난을 당한다는 것, 자유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은 아무런 힘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약한 자들을 지혜롭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선은 모든 기만을 물리친다는 것, 그는 이것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그 없이도 선이 살 수 있다는 것, 그 없이도 선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그는 이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겸손하게 이해하려 하지도 않는다.

그가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의 열정으로 보면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선의 승리를 신속하게 처리하려 했던 반역자 유다가 될 수도 있다.

이창우 목사(키에르케고어 <스스로 판단하라>, <자기 시험을 위하여> 역자, <창조의 선물> 저자)

### 건강상식

## 치아교정이 안 되는 치아와 되는 치아

치아교정 치료라고 하는 것은 뼈속에 심어져 있는 치아에 적절한 힘을 주어 움직여서 치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뼈를 만들고 없애는 세포들도 중요하지만, 너무 세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게 치아에 가해지는 적절한 양의 힘과 지속성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치아들을 전부 움직임을 통해 교정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세 경우의 치아들은 치아 교정을 통한 치료를 할 수가 없다. 반대로 말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치아교정이 안 되는 치아는 없다고 보면 무방하다.

첫째, 골유착이 되어있는 치아나 임플란트 치아는 치아교정이 안 된다. 치아는 치아를 싸고 있는 잇몸 뼈와 직접 붙어있



지 않고, 치주인대(Periodontal ligament)라고 하는 구조물로 둘러싸여 있다. 치아 교정력을 주게 되면 이 치주인대에 존재하는 세포가 치아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뼈를 녹이고, 치아가 지나온 자리에는 뼈를 생성함으로써 치아가 움직이게 되는 원리다.

그러나 가끔 치주인대의 개입 없이 치

아와 뼈가 직접 붙어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치아를 골유착 (Ankylosis)이라고 부른다. 골유착이 되어있는 치아는 임플란트(implant)와 같이 뼈와 직접 견고하게 붙어 있어서 제 아무리 치아 교정력을 주어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치아들은 어렸을 때 어딘가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을 경우나 유치가 너무 오랫동안 남아있는 경우에서 나타날 수 있다.

골유착이 되어있는 치아는 옆 치아들과 비교해서 교합 레벨이 다르게 나타난다. 치아교정 치료를 하기 전에 골유착이 의심된다면 반드시 정확한 검사를 진행하고 치아교정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둘째, 치아를 뽑은 지 오래 돼서 잇몸 뼈의 폭이 위축된 경우도 치아교정이 안 된다. 영구치가 빠졌는데 비어있는 채로

너무 오래 남겨놓게 되면 뿌리가 없는 부위의 잇몸 뼈가 줄어들게 된다. 그 폭이 너무 좁아져 버렸다면 이 공간으로의 치아 이동도 어렵게 된다.

셋째, 상악동이 처져 있는 치아도 치아 교정이 불가능하다. 가끔은 위턱뼈 안쪽에 있는 상악동이 밑으로 처져 내려와서 잇몸 뼈 아래까지 위치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치아교정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처럼 단순하게 눈으로 보기에 공간이 있으니까 치아교정으로 치아를 움직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가끔은 이런 난관에 부딪힐 때가 종종 있다.

그러나 역으로 위 세 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치아교정이 불가능한 치아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류성용 뉴연세치과 원장

### 은혜 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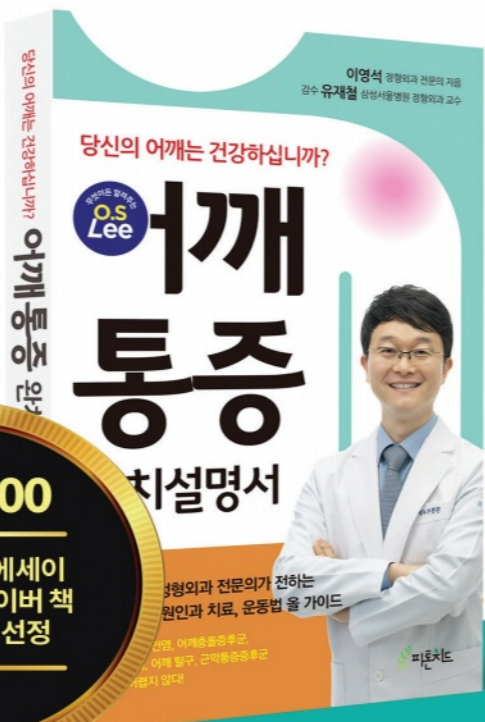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4:23

基督日報  
www.cdaily.co.kr

##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누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 올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 은혜의 샘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시야 시대의 유다 백성이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모세오경을 외며 수양과 살진 집승, 수송아지, 어린 양, 수 염소 등 무수한 제물을 드렸지만 (사 11:2)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고 하셨을까요?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 하나님에 떠났다는 것을 이해도 못 하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사 1:4). 왜냐하면 의식을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오해를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체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나이다(요 17:3)”

하나님에 관해서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는 것은 친밀하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느 사람의 자서전을 통독하고 그 저자에 대해 연구하였지만, 그 사람을 만나거나 친밀한 교제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올바르게 알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동침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 그것은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이고,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전혀 다른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은 이론적으로 정통적으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장로님과 권사님과 목회자들도 당연히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인격체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 5:37-38)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서는, 첫째 하

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막연히 하나님이 계시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교리대로 살아가면 막연히 ‘복 주시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신앙의 기본인 주님을 알고 사랑함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요, 우리는 양들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요 10:3).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지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필수적이고, 영적 전쟁에서도 필수적이며, 그리고 각종 사역에서도 필수적입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수 1:8). 오늘 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가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형용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품을 깨닫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몰라서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라(엡 3:14-19)”

셋째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의 인제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시 119:18)”

“내가 주께 범죄 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시 119:11)”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기본에서 떠나면 죄가 있어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세상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탐욕과 탐심이 제거되지 못하면 바리새인과 똑같은 것이지요(마 23:25).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아무도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인 소경은 자신의 눈이 멀었는지 모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며, 인간답게 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은 여호와를 알아야 산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라(호 6:3)”

“Let us acknowledge the LORD; let us press on to acknowledge him. As surely as the sun rises, he will appear; he will come to us like the winter rains, like the spring rains that water the earth.”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말 가운데 ‘힘써’라는 말 press on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식물을 가지고 기를 때와 같은 뜻이고 두번째는 여인이 아기를 출산할 때 고통 속에서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마지막 힘을 쏟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과연 이와같이, 수고하고 애써본 경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확실히 알지 못 할 때에, 우리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 1:7)에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들은 결코 스스로 교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제대로 알았다면, 그들은 그런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힘써 알게 되면, 여호와께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보호하심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지금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힘써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바른 해결책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한,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 사용해도, 근본적인 해결을 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구했습니다. (고전 2:2)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또한 (빌 3:7-8)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 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상대방을 온전히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알라는 것은 그를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힘써 알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 제치고 여호와를 아는 데 몰달음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되 죽을 정도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관리에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조 배리’는(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육체적, 정서적 능력과 한계와 감정과 성품까지도 완벽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을 관리하는 최고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나를 아는 길이며 세상을 아는 길이 되고 따라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는 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나를 알고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문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것이요, 여호와 삼매!

행복한 그리스도인 제공

### 성경성식

## 탕자(prodigal son)

### 아버지는 최후의 보루

### 돌아온 탕자(누가복음 15:20-24)

(비유) 누가복음 15:11~32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더불어 예수의 이야기들 중, 가장 널리 알려졌고 가장 자주 인용된다.

부자 아버지의 아들이 가족의 재산에서 자신의 몫을 받아 흥청망청 탕진한 끝에 결국 돼지 농장에서 일하게 된다(유대인에게는 아주 끔찍한 운명이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그는 잘못을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온다. 아버지는 그를 따뜻하게 맞으며 하인들에게 아들을 되찾았으니 선대한 잔치를 열라고 명한다. 전도사들은 그 이야기를 ‘용서하는 아버지’라고 불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야기의 핵심은 아들의 방탕함이 아니라 신의 자비라는 의미다.

아버지는 하인들에게 잔치에 쓰기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고 명한다.



이후 이 말은 잔치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화가들은 초라한

다. 하인들이 새 옷을 가져오고 잔치에 쓸 ‘살진 송아지’를 끌고 온다. 워싱턴 국립미술관에 소장된 바르톨로메 무리요의 작품과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환’이 가장 유명하다.

놀랍게도 이 짧은 이야기를 가지고 두 편의 장편영화가 만들어졌다. 1920년대의 ‘방랑자’와 1950년대의 천연색 영화 ‘탕자’가 바로 그것이다. ‘탕자’는 클레머 스타인 라나 터너가 이교의 여사제로 나와 주인공을 ‘방탕한 삶’으로 이끌다가 결국 정신을 차리게 만든다. 연극과 영화로 인기를 끈 ‘갓스펠’은 마태복음에 뿌리를 두었으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장면을 인용했다. 관객들에게 ‘세대 차이를 매울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데 효과 만점이다. 영국의 작곡가 벤저민 브리튼은 ‘탕자’라는 오페라를 지었다. 들녘 출판사 제공



한국도로공사 안전동화 시리즈 | 해와 달 편

# 위급한 순간의 생명을 안전띠

안전띠 미착용 시 사망률은 4배 이상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띠,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ex 한국도로공사



# 목회자와의 동역과 예배의 기름부으심

사람들의 모임은 언제나 동역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동역을 통해서 작은 일부터 큰일을 까지 효과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다. 교회에서 예배인도자가 예배팀과 한마음으로 사역하는 것도 이처럼 큰 열매를 이루는 데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 하지만 예배인도자가 동역자의 마음을 가지는 부분에 반드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배인도자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리더로 세우신 목회자와의 동역이다.



고용일 목사

예배인도자가 주로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칫 은혜가 자신을 통해 시작된다는 착각이다. 물론, 예배인도자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회중에게 부여되거나 은혜가 부여되는 일이 방해 받을 수는 있다. 나는 종종 예배인

도자의 혼탁한 영적 생활을 통해 드러나는 진실함 없는 찬양의 고백과 표정, 그리고 자유롭지 못한 제스처를 통해 충분히 자연스러울 수 있는 예배의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경우들을 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인도자를 통해서만 흘러가거나 막힌다고 말할 수는 없다. 앤디 파크는 예배인도자들이 하나님과 회중들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일에 대해서 "예배인도자들이 굳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예배인도자가 알아야 할 사실 중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예배인도자가 교회 내 담임목회자와 질서 있는 협력 관계를 유지할 때 교회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이다. 우리가 확인하는바 하나님의 교회가 '연합'이요, 영적으로 '동거'하는 상황이라고 볼 때 시편 133편 1-2절

은 교화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 질서라는 것을 매우 적절한 표현으로 일깨워준다. 즉, 예배의 기름부으심은 연합을 통해 질서 있게 흘러내리며, 예배인도자는 다른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그 질서 속에서 예외 대상이 될 수 없다.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목회자와 예배인도자의 관계 속에서 그 부피가 크든 작든 갈등 구조가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이러한 갈등은 주로 예배에 관한 철학의 차이에서 발생하지만 종종 이들의 주변 관계에서부터 시작되기도 한다. 성도들 중 일부가 담임목회자에 대한 불만이나 비판을 예배인도자에게 토로하는 상황이 바로 이러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흔한 갈등의 양상이 있더라도 예배인도자는 사단이 원하는 그러한 갈등 구조로부터 빨리 헤쳐 나와야 한다. 팀 휴즈는 이러한 갈등 구조 속에서 예배인도자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

결해야 할지를 알려준다.

"목회자라고 해서 항상 옳은 건 아니지만, 목회자와 예배인도자의 동역 관계가 틀어졌을 경우, 나는 먼저 예배인도자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려고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라고 부르셨는데, 이것은 때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가끔 목회자들은 너무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거나, 노래로 경배드리는 시간에 대해 충분히 배려하지 않거나, 우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배인도자들이 불순종하거나 불화하는 반응이 정당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탐 크라우더는 예배인도자의 자질에 대해서 "음악적 자질은 약간 부족하다 하더라도 예배에 대한 교회의 철학과 방향을 진정으로 수용하는 예배인도자를 뽑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교회 안에 특별히 리더십 그룹이

따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역 교회의 철학과 방향은 주로 교회 내 최고지도자인 담임목회자에게 달려있는데, 예배인도자가 목회자와 협력하지 않으면 결코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다. 만약, 사람들 중 일부는 그 인도자의 예배 인도에 매료되어 늘 그와 함께 예배하길 원할 수는 있겠지만, 그 또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일에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폴 발로쉬는 담임목회자와의 연합을

위해서 "워십리더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내하며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중심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목회자와 많은 시간을 보내며 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담임목회자와의 연합은 "영혼의 연합이고, 교회가 그런 영동적이고 복된 사역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에 기초하는 것이다. 예배인도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연합을 통해 흘러내린다는 것을 확신해야만 한다.

◆ 고용일 목사 영남신학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기독교교육학과 신학을 전공, 미국 풀러신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졸업, 전 풍성교회 찬양디렉터로 사역했던 그는 한국, 미국, 중남미에서 다년간 한인교회 사역을 하면서 다양한 교회적 상황에 따른 예배사역의 노하우들을 터득, 그 외에도 중국, 일본 및 중남미 지역을 다니면서 각 나라 언어로 선교 집회 찬양을 인도해왔다. 현재 미국 샌디에고(San Diego)에 거주하며 코워십미니스트리(koworship.com)를 통해 지역교회들의 예배팀 성장을 돕고 있다.

##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예수님



이세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엡 5:2)

향수(香水)를 좋아하는가? 요즘에는 남녀불문하고 자신의 취향에 맞는 향수를 찾아 필수 아이템으로 삼고 있으니 그와 관련된 사업 또한 활발하다. 사람들도 향기로운 냄새를 좋아하여 자본주의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상업적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도 참 좋아하신다.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에 대해 성경적인 목상을 해보고자 한다. 먼저는 향기가 예배음악의 어떤 곡에 사용되었는지 알아보자. 지금 기억나는 곡은 데이빗 루이스(David Luis)가 쓴 "Let your glory fall"이란 곡으로 "창조의 아버지"가 있다. 후렴에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라는 문장에서 향기가 쓰였다. 비유적인 표현인데 향기가 주님의 인재를 표현하고 있다. 또 어린 세대들이 즐겨 부르는 복음가로 최영택이 쓴 "만족함이 없었네"라는 곡도 있다. 마찬가지로 후렴에서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가사에 향기가 쓰였다.

다음으로 성경에서 향기가 어느 경우에 쓰였는지 알아보자. 구약에서는 창세기 8장 21절에 처음 나오는데 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자손들이 함께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번제를 드릴 때 그 제물의 향기를 받으셨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후에도 출애굽기와 레위기 등에서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는 제물의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셨다는 기록을 쉽게 찾을 수 있다(레 16:2, 29, 출 29:18). 하지만 하나님께서 짐승의 번제를 받으시는 이유가 무언지 안다면 향기로운 냄새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희생제물의 타는 냄새를 좋아하셨기보다는 각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었고 그 뜻이 진정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할 때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셨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레위기 26장 31절을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우상을 만들고 신상을 세우거나 돌기둥을 세우며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싫어할 때 형식로만 바치는 향기로운 냄새는 흠향하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향기로운 냄새가 하늘에 올라가는 화제의 해당 제사 종류는 5개에 이르고 제사마다 의미가 달랐다. 그중 제사법의 하나인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과 교제를 위한 화제였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드리짐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약에서 드렸던 많은 제사의 총정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완성된 것이다. 제사장이 번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는 행위는 그리스도가 성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을 상징하며 번제물의 피 흘림은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심을 예표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번제물 위에 죄를 전가하거나 대신하여 죽어야 하는 구약의 제사법을 대신하고 완성하시므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범우주적인 화목을 위해 희생제물이 되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이고, 우리는 이를 헌납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함께 높이며 찬양하자!

◆ 이세나 호서대학교 기독교연예학과(음악예술학사), 서울장신예배찬양사역대학원(예배찬양사역학 석사/M.W.M)을 졸업, 현재 크리스천 음악작사, 작/편곡, 보컬디렉터 및 찬양사역자로 활동 중이다.

## 정직한 자들의 찬송



이호열 목사

"너희 의인들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시 33:1)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일본의 바이올린 교육가로 명성을 떨친 스키지 신이치는 그를 찾아와서 배우려는 제자들이 하도 많아서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원하는 학생들이 연주한 녹음테이프를 보내주면 그것을 듣고 나서 시편 레슨을 해주곤 하였습니다. 연주곡을 들은 스키지는 활을 잡는 법이나 현을 켜는 법, 바이올린을 잡는 자세 등의 문제점을 지적해주었는데 그 지도가 하도 정확해서 레슨을 받은 학생들이 놀라워한 것은 물론 그의 레슨대로 교정을 한 학생들의 기량이 한층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들으실 때 연주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마음에 두시는 것은 외적인 기술보다는 마음의 자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빌었지만 그들에게는 이미 주어진 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열방 민족 가운데 먼저 부름을 받았으며 출애굽을 통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것이 있었는데 율법, 성전, 예언자가 그들의 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보물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그 가치를 망각했습니다. 본문 말씀은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는 선포입니다.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 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음식, 공기, 기술, 사상 모두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신앙인이 땅과 하늘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불가능한 사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예배 음악가의 사명은 익숙해진 모든 은혜에 새로운 광채를 비추는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삶의 축복이란 어느 특정한 상황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노래의 대상은 화려한 외적 성공뿐만 아니라 농부가 낚시를 경작하는 일, 주부가 살림하는 일, 아기의 기저귀를 갈고 자장가를 불러주는 일, 들녘에 뜨고 지는 태양을 바라보는 일, 연못에서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을 보는 일 등 실로 다양한 삶입니다. 바로 성전 안에서만이 아니라 삶 전 반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임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의 안개는 예나 오늘이나 그 악명이 높습니다. 런던 사람들은 안개를 천식과 기침의 원인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매우 꺼렷습니다. 그런데 화가인 윌리엄 터너가 안개 낀 런던 다리를 소재로 화폭에 담았습니다. 유화에 담긴 그 장면

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런던 시민들은 삶의 불청객으로만 여겼던 런던의 안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술가의 사명은 기존의 사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배음악의 사명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새롭게 조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감성과 현실에 대한 투철하고 심오한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연극인 박정자 씨가 '늘은 창녀의 노래'라는 작품에서 뺨을 맞는 장면을 연기할 때 자신의 뺨을 실제로, 그것도 세계 때려 달라고 요청을 해서 상대역을 당황케 했습니다. 그 까닭은 '관객들에게 보다 실감나게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배음악이 피상적인 아름다움과 청중의 미적 감각에만 관심을 둔다면 뼈대가 부족한 건물에 창문과 커튼만 잔뜩 달아놓은 격이 될 것입니다. 찬송은 대상을 잃어버리고 방황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 대상은 일상을 통해 충만한 은혜를 베푸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처절한 고난을 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높은 음악적 소양과 더불어 신앙과 삶에 대한 치열한 성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날마다 은총을 베푸시는 구원자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성을 일깨우는 일 이것이 예배음악가의 할 일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EALTH INSURANCE REVIEW & PROMOTION SERVICE

# 나랑 가까워서 좋고 나를 잘 알아서 좋은 우리동네 좋은 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e음" 앱에서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를 확인하세요





# 백석대 문화예술대학원, 기문콘 페스티벌 개최한다

백석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기독교문화콘텐츠 석사 전공이 오는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백석대학교 캠퍼스(서울 방배동)에서 '기문콘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 기독교문화콘텐츠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다양한 콘텐츠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며, 기독교문화콘텐츠의 존속 이상으로 문화적 변화를 모색하는 취지로 열린다.

행사 16일 첫째 날에는 버스킹과 포럼이 진행되며, 17일 둘째 날에는 콘서트와 단편영화제 그리고 양일간 기독교 작가들의 전시와 굿즈 판매가 진행된다.

첫째 날 점심에는 캠퍼스의 활력을 담은 버스킹 무대가 펼쳐진다. Mnet 너의 목소리가 보여에 감성 전도사로 참가하여 인상 깊은 활약을 선보인 싱어송라이터 김관호가 참여하여 관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어 첫째 날(16일) 저녁에 열리는 포럼에는 박종원 감독(영화감독, 전 한예종 총장), 추상미 감독(아진과 보아의 컴퍼니 대표, 영화감독, 배우), 이보람 목사(케어코너즈 대표, 영상 사역자), 최요한 PD(U&I 대표, 음악프로듀서), 황예찬 PD(교회친구다모여 총괄), 선양육 교수



(백석대 기독교문화콘텐츠 전공 주임 교수, 팻머스문화선교회 대표)가 참여하며, '현미경: 기독교문화콘텐츠의 현재와 미래를 보다'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포럼에서는 학교와 현장의 종사자들이 모여 시대적 고민을 함께 나누고, 기독교문화콘텐츠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한다.

둘째 날(17일) 저녁에는 전 아노인팅 예배인도자이자 '교회여 일어나라',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등을 작곡한 전은주 전도사와 함께하는 '위도터전 콘서트'가 열

리며, 기독교문화콘텐츠의 창작자와 제작자들에게 위로와 동기부여를 전한다.

콘서트 이후에는 단편영화제가 진행된다며, '오 주님'이가영, 한국기독교영화제 대상작, '수신장애'(김명중, 기독교 단편영화), '흔적'(구창분, 영화제작수업 실습작)의 영화 3편을 관람한 후에 '감독과의 대화'로 이어진다. 영화에 기독교적 메시지를 담기 위해 노력한 감독의 연출 방식과 제작 비하인드를 들을 수 있다.

특히 이번 페스티벌 기간 동안에는 백석

비전센터 3층 로비에서 기독교 작가의 전시와 다양한 굿즈 판매가 이루어진다. 또한, 목요일에는 캘리그래피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 참가하는 작가는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인더비닝', '라이프 걸렘', '김병삼', '할렐루야삼', '아르에 스튜디오', '켄베이지', '노블리 핸드밀', '드림스카 아이준천' 등이다.

페스티벌을 기획한 선양육 교수(기독교문화콘텐츠 전공 주임)는 "기독교문화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자들이 새로운 인사이트와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석사 전공생들과 열심히 준비했다"며 "특히 현장에서 문화사역을 감당하시는 목회자분들과 많은 크리스찬들이 함께 오셔서, 우리의 일상에 기독교문화콘텐츠 생태계가 온전히 뿌리내려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페스티벌 참가비는 무료이지만, 첫째 날 포럼과 둘째 날 콘서트와 단편영화제는 공연장 좌석에 제한이 있어, 사전 예약이 필수다. 예약은 석사 전공 홈페이지(<https://bugs-ccc.kr>)를 통해 가능하며 문의는 02)520-6148로 하면 된다. 장요한 기자

# 박상민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미니앨범 '러브' 발매기념 기부이벤트

가수 겸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박상민이 새 앨범 '러브(LOVE)' 발매를 기념해 쇼케이스&미니콘서트를 개최했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 측은 MD 상품 판매 수익금을 기부한다고 전했다.

박상민은 7일 저녁 새 앨범 '러브'를 발표했다. 같은 날 서울 흥대 구름아래소극장에서 팬들을 위한 무료 쇼케이스와 콘서트를 진행했다. 이날 판매된 MD 상품 수익금과 현장 모금액은 전액 사랑의열매에 기부됐다.

박상민이 앨범을 발표한 것은 2021년 11월에 공개한 '그대인 순간들' 이후 2년 6개월 여 만이다.

앨범은 이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발매됐다.

앨범 '러브'의 타이틀곡 '내사랑입니다'는 박상민의 허스키 보이스가 돋보이는 러브송이며, 후속곡 '너라는 선물'은 전형적인 팝발라드로 구성됐다. 이 외에도 4050을 겨냥한 '소나기와 폭풍의 You can do it' 등이 담긴다. 마지막 트랙으로는 '내 사랑입니다' 어쿠스틱 버전이 수록된다.

박상민은 "오랜만의 신보라서 떨리기



도 하지만, 그동안 받았던 사랑을 조금이나마 노래로 보답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라며 "특히 같은 날 진행된 콘서트를 통해 이웃에게 따뜻함을 전달해 드리고자 했다"고 밝혔다.

한편 가수 박상민은 2009년부터 사랑의열매와 인연을 맺고 '박상민-황기순 사랑더하기' 거리공연 모금행사를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연탄 및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승연 기자

##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오전	5:00 00 TV 새벽예배 40 힐링송 50 신앙예배	40 힐링스토리 50 조건회 목사의 찬양과 나눔	00 생명의 삶 20 바이블 프로젝트 (신약) 30 은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은혜의 시간 30 TV강단 군포제일(권태진)	00 고품격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 차목 3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40 김병삼 목사의 매일만나 365 (주님은 나의 최고봉)
	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오영택 목사(하늘비전교회) 30 생명의 말씀/성령의 새바람	00 365 새벽기도 생방송 2부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GOODTV 뉴스	10 [말씀] 김은성 목사(영락교회) 50 [말씀]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00 생명의 양식 삼송(김형석) 30 주만찬 50 오늘 만나는 큐티	00 생방송 영성교회 새벽기도회 40 새연결단
	7:00 00 CTS 뉴스 20 주성민 목사의 주일길 35 생명의말씀-박석진 목사(포항장성교회) 50 생명의 말씀-이창교 목사(창원상남교회)	10 힐링스토리 20 비전설교 라이프처치 심상수 목사 50 비전설교 한성교회 도원욱 목사	30 레알컴퍼니 5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1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 30 믿음의 말씀 (김대호)	4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신약 50 노변담화
	8:00 20 신앙예배 30 자판기	20 세상을 깨우는 말씀 훈민복음 50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닌지- 백석대 장중현 총장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20 CBS 성서학당 (조성욱)	00 성지가 좋다 30 비전메시지 - 은혜드림교회 최민선 목사
	9:00 00 내가 매일 기쁘게 50 다니엘 기도회	40 다크 더 로드	00 [말씀] 최성은 목사(지구촌교회) 40 Q&A 107 소요리문답 50 구약의 세계로 (오심소)2	10 새롭게하소서	00 성지가 좋다 - 국내편 3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40 나의 십자가 : 세계의 십자가가 나의 결오로
	10:00 40 바이블 프로젝트	00 비전설교 선한목자교회 김다위 목사 30 여의도순복음교회 수요일예배 생방송 이영훈 목사	20 은누리교회 수요일예배	00 오직 주님만 솔로 40 CBS뉴스	00 선교는 지금 50 김학필 목사의 믿음의 사람들
	11:00 20 7000마리 - 열방을 향하여 40 Miracle Moment 50 [생방송] CTS 뉴스	30 말씀의 생터 화광교회 윤호균 목사	00 [말씀] 임재영 목사(서부성결교회) 4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50 레알컴퍼니	00 울포원	00 소문난 성경교실 30 C채널 매거진 굿데이 50 비전메시지 - 대영교회 최대한 목사
오후	12:00 30 생명의 말씀-유영관 감독(하늘중앙교회)	00 GOODTV 뉴스 20 힐링스토리 30 말씀의 생터 광주청사교회 백윤영 목사	10 바이블 프로젝트 (신약) 20 [말씀] 권준 목사(시애틀영재교회)	00 TV강단 든든한(장항희) 30 TV강단 포도나무(여주봉)	20 비전메시지 - 청운교회 이광산 목사 50 말씀의 창 - 마라나타교회 이영은 목사
	13:00 00 생명의 말씀-이승희 목사(대구반야월교회) 30 신앙예배 4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50 Miracle Moment	00 말씀의 생터 군포사랑의교회 성권용 목사 30 세상을 보는 창 오색오감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 20 [말씀] 정현구 목사(서울영동교회)	20 한소망교회 감사 부흥회	20 배진기 목사의 생수의 강 30 말씀의 창 - 구례제일교회 김명서 목사
	14:00 00 [생방송] 콜링갓 50 내가 매일 기쁘게	00 휴먼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30 문방구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레디온	00 말씀의 힘 앙곡(지용수) 30 새롭게하소서	00 백석의 생터
	15:00 40 7000마리 - 열방을 향하여	00 생방송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곰	00 [말씀] 박성일 목사(필라델피아기쁨의교회) 40 생명의 삶	20 영혼의 양식, 양친(김동인) 30 TV강단 한성(도원욱)	00 힐링토크 회복 플러스 50 김학필 목사의 믿음의 사람들
	16:00 30 생명의 말씀-김승룡 목사(한마음교회)	00 말씀의 생터 성찬교회 오원호 목사 30 말씀의 생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영문) 20 심계명 속 기독교 윤리 40 Q&A 107 소요리문답 50 [말씀] 안광복 목사(상당교회)	00 CBS 성서학당 (송태근) 50 CBS 교회소식	00 내 삶의 행복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17:00 00 사랑의 시간-오정현 목사 50 오정현 목사의 비전묵상 3부 미라클	00 말씀의 생터 순복음측복교회 오영대 목사 30 말씀의 생터 순복음금정교회 김형근 목사	30 [말씀] 김다위 목사(선한목자교회)	00 믿음의 대화 36.5 40 크리스천칼럼_순복음원당(고경환) 5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00 성지가 좋다 3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18:00 00 생명의 말씀-김록이 목사(그레이스힐링교회) 30 신앙예배 40 부흥어게인	00 행복플러스 30 여의도침례 수요일 워십 50 더 메시지	10 2024 목회사관학교 50 [말씀] 권혁민 목사(씨드교회)	10 잘 믿고 잘 사는 법 30 TV강단 남양주한마음(남상진)	30 성지가 좋다 - 국내편
저녁	19:00 30 광림의 시간-김정석 감독	00 조용기 목사, 명설교	30 이스라엘로 (오심소)	00 TV강단 영광제일(이기운) 30 TV강단 정동제일(천영태)	00 말씀의 창 - 인천제2교회 노원석 목사 30 명성교회 수요일기도회
	20:00 30 생명의 말씀-주진 목사(세한교회)	00 명사들의 명강 30 말씀의 생터 감사드림교회 차영아 목사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어메이징 그레이스	0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	3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40 복음간단 - 서울은혜교회 김태규 목사
	21:00 00 CTS 뉴스 40 내가 매일 기쁘게	00 세상을 깨우는 말씀 훈민복음 30 다크 더 로드 50 GOODTV 뉴스	00 창동영광교회 주일예배	00 CBS 성서학당 (조성욱) 50 CBS 뉴스	10 나의 십자가 30 삶의 씨앗이 되는 소리 C'seed(씨드)
	22:00 30 백세특강	10 오 자유여	1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20 잊위의 서재 시즈2 50 저스트 텐 미닛 (달빛마을)	10 새롭게하소서	0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 20 소문난 성경교실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23:00 00 교회행진 50 말씀노트	10 2023 다니엘기도회	00 J.D. 그리어의 다윗의 삶 30 생명의 삶 50 바이블 프로젝트 (신약)	00 주만찬 20 오늘 만나는 큐티 4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	00 이석 목사의 잃어버린 복음을 찾아서 50 라바이츠워십
	24:00 00 콜링갓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00 젊은이의 예배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CGN 비전특강	00 CBS 아카데미 쇼 50 살롱 뽕뽕	00 사랑의교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1:00 00 김병삼 목사의 '하나님의 음성' 30 2023 다니엘기도회	00 GOODTV 오늘의 예배 30 월드미션투데이	00 [말씀] 이윤중 목사(갈보리교회) 40 [말씀] 김용훈 목사(열린문장교회)	00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3 다니엘 기도회 40 CBS 비전특강 이음 목사의 말씀 맥으로의 초대	00 선교는 지금 2
	2:00 20 힐링스토리 30 CTS한밤의 찬양	00 명설교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 30 이음 목사의 성경의 맥	20 [말씀] 김형석 목사(지구촌교회)	30 말씀의 힘 앙곡(지용수)	00 THE 깊이 공금한 신앙, 물렸던 이야기 성지편 40 김병삼 목사의 매일만나 365 (주님은 나의 최고봉)
	3:00 00 7000마리 열방을 향하여 50 은혜로운 찬송이야기	00 GOODTV 특별간중	00 [Global Sermon] J.D. Greear's The Life Of David 30 [말씀] 류용렬 목사(와싱톤중앙장로교회)	00 울포원	00 만나 워십
	4:00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 김선도 감독 20 오늘의 양식 30 스프링하우스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 30 새벽을 깨우는 말씀 예능교회 조건희 목사 55 365 새벽기도 생방송 1부	10 [말씀] 박성근 목사(남기주새누리교회)	00 CBS 성서학당 (김기석) 50 CBS 교회소식	00 말씀 관통 이음 목사의 성경 맥잡기 40 힐링토크 회복 플러스



# 읽고 싶을 때면, 언제든 지 갈래요~

책을 빌리기 위해, 먼 길을 다녀와야 했던 영인이가  
이제는 가까이서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신한은 전국에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관을 지어  
꿈꾸는 아이들과 아름답게 동행합니다

아이는 언제나 웃어야 하니까  
**아름다운 동행**



### [아이들의 상상력을 더 크게, 신한 아름인도서관]

신한금융그룹은 취약 계층·아동 청소년들이 마음껏 책을 읽고 꿈과 상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국내외 545 곳에서 아름인도서관을 열어 더 나은 독서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

